

영원한 진리의 반석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

공동집필: 김미한, 고진주



영원한 진리의 반석

2015년 6월 5일 제1판 2쇄 발행

공동 집필 및 번역: 김미한, 고진주

발행처: 세천사 도서출판

출판 등록번호: 제2014-000001호

등록일: 2014년 2월 6일

전화: 070-8847-1798, 010-4412-3004

홈페이지: www.3angels.org

전자우편: enter144k@gmail.com

ISBN: 979-11-952889-3-9

Copyright© 세천사 도서출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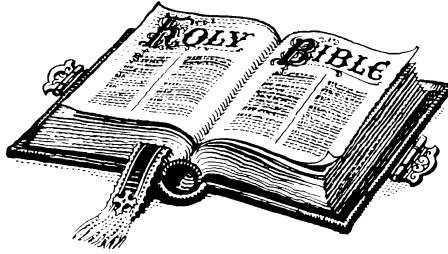
정가: 12,000원

Printed in South Korea.

영원한 진리의 반석

공동 집필: 김미한, 고진주

세천사 도서출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서문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달라짐에 따라 선과 악, 진리와 오류, 빛과 어두움의 쟁투는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 엄청난 싸움터에서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인간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치시킨 모든 부분이 보수 되어야 합니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임을 보여야 합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 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천 년 이상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파수병(把守兵)들을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각 시대마다 그분의 파수병(把守兵)들을 일으키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아니면 반대하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병(把守兵)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증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9증언, 19)

이러한 권고의 말씀이 있으나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각기 다른 설명들이 많이 있고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잘못 적용하고 기독교 역사와 제칠일 재림교 역사에 대하여 무지하든지 아니면 잘못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한다면 그 기별의 요지를 알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깊은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곡해된 하나님의 십계명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야 하고 세 천사 기별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요지는 현 시대에 선포되어야 할 계시록 14장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독자 여러분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엠티 윌리엄스

목차

서문	5
목차	7
제1부 신성의 몇 분인가	11
1. 구속의 경륜(계획): 평화의 의논, 영원한 복음	11
2. 경배를 받으실 분 - 몇 분인가?	18
3.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신성의 아버지를 대표	47
4.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50
5. 하나의 통로	52
6.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58
7. 만물의 대 근원	63
8. 하나님의 정부	66
제2부 성령	75
1. 성령 - 누구이신가?	75
2. 성령이 개체가 아님을 나타내는 말씀들	95
3. 그것으로 표현된 성령 (삼위일체가 아님)	102
4. 종말의 때에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	107

제3부 제칠일 재림교회 역사 111

- 1. 영원한 기초 111
- 2. 진리는 변하지 않음 118
- 3.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강력한 증거들 126
- 4. 제칠일 재림교회 역사 136
- 5. 초창기에 주어진 진리의 빛과 신앙에 충성 140
- 6. 배도의 알파(시작)와 오메가(마지막) 142
- 7. 선구자들의 글을 반복-재 출판하라는 명령 154
- 8. 교단 내에서의 반대의 목소리 170
- 9. 극단적인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이유 178
- 10.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 179

제4부 교회 189

- 1. 교회가 무엇인가? 189
- 2. 바벨론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할 교회 192
- 3. 제칠일 재림교회가 세워진 이유 196
- 4. 세 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 198
- 5. 과거에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 208

제5부 곡해된 예언의 신 211

- 1. '신성의 삼위'인가 아니면 '신성의 삼인칭'인가 211
- 2.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그리스도 자신의 영 216
- 3. 마태복음 28장 19절 219
- 4. 삼위일체, 세 분, 세 개성, 삼중주 222
- 5.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 230

6.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232
7. 어느 분의 개성인가?	235

제6부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시도들 239

1. 예언의 신 시조사 편역	239
2. 찬미는 예배의 일부	254
3. 기독 저널 개신교 신문	257

제7부 솔직한 고백들 259

1.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솔직한 고백들	259
2. 요한일서 5장 7절	261
3. 삼위일체의 문제 (요일 5:7~8)	264
4. 통탄스러운 고백	264

제8부 참된 교리 267

1. 인기 없는 진리	267
2. 증거의 무게	270
3. 기성 교리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전파함	274
4. 흔들림	276
5. 진리는 승리할 것	290

제9부 거짓된 교리 293

1. 로마교 - 다른 경전, 다른 계명, 다른 신	293
2. 로마교의 교리들	295
3. 이원론(二元論)과 철학적 우상	302

- 4. 거짓 종교, 거짓된 교리들 304
- 5. 말씀의 질서에서 이탈 307
- 6. 재림시기를 정하는 참람 311

제10부 심판 때에 323

- 1. 무관심과 중립 323
- 2.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 받게 되는 것 324
- 3.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327

*본서의 모든 예언의 신 인용구는 영문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제1부

신성의 몇 분인가

1. 구속의 경륜(계획): 평화의 의논, 영원한 복음

구속의 경륜-백 명 중에 하나도 깨닫지 못함

“우리들은 매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 할 때에 안전하지 못하다. 수고함이 없이는 세속적인 재물들을 얻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들 자신의 열렬한 노력이 없이 어떻게 신령한 하늘의 축복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진리의 광산은 파고 들어가야만 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 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들에게도 더욱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긴요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백 명 중에 하나도** 되지 못한다.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이 비취기 시작할 때에 영혼의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활동한다. 만약 우리들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오류의 찌꺼기들은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이며 우리 눈에 가려졌던 진리의 보석들이 발견될 것이다.” (1기별, 360)

“왜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이렇게 적게 언급

되는가?” (ST, August 28, 1893)

최고의 학문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의 과학이다. 이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주에 대해 주의 환기시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세 전부터 감취었”(롬 16:25)던 목적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한 번 해볼 만한 **최고의 학문**인 것이다. 이 학문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심령을 고상하게 한다.” (교육 126)

두 분께서 세우신 대비책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事後考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 알게 하신 그 비밀”(롬 16:25)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요 3:16) 였다.” (소망, 22)

아버지와 아들만이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구속의 경륜을 세울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논**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치료, 429)

“구원의 계획이 세워질 때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논**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묘 속으로 억지로 끼어들고자 하는 인간들은 영원한 영적 사물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보여준다. 자비의 음성이 아직 들리고 있는 동안, 그들

이 스스로를 티끌 속에 낮추고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분께 탄원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8증언, 279)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두 사이의 개성이 다음의 성경 말씀에서도 밝혀져 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의논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와 의논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슥 6:12, 13).” (8증언, 269)

두 분의 무한하신 희생

“인간이 잃어버린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애와 질병과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나는 자애로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곧 그가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아버지와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한 천사가 일러주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와 의논하고 계시는 동안 천사들의 슬픔은 매우 큰 것같이 보였다. 세 번이나 그는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그가 거기서 나올 때에야 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모든 당혹과 의심의 빛이 걷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곧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간의 용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대신 죽기로 합의했으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해주셨다.”(초기, 149)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니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죄지은 인류를 멸망하도록 버려두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게 내어 주느냐 하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천사들도 저들 중에 멸망해가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가 있을 만큼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 없는 일이다”라고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하였다. 인간의 범 죄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바치는 생명으로는 그 빛을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중보**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빛을 갚고 절망적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초기, 151-152)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식과 죄의 수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런 의논 - “**평화의 의논**”(숙 6:13)

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 (계 13:8 구역)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 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요 3:16)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숭경해 마지않을 것이다.” (부조, 63-64)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 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가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부조, 64)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 확립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히었다. 아담과 그의 반역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 하셨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

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와 율법은 땅에서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분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천사의 생명이라도 이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희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한 교훈도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위하여 속죄하실 수 있으셨다. 아담의 범죄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벧후 2:19) 된다. 사람이 사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하여 사탄은 “이 세상 신”(고후 4:4)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었다.” (부조, 66-67)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이와 같은 결과 -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 - 를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1, 32). 사람의 구원

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부조, 68-69)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에는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 하시고자 하셨다.” (부조, 67)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바 되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

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실 것이며,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여전히 그들을 초청하실 것이다. 그분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며, 불의가 편만한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적은 무리가 항상 있을 것이었다.**”(부조, 67)

2. 경배를 받으실 분 - 몇 분인가?

1) 성경에서

신성의 두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 24)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 5:23)

모든 만물은 두 분을 경배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 5:13,14)

-이 장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포함된 광경이다. 모든 만물은 최상의 존경과 경배를 두 분 곧 아버지(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들(어린양)께만 드린다. 계시록 5장 14절은 모든 경배가 어떤 다른 분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두 분께 드려 종료되었음을 가르쳐 준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1:22)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1)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3)

두 분의 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엡 5: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 11:15)

두 분을 부인: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흥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유 1:3,4) (킹 제임스역)

두 분을 미워함: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 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요 15:23, 24)

두 분을 모르기 때문: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 16:2,3)

적그리스도는 두 분을 부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 2:22)

2) 예언의 신에서

두 분만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 (계 5:11)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圖謀)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부조, 36)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도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그리고 온 하늘은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였다.” (쟁투, 493)

천지 창조 - 두 분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1-2)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부조, 34)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쟁투, 493)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이미 숙고하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업 -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 - 을 실행하셨다.” (살아, 20)

“땅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서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 즉 자기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하셨다. 그들은 땅과 땅 위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일하셨다.” (살아,21)

하늘의 모든 천사들 - 인류 창조 전에 두 분께 존경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그분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부조, 36)

두 분의 언약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뢴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지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요 19:30; 17:24).” (소망, 834)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뢴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사탄의 꾀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

셨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다(원고 111, 1897).”(화이트주석, 요 19:30)

“아버지와 아들께서 영원한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기로 서약하였다.”(청년 지도자, June 14, 1900 par. 5)

두 분의 존재

“영혼의 대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그의 과학으로 이끌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의 속임수는 세상에 흘러넘친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1설교, 357)

“하늘 천사들이 반역자 루시퍼를 우러러봤던 것처럼 여느 사람들이 인간을 우러러 인간의 위대성만을 믿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까지도 망각케 할 여지를 추호도 남겨서는 안 된다. 누가 탐구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발견할 수 있을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무한히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것에 대하여 말함으로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업의 목표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한다.”(높임, 76)

“우리의 목사들과 교사들과 편집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서적에 나타난 거짓 사상들이 원칙에 있어서 진리의 영의 교훈들과 동일하다는 신조 아래 그들의 토의와 설교와 출판에 때때로 혼합될 위험이 있다. “산 성전”이라는 책이 이런 일에 대한 하나의 예증인데, 그 책의 저자는 그 교훈들이 화이트 부인의 저술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주장을 했다. 거듭거듭 우리는, 사탄에게서 나온 과학, 곧 사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재를 부인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과학을 연구하는 자들의 영향력을 대적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9증언, 68)

두 분의 개성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의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형체로 세상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왕의 의복과 왕의 면류관을 벗어 놓고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셨다.” (9증언, 68)

두 분에 대한 올바른 견해

“사람의 대적 마귀는 청년들을 감화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심을 가득 품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특별히 그의 노력은 하늘의 빛을 받기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이는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어떤 행동이라도 그의 유혹을 저항하는데 힘이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빛의 천사로서 그는 그럴듯한 계교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여 점차로 의무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청년, 454)

두 분의 희생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의 계획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희생은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 (쟁투, 503)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쟁투 671)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율법의 한 계명도 폐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 천사들은 아담에게, 그의 범죄가 사망과 비참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살아, 48)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는 세련되고 마음이 넓어지며 향상된다. 거룩한 사물에 관한 지식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발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기이한 것들을 열어 보여 주실 것이다..... 구원의 위대한 선물은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바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을 등한히 하는 것은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리뷰, 1891.3.10)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렀는지 아신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영원한 부와 함께 부요케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의 사랑은 비할 데 없다.” (This Day With God 290.7)

“하늘로 가는 길이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 활짝 열렸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길로 행하며, 조건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는 그 길 가운데 있는가? 그대는 지도자,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을 따르고 있는가?” (목사, 453)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주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부조, 70)

“인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값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Special Testimonies On Education, p. 21)

“사람도 가장 높은 천사도 위대한 희생을 해야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신다.” (The Bible Echo, October 28, 1895)

루시퍼는 타락 전에 두 분을 찬양

“하나님과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찬양을 부를 시간이 다가오면, 사탄은 하늘 찬양대를 지휘하였었다. 그가 먼저 곡조를 시작하면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존경하는 찬양을 불렀고 그 영화로운 음악 소리는 온 하늘에 울려 퍼졌다.” (살아 25)

“루시퍼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에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부조, 36-37)

루시퍼는 두 분을 비난

“그 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시퍼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탄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 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소망, 834)

사탄은 두 분의 권위에 도전(반역)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1기별, 250)

“그 투쟁이 이 지구상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사탄은 재차 표면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나라도 역시 대 반역자의 수중에 있었다. 이제 사탄에게는 독립 국가를 건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권위**(the authority of God and His Son)에 도전할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지구와 그 거민들이 마침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부조, 331)

“드디어 사탄은 절망과 나약한 감정을 버리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행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의 권위**에 반항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노력을 다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사탄은 그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 주었다. 만일 그가 무모하게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 **하나님 자신의 아들**(God's own Son)에 대하여 불평하였다면 그들은 잠시도 귀담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공격에 대비할 것이다. 조금 전까지도 큰 권세를 가졌었던 천사로서의 그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한다면 그는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힘이나 억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간계와 속임수로는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살아, 29)

“사탄은 자기의 반역에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가담시켰다. 저들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로부터 돌아섰으며, 반역의 선동자에게 가세하였다.” (3증언, 114)

“만일 우리가 교묘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원수의 세력에 합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1기별, 194)

사탄은 두 분에게 불만

“사탄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불평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털어 놓지 않았다. 그는 그를 완전하다고 생각한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자신보다 더 좋아하심으로 불공평하게 그를 취급하셨다고 했다. 이런 그릇된 말을 한 결과로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은 그를 동조하게 되어 그들의 순결과 그들의 높은 지위와 그들의 행복한 집을 잃어버렸다. 사탄은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것과 똑같이 질투하고 악한 추측을 하는 그 일을 지상에서 계속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다.” (5증언, 291)

“사탄은 하늘에서 동조자들을 가졌으며,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자기편에 끌어들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이 한편에 있었으며 사탄이 다른 편에 있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위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싫어하게 되었다. 사탄의 미묘한 암시가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원수이며, 사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믿는 지점까지 실제로 이르게 되었다. 현재 사탄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배력을 마음들 위에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련과 경험을 통해 백배나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남녀들이 사탄의 미묘한 암시와 흥계를 통해서 미혹을 당하고,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3증언, 328)

“사탄은 자기의 반역에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가담시켰다. 저들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로부터** 돌아섰으며, 반역의 선동자에게 가세하였다.” (3증언, 115)

사탄은 두 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음

“사탄은 천사들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까지도 큰 배도자의 편을 들기에 이르렀다(RH, 1909. 1. 28).” (화잇주석, 계 12:7)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두 분께 경배를 드렸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에덴 집의 모든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작은 가수(歌手)들이 찬란하고 우아하게 날개를 저으며 부르는 유쾌한 노래를 들으며 행복에 젖었다. 이 순결한 부부는 그들과 더불어 저희를 두른 사랑의 모든 표시들을 보면서 음성을 높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를 불렀다.” (살아, 22)

“새들이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주위에 훨훨 날아다녔고, 새

들의 즐거운 노래는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도 새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부조, 50)

“천사들은 그들과 합류하여 조화로운 음악의 거룩한 선율을 내었고 그들의 찬미 소리가 행복한 에덴에서 울려 퍼질 때 사탄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들었다.” (영문 시조 1879-1-16)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온 우주는 아담과 하와의 지위를 결정짓게 될 그 투쟁을 지켜보았다. 사탄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놓고 그의 기만적 이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 할 때 천사들은 이 거룩한 부부가 그 유혹자에게 기만당하지나 않을까 그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나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저 거룩한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 가졌던 사랑이 혹시 사탄에게로 옮겨지지나 않을까?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나 않을까?” 천사들은 초조한 듯 서로 속삭였다.” (화이트주석, 창 3:6)

“저희 노래가 복된 에덴에서 흘러나올 때에 사탄은 그들이 **성부와 성자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살아, 31)

“온 우주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처지를 결정하게 될 쟁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질문하였다. ‘거룩한 부부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사탄에게로 옮길 것인가?’” (영문 시조 5월 12일, 1890년 문단 2)

인류의 타락으로 두 분이 치욕을 받으심

“인류의 타락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치욕을 받으셨다.” (영문 시조 12월 12일, 1895년)

성경의 모든 교훈은 두 분을 나타냄

“성경에는 모든 의무가 밝혀져 있다. 주어진 모든 교훈은 이해하기 쉽다. 모든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말씀 속에 구원의 과학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하

나님께서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이다.” (8증언, 157)

“하늘 총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서 인간의 구원에 꼭 필요하다 하고 여기신 것들이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되었다. 구원에 대한 무한한 진리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진리를 알고 하는 자들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거룩한 계시들은 인간에게 의를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 동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부모, 438)

“모든 교육에 있어서 첫째가는 큰 공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애 가운데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의 해석만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된 교육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늘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육상 혼란이 초래되었다.” (자녀, 293)

예수의 증거는 두 분으로 말미암은 것

“나는 내가 본 사실과 내가 들은 것들과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나는 이 증언이 하늘 아버지와 그 독생자로 말미암은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같이하였고 펜과 음성으로 그 순서를 따라 경고의 기별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목격하였고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이 사업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되며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영을 따르는 무리와 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2기별, 388)

두 분의 보좌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초기, 54)

“만일 누구든지...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고전 3:14).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주위에 모일 때에 주어지는 상

급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요한이 인간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쓰러졌고, 그 광경에 차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멸을 입을 때에는 그들이 “그의 계신 그대로 볼”(요일 3:2) 것이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서 사랑하시는 분에게 영접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의는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구속의 계획에서 그분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영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다.” (9증언, 285)

두 분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의 불이며**”(단 7:9,13)

아들의 형상 -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계 1:13-16)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은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도 그분과 같은 모습인지를 물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도 당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초기, 54)

두 분의 영광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라.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칭찬을 받고,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자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날에 구속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가운데서 빛날 것이다.” (9증언, 285)

두 분의 고난

“그 질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어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었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질은 어두움으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다.” (소망, 753-754)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신 것이었다(성경의 메아리 1894. 8. 6).” (화잇주석, 마 27:45,46)

두 분의 구원하심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왔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계 7:10).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쟁투, 665)

“구속받은 자들은 사탄의 세력과 악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어떤 능력도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쟁투, 665)

두 분 만이 영혼의 값을 아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만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렀는지 아신다.” (ST, January 13, 1909 par. 8)

두 분과 융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무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자와의 관계를 바로 잡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부리심을 받는 천사들과 사귀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융화되어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두신 방법을 잘 이용하자.” (정로, 22)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취급하시며, 각자에게 제 할 일을 주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영혼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살아 있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진정한 체험이다.” (목사, 488)

“사탄은 품성을 변화시키기에 있어서 은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세상에 증언하는 이런 증거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이런 빛이 발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결합시키고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까지 도달하려는 황금고리를 끊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실행하려 할 것이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73)

두 분이 정당하심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부조, 68)

두 분 사이의 교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구유로부터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의 고통으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구름 속에서 빛이 투사되어 그리스도를 둘러는데 마치 무한한 능력의 팔이 불꽃의 장벽처럼 그분의 주위를 두른 듯이 보였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모든 사람은 눈길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서 있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증언하실 때 구름은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흩어졌다. 당분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가시적인 교제**는 끝났다.” (소망, 625)

두 분이 시내산 위에 나타나심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마 16:27)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 때에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

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다.”(부조, 339)

두 분의 사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모든 이기심과 죄를 버려야만 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서 심령은 어떤 의무라도 행하기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TDG 315.4)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기는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선민을 위한 그분들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가 되셨다.” (실물, 216)

“우리의 영혼은 인간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주제에 의해 생기를 얻고, 고양되며, 때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일에 모든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동참하기 위한 준비로써 그 신비한 사랑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명상하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2증언, 215)

“그대를 위하여 치러진 값을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대를 위하여 속죄 문서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용서하시는 사랑을 그대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광대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거저 주시지 않았기 때문만도 아니다. 만일 그대가 잃어버려진다면 그것은 그대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오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원고, 32. 1894년).” (높은 부르심, 38)

“오! 축복을 받은 자들의 그 분향! 나는 가히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구원의 경륜에 관한 새로운 깊이를 더욱 이해하기 위하여 계속 연구할 것이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할 것이며 불멸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371)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성에 참여한 자라는

증거를 보이게 된다.” (6증언, 455)

두 분의 관계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히 1:1-5).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에게는 뛰어난 지위가 제공되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그분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요 5:17-20)신다.

여기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을 보여주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을 알려준다. 이 연합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 속에 다시 나타난다.” (8증언, 268-269)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계 5:11)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圖謀)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부조, 36)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셨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소망, 664)

두 분께 영광을

“우리는 율법에 대해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영예를 돌린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아들은** 그것을 크게 하고 영예롭게 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1설교, 20-21) (6BC 1073.4)

“**하나님과 그분께서** 세상과 교통하시는 **그분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자.” (8증언, 238) (화잇주석, 신 1:6-10)

두 분 사이, 두 분간의 교통

“인류의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 막았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간의 **교통**이 차단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는 하늘궁정에 있는 사물들의 상태가 그 원인이었다. 천연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두움을 둘러싸고 **그리스도를** 숨기시,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편지 139, 1898).” (화잇주석, 마 27:45)

두 분의 분위기

“아무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 어떤 오묘한 무엇이라든가 또는 정의내릴 수 없는 무엇으로 바라보지 말 것이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 회개하라는 초청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을 거절한다면 … 그대는 대배교자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대는 하늘 아버지나 독생자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선택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리뷰, 1897.6.29)

아버지께서 아들을 안으시고

“공훈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시 85 : 10)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히 1 : 6)라고 말씀하신다.” (소망, 834)

두 분만을 높일 것

“아버지와 아들께서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 (아들과 딸, 58)

온갖 찬미(찬양)와 찬송의 주제 - 두 분

“온갖 찬미와 찬송의 주제는 “오직 구원하심이 …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계 7:10)라는 것이다.” (살아 422)

“하늘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거문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소망, 834)

“여러분의 손에는 금 하프가 놓여질 것이며, 그 현을 타면서, 구속 받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찬양하는 노래로 온 하늘을 가득하게 하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설교, 339)

“주님의 일꾼의 군대가 이곳 지상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찬양대는 감사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God and to His Son)**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과 연합한다.” (7증언, 17)

두 분에 대한 지식으로 교육

“모든 교육에 있어서 첫째가는 큰 공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애 가운데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의 해석만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된 교육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늘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육상 혼란이 초래되었다.” (자녀, 293)

“고아원에 대한 계획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을 교육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남녀들은 갈바리 십자가 앞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련되고 자아 희생적인 남녀들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업과 인류의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6증언, 287)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더 높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순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며, 그것은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식**이 모든 학문의 결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의 탁월함 말고는 모든 것이 손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지식이 생애와 연합되면 그것은 우리를 하늘에 적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높고 광범위할지라도 이것에 맡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합니다.” (1설교, 334)

“책임 있는 그대들의 자리가 일반 교역자의 자리보다 더욱 무겁기 때문에 그대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열성을 가져야 한다.” (7 증언, 188-189)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은 흑암의 권세를 궁지에다 몰아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적 지식**을 얻는 데에 참으로 귀중한 기회와 특권들을 내던져 버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열렬한 관심을 보게 될 것이다(원고 29, 1900).” (화잇 주석, 히 1:14-2:)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영적 지각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던 인간들이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지식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비난을 일삼는 비평가들로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들과 딸, 26)

두 분께서 기뻐하심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신성을 닮은 영혼들을 인하여 몹시 기뻐하시게 된다.” (실물, 102)

“인성이 신성을 나누어 받게 된다. 그리스도는 품성의 완전으로 인하여 영예를 받으신다. 이러한 변화가 완성될 때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거룩한 본을 따라 꼴 지어진 영

혼에 대하여 기뻐하신다.” (3기별, 239-240)

두 분께서 만족히 여기심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구주께서 암흑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불된 대가를 만족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쟁투, 652)

“무한하신 사랑을 소유하신 그분께 어떤 사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멸망하여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1기별, 91)

두 분의 품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할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빛을 비추는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가되는 빛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올바르게 나타내야 한다.” (리뷰, 1889. 3. 5)

두 분 앞에서

“날마다 그대는 천사들과 그룹과 스랍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날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전 4:9).” (그분을 알기 위하여, 231)

신성의 두 분께서 봉사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낮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하늘 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실물, 372-373)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은** 사탄의 맹렬한 진노를 저지시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지 않게 하고자 열렬한 활동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통치하신다. 그분은 우주의 사업을 지도하고 계신다. 그분의 군사들은 승리를 위하여 전진해야 한다. 그들의 대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 한다. 개선문에 이르기까지 그들로 싸우게 하라. 주께서는 강한 정복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7증언, 13-14)

두 분과 교통(교제)하며 사랑함

에녹 -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 가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RH, 1891. 4. 28).” (화잇주석, 고후 3:18)

요한 - “에게해(海)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밧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행적, 570-571)

사울(바울) -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와 아들**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행적, 119)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고상하게 되고 향상하게 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4증언, 357)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되돌리신다. 그 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며 하늘의 호의를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3기별, 191)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정로, 21)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그 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쟁투, 676)

두 분과 안식일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소망, 769)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사 66 : 23)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소망, 770)

“매 안식일과 월삭에 높은 음조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연합하고자 그들은 성소에 모일 것이다.” (6증언, 368)

두 분에 대한 계시 증가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쟁투, 678)

두 분이 연합하여 선언하실 것

“구원 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율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두 찬양과 감사로 옷 입게 될 것이며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부르짖는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연합하여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으리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선지, 732)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쁨의 합성을 발할 것이다.” (8증언, 42)

두 분의 보호와 유지 사업

“광대한 우주의 모든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보호와 유지 사업의

덕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보호하는 사업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증보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질서도 그의 증보 사업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상의 모든 주제들은 과연 우리의 흥미를 끌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히 위대하고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청년, 254)

“**아버지와 아들은**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말씀하신다.” (부조, 114)

신성의 두 분과 협력

“우리도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된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말 3:17)라고 말씀하신다.” (실물, 283)

신성의 두 분과 연결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대표자의 입장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될** 때에 사탄과의 투쟁 속에서도 모든 거룩한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것은 죄였으며 이러한 분리된 상태를 계속시키는 것 역시 죄이다.” (1기별, 253-254)

“유리한 입장에 놓인 인간—첫 아담에게 연결된 인간은 그에게서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시험을 견디시면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 오사 그곳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오므로써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 된다**(Thus he becomes connected with God and Christ).”(Letter 68, 1899) (화잇주석, 롬 5:12-19)

신성의 두 분과 연합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과 거룩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겸비와 굴욕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나그네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깨닫지 못한다.” (1증언, 286-287)

“완전한 연합, 곧 **하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했던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노력에 성공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냄, 200)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주셨으며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의 천사들과 연합**하였으므로 모든 참된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 (1기별, 376)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만약 사람이 타락한 자들과 연합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하신다.(RH, 1900. 1. 2).” (화잇주석, 고후 6:17,18)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더러운 것과 연합한다면 그는 더러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만일 우

리가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운명을 나누게 될 것이다.”(2설교, 2)

현대 강신술은 두 분을 부인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딤후 4:1)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탄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살후 2:9)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에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벘후 2:1, 2)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요일 2:22, 23)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부조, 686)

3.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신성의 아버지를 대표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홀로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삼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소망, 664)

“그리스도만이 홀로 아버지를 인간에게 대표하실 수가 있으시다. (원고 41, 1897).” (화이트주석, 요 14:8-10)

“그리스도만이 홀로 신성을 대표할 수 있었다.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만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다 계시하실 수가 없었다. 순결한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고 복종하는 생활과, 가장 높은 스랍 천사라 할지라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욕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여야 하였다.” (RH, 1895. 6. 25)

“그리스도께서만이 홀로 신성을 대표할 수 있으셨다. 태초로부터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 있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난 형상이셨던 주님께서만이 이 사업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셨다.” (1기별, 264)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담의 범죄로 크게 방해를 받았다. 사탄은 아담을 범죄 하도록 인도했고, 주께서는 아담이 범죄 한 후에는 죄 없던 당시의 아담에게서처럼 교통하시고자 하지 않으셨다. 범죄 후에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교사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류를 당장의 죽음에서 구하셨다. 그는 중보의 직분을 맡으셨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고 이 계획에는 그들의 후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서신 91, 1900)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구원이 인류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셨다. 그 율법을 범하였기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무서운 분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범죄하기 전의 아담은 창조주와 직접, 자유스럽고 행복스러운 교제가 허락되었으나 범죄 후에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서 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문시조, 1879. 1. 30)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통하실 것이다.” (RH, February 24, 1874 par. 30)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늘 기별자들은 인간에게 봉사한다.” (RH, August 18, 1874 par. 14)

“거룩한 불로 소금쳐지고 양념하지 아니한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께 가납될 수 없을 것인데 그 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교통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열려 있음을 의미하였다.” (RH, March 25, 1875 par. 1)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 (쟁투, 494)

“루시퍼는 그리스도를 시기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가지셨던 지휘권을 서서히 찬탈하였다.” (살아, 13)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늘 무리들을 모으셨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 주위에 웅위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과 동등하도록 규정하셨으므로 아들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아버지께서 계신 것과 같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이 기꺼이 따라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높임, 18)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 제물이셨다.” (높임, 24)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높임, 324)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락이 개통되었다. 천사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전할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며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다.” (1기별, 280)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요 15:5)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이 인간의 성품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며 그의 체험들을 새롭게 해주고 그의 애정이 하늘로 향하여 흐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신성이 인성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지식을 밝혀 주실 수 있었으며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특성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 (1기별, 340-1)

“율법은 타락하고 죄지은 인간에게 당신의 의를 나누어주시며 당신의 의로운 품성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1기별, 341)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을 높일 것이다.” (YI 7. 7. 1898)

4.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30)

어떻게 하나 되시는가?

두 분이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 되심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쌍방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개체(person)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치료, 422)

“그들은 목적에 있어서, 정신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다. 그러나 개체(person)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심도 이와 같다.” (8증언, 269)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요 1:1, 2)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부조 34)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도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쟁투, 493)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일치가 있었다. 그들은 두 분이셨고 거의 동일하셨으나 개체에 있어서는 둘이셨고 영과, 마음,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셨다.” (청년 지도자 1897. 12. 16. 문단. 5)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계셨다.” (부조, 38)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소망 19)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화잇주석, 요 1:1-3)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정로, 14)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시지만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화잇 주석 요 1:1-30)

“천사들은 인간 가족들을 아주 가까운 형제의 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됨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처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특권과 기회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RH, 1899. 7. 4).” (화잇주석, 히 1:14)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 가족을 한 형제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셨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과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큰 영광을 부여받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저들의 기회와 특권을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 주어진 하늘의 도움을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영원을 사모하기만 하면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늘, 68)

“매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매일 기쁨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던 것같이 그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나 됨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화잇주석, 벧후 1:4-5-7)

5. 하나의 통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 유일의 길, 유일한 중보자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의 통로, 단 하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의 통로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의 이름, 우리의 대언자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나갈 수 있다. 그분의 영은 우리의 기도에 영감을 불어넣어야만 한다.

어떤 다른 불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던 향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하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그 불붙는 갈망을 불러일으키셔야 한다. 우리 속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중보)하신다.” (RH, 1897. 2. 9.)

“We have only one channel of approach to God. Our prayers can come to him through one name only, - that of the Lord Jesus our advocate. His Spirit must inspire our petitions. No strange fire was to be used in the censers that were waved before God in the sanctuary. So the Lord himself must kindle in our hearts the burning desire, if our prayers are acceptable to him. The Holy Spirit within must make intercessions for us, with groanings that cannot be uttered.” (RH, February 9, 1897 par. 10)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

“이리하여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자-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 (the only medium of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man)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정로, 20)

“그러나 만일 사람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소망과 도움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자를 무시할 것 같으면 인류 진보의 이상(理想)이나 인류의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약 1:17)온다. 그를 떠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셨습니다.”** (정로, 20-21)

유일의 길, 유일한 중보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 있던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쟁투, 430)

“개인적 성격에 속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요일 2:1).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고백**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범해진 죄는 모두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야 한다.” (치료, 228-229)

“요한은 그의 주제(主題)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은 고귀한 진리의 거룩한 광선을 마치 태양이 비취는 빛처럼 빛나게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로 증거하였다.” (1기별, 246)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표:

“그리스도는 세상에 아버지를 대표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하셨다. 그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셨으며, 그들은 그분의 유산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제나 어떤 종교가라도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화잇주석, 딤후전 2:5)

오직 한 분의 대언자, 오직 한 분의 중보자: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대언자가 있을 뿐이요,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있을 뿐이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를 내어주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다. 우리는 단지 갈바리를 가리켜 보일 따름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을 가리켜 보일 뿐이다. 그것은 무한한 희생이다.

(요 17:19-21, 24-26 인용) 여기에서 우리는 크신 중보자께서 그의 아버지께 간구를 올리는 것을 본다.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끼어들지 않았다. 거기에는 죽은 어떤 선지자도 없고 무덤에 있는 어떤 성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모든 관계는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로 행동하셨다. 그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의 삶을 사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 죽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이기심없이 바르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바란 것만큼 그도 열심히 일하였다.” (원고 128, 1897) (화잇주석, 딤전 2:5)

“인간에게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대언자, 한 중보자가 계시다.” (LHU 319.4)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보혜사(위로자)는 인성을 체험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중의 대표자: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시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시다. 그는 사람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

셨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의 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으실 수가 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그가 죄 없는 그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심이다.” (원고 29, 1899).

왜 중보자가 한 분 뿐이신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보증을 서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이다(RH, 1894. 4. 3).” (화잇주석, 답전 2:5)

그리스도께서 두개의 전선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

“한 손으로 지상에 있는 죄인들을 붙잡으시는 한편 다른 손으로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으시므로 우리를 위해 화목을 이루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한 중보자**이시다.” (10 원고 177.1)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한편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하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분께서는 당신보다 낮은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분의 임재**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소망 166)

-이 말씀은 예수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하늘에서는 육체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영을 통해서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요 1:14)과 영(고전 15:45, 고후 3:17)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우리 마

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같은 예수님이시다. 이 성경 말씀들(골 1:27; 3:11; 갈 1:16; 요 6:56; 요 14:17-18, 20, 23; 요 15:4; 요 17:23; 롬 8:10; 히 2:17-18)을 찾아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두 분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오직 한 분이 계신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 다른 길과 방법이 없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한 중보자 예수님의 이중 사역: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6, 27)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재하고 계시는데 영은 태초로부터 흘리신 당신의 피를 바치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을 위하여 탄원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참회를 자아내며 찬송과 감사를 불러일으키신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은 영이 기록하신 기억력으로 영혼의 심금을 울려 마음의 음악을 상기시킨 결과이다.”(1기별, 344)

-어떤 이들은 위의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말씀을 가지고 중보자가 두 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과 화잇 부인은 이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영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바울은 롬 8:34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

하여 간구(중보)하시는 자시니라.

가려뽑은 기별 1권 344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두개의 전선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한편 또한 그분 자신의 영으로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예 영감을 주시며 회개와, 감사, 찬양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우리 속에서 성령(그분의 영)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 되는데 그 한 통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 곧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불붙는 갈망을 일으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예 영감을 주신 후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 우리 기도를 올리신다.

이러므로 로마서 8장 26-27절은 예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예 영감을 넣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언어로 하나님께 올리신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이시다.

6.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숙고하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업 -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 - 을 실행하셨다.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세상은 지극히 아름다웠다. …땅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 **아버지와 아들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 즉 자기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하셨다. 그들은 땅과 땅 위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일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아담이 그의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에 그는 준수한 키와 균형진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두 배 이상이나 컸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용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빛은 희거나 누렇지 않고 **홍안(紅顏)**의 건강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살아, 20-21)

“사탄은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천사였다. 그의 용모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었으며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 그의 모습은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가장 높은 존귀를 갖고자 하였다.” (초기 145)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것이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의 불이며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9, 13)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계 1:13, 15)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두 분의 모습이 매우 흡사하고 사람과 같이 머리털도 있으시고 발도 있으신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6-27)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靈性)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창 1:27)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사람의 모든 재능은 발달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능력과 활력은 끊임없이 증진하게 되어 있었다. 재능의 활용 범위는 광대하였고, 연구를 위해 펼쳐진 분야는 놀라웠다. 눈에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욥 37:16)들은 사람의 연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창조주와 대면하여 마음을 열어 놓고 교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였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변치 아니하였더라면, 그 모든 특권이 영구히 사람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보화를 얻고, 행복의 새 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힘에 대하여 더욱 더 밝은 개념(概念)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창조함을 받은 목적을 보다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창조주의

영광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러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의 체력은 약해지고,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소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예(猶豫)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교육, 15-16)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높은 품위에 합당한 자질을 부여 받았다. 인자하고 균형진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로 가득찬 얼굴빛으로 그들은 외견상 그들의 창조주와 거의 비슷하였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아담과 하와의 육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지성(知性)과 영성(靈性)의 모든 면에서도 창조주의 영광이 반영되고 있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히 2:7) 지음을 받고 높은 지적, 영적 은사를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우주의 경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덕적 책임과 의무도 헤아릴 수 있었다.” (교육, 20)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육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매우 흡사하게 닮게 만드셨음을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육(몸)과 영이 합하여 한 개체를 이룬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 7:1)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 4:16)

사람의 영이 사람에게 속해 있듯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의 속성 중에 영적인 부분은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부분이다.

곧, 영은 사람의

- 1) 생명이며,
- 2) 속사람이고,
- 3) 그 사람의 품성, 즉 생각과 감정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영(His Spirit)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3)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영(Spirit)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4)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의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말씀하기를"과 같은 표현이 있다.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며, 기뻐하는 부분은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신다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사람들의 영은 작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없는 분들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7. 만물의 대 근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6)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하셨다(요 8:28, 6:5, 7, 8).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혜(慈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施與者)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소망, 21)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시 90:2)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천천 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들로서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된다.”(쟁투, 479)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전자(保全者)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부조, 305)

하나님의 독생자(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실 수 있는 유일의 분)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그러므로 온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다.”(쟁투, 493)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理智的)으로 이해하므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를 왜곡시키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 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 났도다”(겔 28:12-15).” (쟁투, 493-494)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요 1:1, 2)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잠 8:22-30)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여전(御前)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

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 1:3)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당신의 성소(聖所)가 있는 곳이며(렘 17:12 참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 니이다”(히 1:8).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시 96:6, 89:14).” (부조, 33-34)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있을 곳이 예비되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인간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시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이신 그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 하셨으며 자신을 낮추사 평범한 일꾼으로 비천한 생애를 사시고 그분의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목공소에서 일하시었다. 그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생애를 친히 사시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행하지 않는 극기와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사탄의 험찬 변론을 제거해 버리셨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363)

8.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정부)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

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쟁투, 593-594)

1) 하나님의 정부- 루시퍼의 반역이 있기 전

루시퍼의 반역이 있기 전의 하나님의 정부(내각):

지위 1 -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대근원)

지위 2 -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본성과 품성과 목적이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지위 3 - 루시퍼 (피조물로서 가장 높은 천사-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다음가는 지위를 가졌던 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게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혜(慈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施與者)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소망, 21)

“루시퍼는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살아 13)

“천사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 루시퍼와 그의 동조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썩히려고 분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고 또 그 아들을 높이시고 그에게 무한한 능력과 통치권을 주신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없었으므로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아들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 충성되고 진실한 천사들은 이 능력 있고 반역적인 천사를 그의 창조주의 뜻에 용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또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지위를 선포하

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루시퍼의 지위는 조금도 격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힘 있는 논증으로 그에게 납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또 그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셨으며 그의 부드러운 사랑의 권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또 하늘 천사들이 즐거이 따를 수 있는 명령 외에는 어떤 명령도 하신 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특별하신 영예는 그때까지 루시퍼가 받아들 권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천사들은 울었다.” (살아, 15)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요 1:1, 2)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잠 8:22-30)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御前)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 1:3)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당신의 성소(聖所)가 있는 곳이며(렘 17:12 참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히 1:8).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시 96:6, 89:14).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루시퍼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

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어”(겔 28:17),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 14).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prince of angels)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大權)을 갈망하였다.” (부조, 33-35)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 시키는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부조, 36)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그러므로 온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다.”(쟁투, 493)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를 왜곡시키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 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겔 28:12-15).” (쟁투, 493-494)

“사탄은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천사였다. 그의 용모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었으며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 그의 모습은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가장 높은 존귀를 갖고자 하였다.” (초기, 145)

“어떤 사람의 기록은 하늘 궁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는 지위가 주어졌던 그 높은 천사의 기록과 비슷하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으로서 영광으로 돌리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능력을 주신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에 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암시함으로써 동료들 중 몇 명의 동정심을 사게 되었다. 이 악의 씨앗은 대단히 매혹적인 방법으로 뿌려졌고, 그것이 싹이 트고 많은 천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후에, 그는 맨 처음 그가 다른 천사들의 마음에 심었던 생각들을 거두어 들

여서, 그것들을 하늘 정부를 대항하는 다른 천사들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천사장 앞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루시퍼는 자신이 고안해 낸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하늘에 반역을 들여왔다.

하나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탄의 일이 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 다음 서열이었던 그 높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였다. 그의 지하공작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어서 그 참 모습 그대로를 천군들 앞에 드러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탄과 하늘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모든 다른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화이트주석, 사 14:12-14)

“대기만자 사탄은 놀라운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 다음가는 고상한 천사였다. 그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 많은 천사들이 그와 함께 타락하게 했다. 그 후에, 그의 재능과 기량은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어, 그가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권위를 멸시하게 만들었다. 사탄의 주권에 마음이 홀린 자들은 이 타락한 장군을 모방하고, 마침내 운명을 그와 함께 하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1증언, 440-441)

2) 하나님의 정부 - 사탄의 반역과 추방 이후

사탄의 반역과 추방 이후의 하나님의 정부(내각):

지위 1 -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대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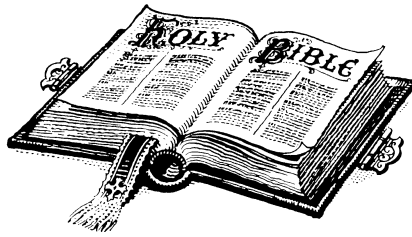
지위 2 -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본성과 품성과 목적이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지위 3 - 가브리엘(피조물로서 가장 높은 천사, 사탄의 반역과 추방 이후에 그리스도 다음가는 지위를 가진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고 한 천사의 말은 그가 하늘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니엘에게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그리스도) 뿐이니라”(단 10:21)고 말하였다. 가브리엘에 대하여 구주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계 1:1)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계 22:9)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다음 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죄된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소망, 98-99)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장래를 공개하도록 보내셨던 천사는 바로 “그 천사”인 가브리엘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언되어 있다(계 1:3).” (소망, 234)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행 3:19-20)

제2부

성령

1. 성령 - 누구이신가?

성령의 약속에 관한 성경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 3:19)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슥 10:1)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겔 36:26-27)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행 2:17-18)

성령의 역사 -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주제를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 생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분의 영의 작용에 대한 예증으로서 식물계의 성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부리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액(樹液)이 가지로 확산되어 성장을 유지시키고 꽃과 열매가 맺힌다. 것처럼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도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의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행적, 284)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의 원인: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행적, 50)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 하라는 권면: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행적, 49-51)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소망, 805)

“The Holy Spirit is the breath of spiritual life in the soul. The impartation of the Spirit is the impartation of the life of Christ. It imbues the receiver with the attributes of Christ. Only those who are thus taught of God, those who possess the inward working of the Spirit, and in whose life the Christ-life is manifested, are to stand as representative men, to minister in behalf of the church.” (DA 805.3)

직역: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시조사 편역: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성령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선물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 그것에 의해 필요 되는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이다. 그리고 만일 성령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찬양과 감사가 일어날 것이며 영생으로 솟아날 것이다. 성령의 회복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거저 준비된 이 값비싼 위대한 선물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믿음이 그 축복을 붙잡을 때, 부유한 영적 유익이 있게 된다. 그러나 너무나도 빈번하게 그 축복은 무시되었다.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확대된 개념이 필요하다.” {ST, August 7, 1901 par. 4}

“In giving the Holy Spirit, it was impossible for God to give more. To this gift nothing could be added. By it all needs are supplied. The Holy Spirit is the *vital presence of God*, and if appreciated will call forth praise and thanksgiving, and will ever be springing up unto everlasting life. The restoration of the Spirit is the covenant of grace. Yet how few appreciate this great gift, so costly, yet so free to all who will accept it? When faith takes hold of the blessing, there comes rich spiritual good. But too often the blessing is not appreciated. We need an enlarged conception in order to comprehend its value.” {ST, August 7, 1901 par. 4}

요한복음 14:17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 적용:

“그 후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리나 이미 죽은 현인들의 어록들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대하였다.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요 14:17)고 한 그분을 제자들은 바라보았다.” (소망, 494.3)

“주께서는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은총의 표현으로 그분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 (9증언, 230.3)

오순절에 부어 주신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눅 24:53)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하늘에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좌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의 보증을 되풀이 하였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 24). 그들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는 힘 있는 논증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행적, 35-36)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 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감화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 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해마지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행적, 37-38)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실제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의 부어주시는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 위에 기름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행적, 38)

교회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이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믿음, 곧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그대의 유일의 소망으로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조력자를 붙드는 믿음이다. 그것은 실망함이 없는, 곧 “답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신성의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다

교회가 연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형편에 놓인 이유는 원수가 두려워 떠는 영혼들에게 낙담케 하는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원수는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보혜사로서, 또한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경고하시며 깨우치시는 분이심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떨고 있는 자들을 강하게 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시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소망을 깨우쳐 줄 수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은 언제나 피차간에 신임이 생기게 해준다.

각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이심을 깨달아야** 하며 그럴 때에 사랑과 열심과 확고부동함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진리를 명쾌하게 알고 또한 확신해도 영원한 생명과 계속적인 접촉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할 것이며 투쟁에서 영혼에게 힘을 주고 튼튼하게 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사탄은 영혼과 구주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키므로** 그의 최대의 성공을 쟁취해 왔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 1:21)고 천사들은 그에 관하여 말하였다. 예수님, 보배로우신 구세주! 그 안에는 확신과 도움과 안전과 평강이 거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의심들을 내쫓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정복할 수 있도록 신성의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사상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충만히 가지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한 땅에서 우리의 모든 노래의 멜로디이며 큰 반석의 그늘이시다. 그는 갈한 심령에게 생수이시다. 그는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는 우리의 의요 성화요 우리의 구속이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범하여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의 중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나 역사는 율법을 개혁하는 것보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들이 영광의 주, 곧 땅을 하늘과, 또한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오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RH, 1890. 8. 26.)

참된 보혜사: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고후 1:3-5)

“그리스도와 같이 다정하고 진실한 보혜사(위로자)는 없다.”(RH, 1897. 10. 26.) “There is no comforter like Christ, so tender and so true.” (RH, October 26, 1897 par. 15)

“구세주는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나는 그분이 그리하심을 증명하였다.” (8원고 49.3)

“밤들은 길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와 소망이시다.” (19원고 No. 1405, 1892.7.23)

“그리스도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다. 그분은 저들의 보혜사(위로자)요, 저들의 피난처요, 저들의 건강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거기에는 결코 빛이 없다.” —서신, 153a, 1897.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안내자가 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보혜사(위로자)가 되신다.” (2기별, 270)

“*Christ is our Guide and Comforter*,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ibulations.”(2SM 270.3)

“그리스도께서 하늘 조정에 있는 당신의 집을 향하여 떠나고자 하셨을 때에 그는 그들과 같이 영원히 거할 **보혜사**를 보내시마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보혜사**의 지도하심에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를 볼 수도 없으며 받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19)고 말씀하셨는바…… 이것이야말로 영생에 관한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보증인가. 비록 그가 떠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관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계와 같게 되었다……. 그리스도처럼 **인자하고 참된 보혜사**는 또 없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의 영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주위 환경이 우리들을 친구들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모른다. 넓고 사나운 바다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몰려올는지 모른다. 비록 그들의 성실한 우정이 존속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만한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참된 우정을 표시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하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 이 영의 내재하심을 아는 이들은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양선, 믿음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165 장)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깨우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이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고, 바라봄으로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품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들의 상황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위해 치러진 속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것을 알고 기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그를 벗어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흠모하게 된다.” (19MR 297.3)

그리스도의 영(보혜사)의 편재성: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며 보혜사는 성령이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14:16, 17). 이것은 보혜사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편재성을 두고 한 말이다.” (원고 14권 179.2)

“Christ tells us that the Holy Spirit is the Comforter, and the Comforter is the Holy Ghost, "the Spirit of truth, which the Father shall send in My name."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sha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 ev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but ye know Him, for He dwelleth with you, and shall be in you" [John 14:16, 17]. This refers to the **omnipresence of the Spirit of Christ, called the Comforter.**” (14MR 179.2)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영으로서 모든 장소에 임재하여 계신다(편재, 무소부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다. “여호와와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시 11:4)으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서 도처에 두루 계신다.” (교육, 132)

“The greatness of God is to us incomprehensible. “The Lord's throne is in heaven” (Psalm 11:4); *yet by His Spirit* He is everywhere present.” (Ed 132.2)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으로서 모든 장소에 임재하여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의 매개와 그분의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치료, 417)

“*By His Spirit* He is everywhere present. Through the agency of His Spirit and His angels He ministers to the children of men.” (MH 417.2)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영으로 모든 곳에 편재하시고 더 이상 인성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렸으며 독립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임으로 영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영으로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소망 669.2)

“The Holy Spirit is Christ's representative, but divested of the personality of humanity, and independent thereof. Cumbered with humanity, Christ could not be in every place personally. Therefore it was for their interest that He should go to the Father, and send the Spirit to be His successor on earth. No one could then have any advantage because of his location or his personal contact with Christ. *By the Spirit* the Saviour would be accessible to all. In this sense He would be nearer to them than if He had not ascended on high.” (DA 669.2)

위 인용구의 본 출처는 아래와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임으로 영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그분 자신이므로 자유롭다.**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서 편재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비록 그대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문구는 화잇 재매가 삽입하였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

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14 원고 23.3)

“Cumbered with humanity, Christ could not be in every place personally; therefore it was altogether for their advantage that He should leave them, go to His father, and send the Holy Spirit to be His successor on earth. *The Holy Spirit is Himself* divested of the personality of humanity and independent thereof. He would represent Himself as present in all places by His Holy Spirit, as the Omnipresent. "But the Comforter, which is the Holy Ghos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shall (although unseen by you), [THIS PHRASE WAS ADDED BY ELLEN WHITE.]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all things to your remembrance, whatsoever I have said unto you" [John 14:26].” (14MR 23.3)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와 지상에서 동시에 봉사하심: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 : 25).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한편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 하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분께서는 당신보다 낮은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분의 임재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소망 166)

참된 만나: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온 참 떡의 한 표상이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영이 참된 만나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 6 : 33)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 어떤 자는 여전히 예수께서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소망, 386)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시다(요일 3:8; 요 1:4, 10:10; 고전 15:45).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 103:3)신다.” (소망, 270)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곧 영생의 시작이다.” (소망 338)

“It is through the Spirit that Christ dwells in us; and the Spirit of God, received into the heart by faith is the beginning of the life eternal.”(DA 338)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 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소망 675)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영을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 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소망 676)

“Abiding in Christ means a constant receiving of *His Spirit*, a life of unreserved surrender to His service.” (DA 676)

파라클레토스(중보자, 위로자, 대언자, 보혜사):

παράκλητος

An intercessor, consoler, advocate, comforter (중보자, 위로자, 대언자, 보혜사)

성경에 5번 언급됨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6)

“보혜사(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 15:26)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 16:7)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 14:16, 26, 15:26, 16:7절은 "보혜사"로, 요한1서 2:1절은 대언자로 번역이 되었다. 요한1서 2:1은 파라클레토스의 정체가 누구임을 보여주는 절이다.

예수 그리스도 =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대언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진리의 성령 = 태초에 수면에 운행한 하나님의 영 = 말씀 = 참 빛 =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 = 그리스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 태초에 수면에 운행한 하나님의 신(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만 과학의 증언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가장 심오한 진리들은 이런 인도를 받음으로써만 깨달을 수 있다.”(교육, 134)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호 6:3)실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말 4:2)을 발하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백합화같이”(호 14:5)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호 14:7)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실물, 66)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한복음 6장 27절)고 명령하신다. 그분께서는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라”(요한복음 6장 51절)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기 위해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께서 **성령(His Spirit)**을 보내 그 말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 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보훈, 112-113)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그들의 감화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이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자이셨으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

다.” (행적, 22-23)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때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사람들의 심령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한하신 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왕과 귀족들은 떨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위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냄, 87)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받는 사람은 아마 의식하지 못할는지도 모르나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는 감명을 받는다.” (마라나타, 70)

“오늘날은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적한 장소에 몰려들지 않는다. 그분의 음성은 변화한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고 외치지 않는다(눅 18:37). 그러나 그 말은 오늘날도 해당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거리를 걸어 다니신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찾아오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치료, 107)

“거룩한 순찰자가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죄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심이라는 수로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사상의 조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 곳에 계신다.” (소망, 650)

“모든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참석하므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활력을 주시마고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의식들에서 이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 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소망, 656)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업 - 진리를 밝히는 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보혜사(=진리의 영=그리스도의 영)로 임하셔서 하시는 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올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요 15:26)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 16:7-8)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3-14)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고귀한 보석들을 주셨으나 인간은 미신과 오류의 쓰레기 가운데 묻어 두었다. 주님께서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묻히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을 예측하셨다. 주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진리를 본래의 위치에 두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었던 진리를

나타내실 수 있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진리를 본래의 체제 속에 넣으실 수 있었으며 진리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 가운데서 진리를 밝히는 일이 주님의 사업이었다.” (1기별, 407)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무수한 형태를 가진 악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바른 노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확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쉽거나 용이한 일은 아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선입관념과 편견, 불완전한 지식과 오판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와 상관된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분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진리를 말할 수 없다.” (보훈, 68)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써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실물, 419-420)

그리스도의 영 (생명과 지적 기능에 포함된 것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눅 23:46)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

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눈을 감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그가 그때 즉시 하늘에 가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하신 말씀이 참말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리스도의 영**은 그의 몸과 함께 잠자고 있었으며 그것이 분리된 존재로 머물기 위하여 하늘로 날아가서 시신을 처리하며 애통하는 제자들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예수의 생명과 지적 기능에 포함된 것들은 모두 다 그의 몸과 함께 무덤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나오실 때는 완전한 존재로서 나오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 그는 하늘로부터 **그의 영(His spirit)**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었다.” (Spirit of Prophecy Vol III, 203-204)

인간의 영(품성)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행 7:59)

“비록 부활한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와 꼭 같은 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개성과 동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불가사의한 일들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신비이다. **인간의 품성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대로 보존된다. 부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원고 76, 1900)

누구의 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행 4:32)였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의 모든 회중에 생기가 있게 하였다.” (8증언 20)

“The *Spirit of Him who died* that sinners might live animated the entire congregation of believers.” (8T 20.4)

“그들은 한 하나님과 한 구주와 한 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의 대열에 연합을 가져다 줄 것이다.” (9증언, 189)

“They have *one God and one Saviour; and one Spirit--the Spirit of Christ--*is to bring unity into their ranks.” (9T 189.3)

2. 성령이 개체가 아님을 나타내는 말씀들

1) 성령 - 분량으로 표현된 성경말씀

한량 없이(not by measure)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 3:34)

받으라(receive)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마시게(drink)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3)

부어 주며(pour)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3)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부으)리니” (사 44:3)

“그 후에 내가 내 신(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욘 2:28-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행 2:17-18)

충만히 채움을 받고(filled with)

“하나님의 신(영)을 그에게 충만히 채워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출 31:3, 35:31)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움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채움을 받으라” (엡 5:18)

“And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Eph 5:18)

2) 성령 - 분량으로 표현된 예언의 신

받게 될 성령의 분량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The Faith I Live By 53.4)

“The *measure of the Holy Spirit* we receive will be proportioned to the measure of our desire and the faith exercised for *it*, and the use we shall make of the light and knowledge that shall be given to us.” (The Faith I Live By 53.4)

“예수께서는 극심한 응급 상황에서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하여, 강한 위로를 주기 위하여 **많은 양으로 성령을 주신다.**” (ML48.2)

“Jesus gives the *Holy Spirit in large measure* for great emergencies, to help our infirmities, to give us strong consolation.” (ML 48.2)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얼마나 적게 이 약속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의 능력은 교회에서 얼마나 적게 느껴지고 있는가. 얼마나 적게 그것의 능력에 대하여 백성들 앞에 말해지고 있는가. 구주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이 선물을 받으므로 다른 모든 선물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의 풍성함에 따라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은 **받을 역량(capacity)**에 따라 모든 영혼들에게 공급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잠에서 우리를 지켜 줄 정도의 적은 양만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부지런히 구하도록 하자.” (RH, 1892. 3. 29, par. 3)

“Christ has promise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o his church, but how little is this promise appreciated. How seldom is *its* power felt in the church; how little is *its* power spoken of before the people. The Saviour has said: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With the reception of this gift, all other gifts would be ours; for we are to have this gift according to the plentitude of the riches of the grace of Christ, and he is ready to supply every soul according to the *capacity to receive*. Then let us not be satisfied with only a little of this blessing, only that amount which will keep us from the slumber of death, but let us diligently seek for the abundance of the grace of God.” (RH, March 29, 1892 par. 3)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

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양으로 **그분의 영(His Spirit)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행적, 50-51)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동참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요 5:30)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요한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아를 즐겨 비우고자 할 때만이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자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골 2:9, 10)진다.” (8증언, 334)

성령을 받는 조건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이 굴복 되었을 때는(when the whole heart is surrendered) 누구나 **그것(it)을 받을** 것이다.” (보훈, 21)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골 2:9, 10)다.” (소망, 180)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명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풍성한 양(His Holy Spirit in rich measure)**으로 부여주시기를 갈망하시며, 자아를 버림으로 길을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마라나타, 114)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빌 2:13)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그것(It)**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소망, 672.)

예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께서 마음속에 거하셔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계

심을 보여 지게 하라. 날마다 그분의 **성령을 한량없이**(rich measure of His Holy Spirit) 받으며,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기별의 중요성과 범위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그대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신의 목적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영혼 구원에 있어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라.” (목사, 513)

“제자들은 성령의 기이한 하강(下降)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구주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한 분량으로 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혀져 저희 앞에 있는 일을 충분히 깨닫고 그분이 맡겨 주신 일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살아, 241)

“엘리사는 세속적 명예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승천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엘리야에게 매우 너그럽게 내려 주셨던 **성령을 풍성한 양**(a large measure of the Spirit)으로 내려 주시는 것이었다. 그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당신의 영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고 요구하였다.” (선지, 226-227)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의 많은 양**(a large measure of the spirit of Christ)을 간직하려면 더 큰 열망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 교회의 힘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떼어 놓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다. 아, 우리는 얼마나 적은 사랑,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피차에 얼마나 적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진리의 말씀과 영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킬 것이다. 진리와 사랑의 불변의 원칙들은 마음과 마음을 연합시킬 것이다. 그리고 연합의 힘은 누리는 바 은혜와 진리의 양에 비례 될 것이다. 거울 즉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품성을 반사해 보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위험 신호와 경고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않고 품성의 결함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함들이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을 정복할 것이며, 그들은 오류와 반역과 공공연한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최고의 표준까지 향상하지 않는 마음은 한때 얻었던 그 힘을 간직하는 능력을 언젠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군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벧후 3:17, 18).” (5증언, 537)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양으로 그분의 영의 부여** 중심이 수반될 것이다.” (목사, 91)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a large measure - 큰 양으로)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속하시는 사랑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냈다.” (행적, 49)

종말의 때에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 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

들은 **현저한 분량으로**(extraordinary measure)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The outpouring of the Spirit)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행적, 54)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숙한 기별을 의기양양한 마음 없이 전하기 위하여 **더 큰 분량의 성령**(a larger measure of the Holy Spirit)이 필요하다.” (9증언, 275)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나님의 영의 크나큰 부어주심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달아 알고 비춤을 받은 백성이 생기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없을 것이다.” (리뷰, 1896. 7. 21, par. 2)

3. 그것으로 표현된 성령 (삼위일체가 아님)

성령(the Holy Spirit) - 그것(it)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 12:7)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영 그것이** 이것들을 모았음이라” (사 34:16)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 the flesh profiteth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John 6:63)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행적, 50)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과 협력할 때 그분의 시험해보고 선택된 사람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왔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 그것은 제한 없이 주어졌다. 그것은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충만하였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받고자 준비될 때 것처럼 주어질 것이다.” (하늘, 38)

“The Lord will greatly bless His tried and chosen ones if they will cooperate with Him.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the day of Pentecost, *it* was like a rushing, mighty wind. *It* was given in no stinted measure, for *it* filled all the place where the disciples were sitting. So will *it* be given to us when our hearts are prepared to receive *it*.” (UL 38.6) (IMR 175.4)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리뷰, 1896. 5. 5. par. 1)

“The measure of the Holy Spirit we receive will be proportioned to the measure of our desire and the faith exercised for *it*, and the use we shall make of the light and knowledge that shall be given to us.” (RH, May 5, 1896 par. 1)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얼마나 적게 이 약속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의 능력은 교회에서 얼마나 적게 느껴지고 있는가. 얼마나 적게 그것의 능력에 대하여 백성들 앞에 말해지고 있는가.” (리뷰, 1892 3. 29. par. 3)

“Christ has promise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o his church, but how

little is this promise appreciated. How seldom is *its* power felt in the church; how little is *its* power spoken of before the people.” (RH, March 29, 1892 par. 3)

“주님께서는 지상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열렬하게 그것을 소원하는 자들에게 더 기꺼이 그분의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위에 서서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한 정되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서약을 간청하면서 “당신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 (영문시조, 1908. 7. 15 par. 8)

“The Lord is more willing to give His Holy Spirit to those who earnestly desire *it* than earthly parents are to give good gifts to their children. Christ has promised the Holy Spirit to guide us into all truth and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 Spirit of God is not given by measure* to those who earnestly seek for *it*, who by faith stand upon the promises of God. They plead the pledged word of God, saying, "Thou hast said it. I will take Thee at Thy word.” (ST, July 15, 1908 par. 8)

“나는 모든 교회 신자들이 지금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곧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만일 믿음으로 더 많은 양의 하나님의 영(a greater measure of God's Spirit)을 구하면 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호흡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매일 신선한 공급을 받을 것이다. 매일의 경험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더욱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대 앞에는 진리의 광활한 터, 곧 권능의 위대하고 광대한 근원이 놓여 있다. “당신께서 택하신 모든 것을 취해 가지되 성령만은 남겨 두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원고 56, 1902년 5월 9일).

“I beseech the members of every church to seek now for the greatest

blessing Heaven can bestow--the Holy Spirit. If in faith you seek for a greater measure of God's Spirit, you will be constantly taking *it* in and breathing *it* out. Daily you will receive a fresh supply. Your everyday experience will be enriched by the rich current of God's love. Before you lie vast fields of truth, vast sources of power. Let the daily prayer be, "Take from us what Thou dost choose to take, but withhold not Thy Holy Spirit from us." We must ha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UL 143.5)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1-5).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교회 녹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이들이 진심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교인들은 성령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는지 체험을 통해 알 필요가 있다. **그것(It)**은 받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 것이요, 그를 축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영혼이 성령의 활력 있는 호흡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It)**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 63-64)

“우리는 죄로 병든 영혼의 치료제로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회심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부복하여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열렬하게 간구하지 않는가? 은총을 베푸사 **그것(It)**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소생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어떤 이들은 성령을 달갑지 않은 손님으로 대접하고 풍부한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시인하기를 거절하고, **그것으**

로부터 돌아서며, 그것을 광신주의로 정죄하고 있다.” (목사, 64)

“성령이 인간 대리자에게 역사할 때, 그것(it)은 어떤 식으로 작용해야 할지에 관해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 때때로 그것(it)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활동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다. 그분의 선구자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기별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연로하여 백발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한한 인간의 사상들이 오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목사, 64)

“현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즉, 유한한 인간의 고안으로 성령이 임하는 길을 상세하게 정해 놓으려고 한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런데 성령은 인간을 칭송하거나 그들의 그릇된 이론들을 세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려고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it)으로부터 돌아선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벗어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의한 그 자신의 의를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와 교환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령은 아무도 아첨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인간의 피대로 역사하지도 않는다. 유한하고 죄된 인간은 성령을 부릴 수 없다. 그것(it)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어떤 인간 대리인을 통해 책망자로서 임할 때, 그것(it)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목사, 64-65)

“나는 주 예수께서 반복하여 성령을 풍성한 양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음을 안다, 그러나 그것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 그것을 알아보거나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하였다. 마음의 눈먼 상태와 마음의 강박함이 그것을 두려워할 것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

자신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1888, 752.3)

“I know time and again the Lord Jesus has longed to communicate the *Holy Spirit in rich measure*, but there was no place for it to rest. *It* would not be recognized or valued. The blindness of mind, the hardness of heart, would interpret *it* as something of which they should be afraid, or [they would] use *it* to exalt themselves.” (1888, 752.3)

4. 종말의 때에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 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여될 영적인 은혜를 예언 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 주심이 약속 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 주심은 늦은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 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 비를 내리시되 …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슥 10:1; 욥 2:3).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 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은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요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행적, 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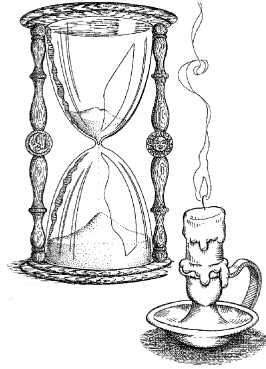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실물, 41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5증언, 82)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 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the unction of His Spirit)을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왕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쟁투, 606)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 46:9)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서, 196)

제3부

제칠일 재림교회 역사

1. 영원한 기초

옛적 길 곧 선한 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렘 6:16)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착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렘 31:21)

튼튼한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졌음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나의 남편, 조셉 베이츠 목사, 피얼스 아버지, 하이럼 에드슨 목사 및 그 외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민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은 1844년의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 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였다. 저들이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며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연구하여 오던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할 방법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이처럼 빛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과 제사 직분에 관한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 때로부터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르는 일련의 진리를 나에게 밝혀 주셨으며 또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전해 주었다.” (1기별, 206~207-1904년)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서, 196)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이유

“진리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물에 있어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큰 기둥들과 우리가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이유, 곧 옛날의 이스라엘 자녀들과 같이 특별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지구상의 모든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이유에 대하여 정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한 말로 알아듣기 쉽게 어린이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들의 증대되는 능력에 부합되는 교훈을 나누어 주어 진리의 기초가 넓고 깊게 놓여지도록 해야 한다.” (5증언, 330)

종교계로부터 매우 심한 반대를 받아 온 진리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사업을 표상한다. 이것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영속적이고 언제나 살아 있는 이 위대한 기별의 진리, 곧 교회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기별이므로 **종교계로부터 매우 심한 반대를 받아 온 진리의 증거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6증언, 17)

영혼들의 운명이 달린 기별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르었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보는 것을 보았다.” (초기, 258)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둥(교리)들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둥(교리)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진리의 원칙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세월이 경과했다고 해서 원칙들의 가치가 경감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 그

자리에 그럴듯한 오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점이다. 원수는 자기의 기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1기별, 201)

교리들을 포기하는(다른 터를 쌓는) 것에 대해 경고

“영혼들의 원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큰 개혁 사업이 일어나야 하며 이 개혁 사업에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바탕으로 되어 있는 교리들을 포기하는 것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적인 이론을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여왔다. 만일 이러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써 남은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원칙들은 버림받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변화되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에 이 사업을 버티어 온 근본적인 원칙들은 마치 오류처럼 인정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었을 것이며 새로운 제도에 관한 책들이 저술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적 철학의 이론이 소개되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창설자들은 각 도시로 침투해 들어가서 놀라운 사업을 행하였을 것이다.” (1기별 204)

“나는 한 가지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였다. 그 천사들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이들은 온 우주와 조화되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남녀들이 세 기별을 차례대로 선포하고 있다……. 이 기별 전파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방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마지막 위기의 때에, 세상의

특별한 백성으로 서도록 우리를 교회와 세상에서 이끌어 낸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많은 사람들이 뒤흔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요한과 같이 이렇게 증언할 것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있게 하려 함이니.’ 나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나는 이 증언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진리를 제시할 때 함께 하여 붓과 음성으로 경고하며 정하신 순서대로 그 기별들을 주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증거하는 바이다. 이 사업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며,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의 가르침을 좇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원수는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높은 단 위에 올려놓고, 사업을 확립시키고 그 사업을 독특하게 만든 과거의 기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기동들에 대한 신자들의 확신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 하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진리를 펼쳐 보이셨다.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힘차게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지금도 여전히 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므로 그 사업은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다.

진리를 이론적으로 정통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그 원칙들을 영혼의 성소 안에 들이지 않고 생명의 진리를 바깥뜰에 두는 사람들은 이 백성의 역사 속에서 신령한 것을 조금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진리가 그들을 오늘의 그들로 만들었고, 그들을 열렬하고 단호한 선교사로 세상에 세웠던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이 닦아 둔 것 외에 다른 터를 쌓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믿음의 기동을 없애고

대신 자신이 **고안한 기둥으로** 대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허영과 존경으로 우쭐해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시간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성경을 면밀히 연구해온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엄숙한 입장을 보고 이해할 것이다. 자신의 무력과 허약함을 느끼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기 넘치는 관계를 갖는 것을 그들의 첫 번째 임무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형성되기까지** 감히 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죽고 자만심이 그들의 영혼에서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온순함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자서, 430-431)

과거에 놓인 기초 이외에 다른 기초를 만들기 시작할 것

“원수 마귀는 **과거의 기별들에 대한 우리 신앙의 초석들을** 믿는 신자들의 신뢰심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하여 온갖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신앙의 초석들은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토대** 위에 올려놓았고 사업을 이룩하였으며 그 사업의 특징을 살려놓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으며 **하늘에 그 근거를 둔 진리를** 저들에게 펼쳐 보이셨다. 주님의 음성은 과거로부터 계속하여 들려왔으며 “**힘에서 힘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라**”는 음성이 아직도 들려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방어하시므로 사업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확장되고 있다.

마치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만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원칙을 영혼의 성전 내부로 이끌어 들이지 않고 진리를 바깥뜰에만 놓아두는 자들은 저들로 재림 신자들이 되게 하여 열렬하고 단호한 선교적인 일꾼들로 만든 **이 백성들의 과거 역사에서 아무런 신성한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를 위한 진리는 매우 보배로운 것이며 그 심령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부서지지 않은 자들은 **진리가 무엇임을** 보지 못

할 것이며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을 받아들일 것이며 과거에 놓여진 기초 이외에 다른 기초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저들은 자신의 허영심과 자존심을 의기양양하게 나타내며 능히 우리 신앙의 초석들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자신이 구상해 낸 다른 초석들과 바꾸어 놓으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는 자들의 엄숙한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며 경건의 외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산 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인 의무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저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까지 감히 안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죽게 되고 교만은 영혼으로부터 쫓겨나며 저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친절하심을 본받게 될 것이다.” (원고 28, 1890) (2기별, 388-389)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1844년 대 실망 이후에 그분의 남은 백성을 중세기 암흑시대의 오류(비 성서적 가르침)에서 불러내시어 하늘에 그 근거를 둔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토대 위에 올려놓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특히 엘렌 화잇이 잠드신 이후에 고대 이스라엘처럼 현대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독특하고 고상한 사업과 부르심을 망각한 채 일반 개신교와는 확연히 다른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들과 같아지고자 서서히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1931년 이후로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삼위일체신을 경배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고 세 천사 기별에서 빛나게 되었다. 세 천사 기별을 요약하면 창조주(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경배와 바벨론의 교리가 무너진 것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것이다.

제칠일 재림교회는 그전에 반대하였던 삼위일체 교리를 1931년부

터 적극적으로 가르치며 삼위 하나님 경배를 권장하였으므로 하늘에 그 근거를 둔 영원한 진리의 토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확실한 기둥(교리)들을 포기하고 다른 터를 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렘 6:16)

2. 진리는 변하지 않음

옛 지계표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의 지계표를 옮기고자 결코, 결코 시도하지 말라. 진리는 영원한 반석, 곧 폭풍과 강풍이 결코 옮길 수 없는 기초 위에 세워져 튼튼하게 서 있다.” (8증언, 162)

“현재의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들을 형성시켜 놓은 진리의 어떤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경험과 의무의 옛 지계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원칙들을 옹호하는 일에 확고하게 서야 한다.” (6증언, 17)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사업을 표상한다. 이것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영속적이고 언제나 살아 있는 이 위대한 기별의 진리, 곧 교회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기별이므로 종교계로부터 매우 심한 반대를 받아 온 진리의 증거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사탄은 이 기별들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별들은 시간이 존속하는 한 살아 있어 우리의 신앙적 경험에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6증언, 17)

신앙의 이유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깨달아야 함:

“우리 백성들은 우리 신앙의 이유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들의 과거의 체험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하고 옛날의 이정표들을 옮겨버릴 경향이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인간에게 과도한 신뢰심을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2기별, 25-1904 년)

영원토록 진리로 입증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확실한 진리임을 증거하면 그 진리는 영원토록 진리로 입증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반대되는 가설(假說)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성서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친히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임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주신 빛에 반대되는 새로운 빛들이 계속 잇달아서 일어날 것이다. 아직도 이 진리를 증거할 때에 일은 체험을 거쳐서 생존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명을 당신의 자비로 보존하셔서 마치 사도 요한이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한 것처럼 저들도 자신이 체험한 것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진리의 기수(旗手)들은 저희가 쓴 글의 재판(再版)을 통해서 증언할 것이다. 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들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저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임을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 (1기별, 161)

하나님께서 지탱해 오신 기초

“우리들은 신앙의 특수한 요점에 반대되는 기별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들은 많은 성경절들을 모아서 저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증거하는 재료로 쌓아 올린다. 지

난 50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일어났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성경 말씀의 적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지탱해 오신 기초에서 기둥을 옮기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실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과거의 기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입히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1기별, 161) 1905년

초기 경험에 주어진 근거

“우리의 초기 경험에 주어진 증거는 그 때 있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리는 그러했던 것과 같이 지금까지 동일하며 진리의 구조물에서 하나의 핀이나 기둥을 옮길 수 없다. 1844, 1845, 1846년에 말씀에서 찾아낸 진리는 모든 상세한 부분까지라도 진리로 남아있다.” (E. G. White, 원고1권, p. 52) 1906년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정표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압력을 가하여 왔다. 특히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한 문제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이 전해 준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천국의 기별에 대하여는 더욱 공격이 치열하였다. 모든 문제마다 일일이 신중한 연구에 의해서 규명되고 주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증거된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온갖 의식과 방법에 대한 기별이 촉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정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정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한 권위에 기초를 둔 근본적인 원칙들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1기별, 208) 1904년

초기 경험에서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확립

“원근(遠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경고의 책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기별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되게 한 믿음의 기초를 약화시키거나 믿음의 초석들을 옮길 말씀의 응용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을 따라 우리들이 발전하여 온 것처럼 순서적으로 밝혀진 진리들은 오늘날에도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 경험의 과거 역사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터를 닦아나가며 예언 가운데 나타난 일련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빛의 모든 광선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연구하고 마치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였으며 성령이 우리들을 가르쳤고 지도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론들이 발전하였으나 진리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릇 해석되고 잘못 적용된 성경 말씀과 진리와 유사한 이론들이 혼합되어 위험한 오류로 인도하여 왔다. **우리들은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어떻게 확립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진리에 인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내가 진리를 가졌으니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항상 들려왔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렘 23:21)였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뚜렷하였으며 진리인 당신의 계시들은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차례로 확립되었다. 그 때에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이다.**”(2기별, 103-104)

“우리의 초기 경험에서 주어진 진리에 비추어, 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오류들이 우리를 압박했고, 목사와 의사들은 새 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많은 기도로 성경을 연구하곤 했으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리

를 제시하곤 하셨다. 때로는 성경 연구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온 밤이 바쳐졌다. 열심 있는, 헌신한 남녀들이 이 목적을 위해 모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고 나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었다.” (원고 720, 22-23)

“미구에 온갖 기만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발이 확고한 곳에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건물을 위해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께서 세운 것에서 단 한 치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대적은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이론들을 들여올 것이다.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지점 중의 하나이다. 그것이 주께서 지난 오십 년 동안 주신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 안전을 찾을 것인가?” (RH, 1905. 5. 25.)

“경험이 많은 일꾼들, 곧 무겁게 억누르는 부담을 짊어지도록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던 때에 그것을 짊어지고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신실함을 입증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 현대 진리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백발이 되도록 애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흠을 잡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비난과 그대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그대들을 대적하여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 주지 않으신 한 그대의 위치를 떠나서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을 의지하고 그대에게 맞지도 않는 책임들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3증언, 320-321)

믿음의 초보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

“나는 정기 간행물이나 책으로 출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진리가 기록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반세기 이상이나 당신의 사자들의 오른 팔을 보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 그와 같이 해야 하셨는가? 그것은 만일 진리가 그와 같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선구자들이 죽게 될 때는 때때로 그릇된 감정이나 위험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을 진리의 기별로 받아들이게 될 믿음의 초보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

기 때문이다. 때때로 사람들이 “특별한 빛”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처럼 실제로는 자라나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그럴 듯한 오류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그와 같은 종류의 오류들을 즐겨 받아들일 것이다.

그릇된 이론들을 받아들이며 나의 저작들로부터 진리에 관한 진술들을 모아 그 그릇된 이론들을 정립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연결시키지 않고 따로 떼어 사용하거나 오류와 연결 지음으로 곡해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설의 씨앗들이 움이 트고 신속하게 강한 식물로 자라나서 성장하여 많은 귀중한 진리의 식물들에 의하여 둘러싸이게 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거짓 식물의 진실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한다.” (This Day with God, 126)

현재 제 칠일 재림교회 신학자들의 가르침:

진리는 변할 수 없는데 현재 제 칠일 재림교회의 신학자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리뷰지의 전임 편집장이었던 윌리엄 존슨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재림교 신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대 진리”의 영향 아래 변하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다. 제임스 화잇, J. N. 앤드루즈, 우라이야 스미스, J. H. 왜고너를 포함한 많은 선구자들은 아리안적인 혹은 준 아리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아들이 창조 이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재림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오늘날도 몇 사람들은 그것에(삼위일체 교리) 동의하지 않는다.” (Adventist Review, Jan. 6, 1994 p.10)

예언하심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앞에 이 위험의 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1기별, 197-1904년)

경고의 기별들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교활한 오류들이 널리 퍼지는 것을 관망하면서 침묵을 지켜서 될 것입니까?”(1기별, 195)

“이 역사적 단계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험하고 강한 세력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감화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기초는 우리 사업의 초기에 신중한 말씀의 연구와 계시로 쌓은 것이다. 이 기초 위에 우리들은 지난 50년 동안 모든 것을 건설하여 왔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옮겨 놓으려는 조짐이 보일 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그대들은 이상히 여길 것인가?** 나는 “대처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경고의 기별들을 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나는 그 기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금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권리를 약탈당하지 말아야 한다.”(1기별, 207, 208-1904년)

요점 정리

첫째, 제칠일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와 기초적인 기반들은 많은 성경 연구와 엘렌 화잇 자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으로 세워진 것들이다.

둘째, 이런 핵심 교리들은 1844-1854년을 기점으로 튼튼히 세워졌고 움직이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별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잠 4:18)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돋는 햇별같이 점점 빛나”는

빛은 옛적부터 세워졌던 진리를 어둡게 하거나 가리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이런 진리들에서 벗어나면 배도가 뒤따를 것이다.

오늘날의 재림교회 학자들은 빛이 점진적으로 왔기 때문에 교단이 점차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였다고 변명한다. 그리고 엘렌 화잇이 처음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았으나 후에 생각을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삼위일체 교리와 일요일 신성설을 기본교리로 믿는 감리교회에서 나와서 삼위일체 교리와 일요일 신성설을 한동안 안 믿고 반대하다가 후에 다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는 말인가? 그것은 억지 주장이며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그리고 교회 선구자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안식일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지켰다고 구실을 삼지만 선구자들은 건강에 관한 빛과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관한 빛을 받은 후로는 더 이상 오류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전처럼 뒤로 물러가서 또 다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안식일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지키지 않았다. 삼위일체 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던 사람이 빛을 받아서 돼지고기를 중단하였다가 또 다시 돼지고기를 먹고 일요일을 지키던 자가 빛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켰다가 후에 또 다시 일요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억지 주장인 것이다.

엘렌 화잇의 두 아들들도 끝까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았다. 1930년대쯤 삼위일체에 대한 논란이 교단 내에 있었을 때에 어느 형제가 엘렌 화잇의 아들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하였다. 그 때 엘렌 화잇의 아들 윌리 화잇은 본인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소유한 영으로 믿는다고 대답하였다.¹⁾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탄이 최초로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 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¹⁾ Letter by Willie White, April 30, 1935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리들에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들에 집착한다.”(소망 242)

“사탄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과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실물, 414)

3.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강력한 증거들

1872년 제칠일 재림교회 기본 원칙 선언문

제칠일 재림교인들이 가르치고 실행하는

기본 원칙 선언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제칠일 재림교회 출판협회 배틀크릭,

미시간 1872 년

우리 신앙의 개요를 대중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다른 신앙의 신조들, 신경, 규율 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권위를 보이려고 내어놓는 것이 아니며, 신자들 사이에 신앙 조직의 일치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단지 신자들이 과거와 현재에 만장일치로 가지고 있는 간결한 성명서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의 답을 제출하고, 또한 우리에게 대하여 퍼진 거짓 주장들을 제거하며, 우리 신앙과 의식들에 익숙해질 기회가 없던 자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상들을 바로 잡기 위한 필요를 자주 실감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칠일 재림 교인들로서 우리의 입장이 이해되기를 단순히 바라는 것뿐이며, 이것을 더욱 갈망하는 이유는 재림교인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동정할 수 없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생각에 그 중 어떤 견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원칙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림교인들과 비교하여, 제칠일 재림교인들은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 회개치 않은 악인의 최종적 멸망을 믿는 점에서 한 부류와 다르며, 또 다른 부류의 재림교인들과 다른 점은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중 일곱째 날을 주의 안식일로 성수하는 것과 성경의 예언 적용에 있어서 모든 재림교인들과 다릅니다.

위의 소견들을 참고하면서 독자께서는 다음의 진술한 우리 신앙의 현저한 특징들을 요약한 성명서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구합니다.

1.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개성이 있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그분의 대표 성령을 통하여 편재하신다. 시 139:7

2.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분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아브라함 자손의 본성을 취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의 모본으로 사셨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유일한 증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으며,

하늘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다. 이 속죄는 희생제가 드려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는 레위 제사장 직분의 반차에 따라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다. 레 16 장; 히 8:4-5; 9:6-7 등 참조

3.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는데, 인류를 향한 그분의 뜻의 충만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게 착오 없는 표준이다.

4. 침례는 믿음과 회개 다음에 오는 기독교회의 의식이며,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장사지냄과 부활,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어떠한 다른 양식으로도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 즉,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없다. 롬 6:3-5; 골 2:12

5. 중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해주는 전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인 생애로 이루어진 도덕적인 변화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육체적인 변화인데, 만일 죽었다면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며, 만일 살아있으면 순식간에 홀연히 불멸의 몸으로 변함을 받는 것이다. 요 3:3,5; 눅 20:36

6. 우리는 예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유익하도록 성경에 포함되었으며, 딤후 3:16;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고안되었고, 신 29:2;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가리어져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해당한다.(시편 119:105; 벧후 2:19) 그것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었고, 계 1:1-3;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역사에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손에 요구되는 특별한 의무들을 충분히 깨닫기 위하여 예언을 이해하여야 한다.

7. 과거부터 지정된 세계 역사의 날짜들과, 제국들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연대적 연속의 사건들은, 예언의 수많은 위대한 고리들에 그 윤곽을 드러내며, 이러한 예언들은 세상 역사의 마치는 장면의 예언들만 제외하고 모두 성취되었다.

8. 전 세계 회심과 복 천년의 교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지어낸 이야기이며, 사람들을 육적인 안락으로 잠재우도록 고안된 것이고, 주의 큰 날에 밤의 도적처럼 그들을 사로잡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기 이후가 아니며 천년기를 앞서는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법왕권과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이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과 같이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며, 악인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심하여질 것이다.

9. 1844년 재림교인들의 실수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재림 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긴 예언적 시기는 다니엘 8:14 절의 2300 주야로서, 그 해에 끝났으며, 성소의 정결 사건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

10. 바울이 히브리서 8장과 그 후에 언급한 새 언약의 성소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자이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인데, 이 성소는 모세 장막의 원형이며, 이것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사역은 과거 시대의 유대인 제사장들 사역의 원형이다. 히 8:1-5 등; 이 성소는 2300 주야의 끝에 정결해지며, 그것의 정결은 모형에서처럼 단지 대제사장의 지성소 입장인데, 첫째 칸에서 봉사하였던 수단에 의해 옮겨진 죄들을 지우고 제거하므로 이와 연결된 봉사를 끝마

치는 것이다. (히 9:22,23) 이 사업의 원형은 1844 년에 시작되었고, 짝막하면서 알 수 없는 기간이며, 이 지구를 위한 자비의 사역이 종료 될 때 끝나쳐지게 된다.

11.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들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여 다 같으며; 이것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었고, 돌비에 새겨지고, 언약궤에 보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언약궤” 혹은 “언약”이라고 불린다. 민 10:33, 히 9:4, 등; 이 율법은 불변하고 영구하며, 하늘의 참 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보관된 증거판의 사본이며, 역시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계 11:19

12. 이 계명의 넷째 계명은 매 주일 중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라고 불리는 일곱째 날에 우리의 노동을 금하고, 이 날을 신성하고 종교적인 의무들에 바칠 것을 요구한다. 성경에 나온 주일의 안식일은 오직 이 날이며,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제정된 날이고, (창 2:2, 3) 회복된 낙원에서도 성수될 것이다. (사 66:22, 23) 안식일의 제도가 기초된 사실들은 이것을 일곱째 날만으로 제한하며, 이 사실들은 다른 어떤 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일중 휴일에 적용되는 유대인 안식일과 그리스도인 안식일이라는 용어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들이며, 비 성서적이고, 의미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다.

13. 불법의 사람인 교황권은 때와 법(하나님의 법들)을 변경코자 했고, (단 7:25) 넷째 계명에 관하여 거의 모든 기독교계를 잘못 인도하였으며, 이것과 관련된 개혁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찾아 볼 수 있다.

14. 자연적 혹은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과 원수가 되

므로, 애정의 근본적인 변화로만 이 적의가 억제되며, 거룩하지 못한 원칙들을 거룩한 원칙으로 교체하므로 된다. 이 변화에는 회개와 믿음이 뒤따르며,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써, 중생 혹은 거듭남을 이루는 것이다.

15.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그분의 공정하신 요구에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으므로, 첫째, 우리의 과거의 범죄로부터 칭의를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앞으로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한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한다.

16. 하나님의 영은 고전 12 장과, 엠 4 장에 특별히 열거된 어떤 은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로 약속되었으며; 이 은사들은 성령이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의 작용의 여러 경로를 지정하므로, 영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그것의 임재와 존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며, 그것이 감동한 말씀의 이해로 인도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과 생애에 변화를 이룬다. 그리고 영의 일할 자리와 작용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이 영에게 이 사역과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이다.

17. 인류에 대한 한결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접근에 대한 선포를 보내시는데, 이 사역은 계시록 14 장의 삼중 기별로 상징되었으며,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개혁하는 사업이며, 이로 인하여 그분의 백성이 그 사건을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얻게 한다.

18. 성소의 정결 시기와 (10 번 진술 참조) 세 번째 기별 선포의 시기는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며, 조사심판의 시기이다.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산 자들과 관련되는데, 지구의 먼지 가운데 자는 무수한 자들 중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와, 지구

에 사는 무리들 중에 누가 살아 승천할지를 은혜의 시기 끝에 결정하기 위함이다-이 사항들은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결정지어져야 한다.

19. 우리가 다 가는 무덤은 히브리어로는 “스올”(sheol)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hades)로 표현되는데, 이곳에는 아무 사업이나, 계획, 지혜나 지식이 없는 어두움의 장소이다. 전도서 9:10

20. 우리가 죽음으로 결정되는 상태는 침묵과, 무활동,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이다. 시 146:4; 전 9:5-6; 단 12:2, 등.

21. 이 무덤의 감옥 집에서 인류는 육체적인 부활로 나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의인은 첫째 부활로, 악인은 천년 후에 두 번째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계 20:4-6

22. 마지막 나팔 때 살아있는 의인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며,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23. 이 불멸을 입은 자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 저택이 많은 곳으로 (요 14:1-3) 데려가며,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세계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면서 천년기 후에 그들에게 임할 형벌을 할당한다. 계 20:4; 고전 6:2-3; 그동안 지구는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처음에 묘사된 헬라어 단어 “아부소스”(칠십인역, 창 1:2) (렘 4:23-27) 에서 사탄은 천년동안 갇힌 후 (계 20:1,2) 여기서 결국에는 소멸될 것이다. (계 20:10; 말 4:1) 그가 우주에서 이룬 파멸의 극장은 얼마 동안 그의 음울한 감옥 집이 되고, 그 후에 그의 최종적인 처형 장소가 된다.

24. 천년 후 주님께서 그 백성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강림하신 후에, (계 21:2)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새롭게 되지 않은 지구 표면 위에 올라서게 되는데, 성도의 장막인 (계 20:9) 도시 주위에 둘러 모일

때에,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린다. 그들은 그 때 뿌리와 가지가 (말 4:1) 살라져서 본래 없던 것처럼 된다. (오바다 1:15-16)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살후 1:9) 이 영원한 파멸에서 악인들은 그들을 위협했던 영원한 형벌을 (마 25:46) 만난다. 이것이 불경건한 자의 멸망이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된” 불은 그 강렬한 화력으로 원소들까지도 녹일 것이며, 죄의 저주의 가장 큰 얼룩으로부터 지구를 정결케 할 것이다.

25.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옛 것의 재로부터 솟아나며, 그것의 중심 도시와 수도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있어,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으로, 의인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된다. 벧후 3:13; 시편 37:11, 29, 마 5:5

리뷰지 문답 코너에 나타난 삼위일체 교리 반대 증거 자료

250
THE REVIEW AND HERALD.
Vol. 60, No. 16.

The Commentary.

Full the promise of scripture. One sees from that seems to wish all the promise of scripture.

SCRIPTURE QUESTIONS.

ANSWERS BY W. H. LITTLEJOHN.

91.—JOHN 11: 26.

How do you understand John 11: 26?

ANS. The following from Adam Clarke's comments on this place is perhaps as satisfactory an interpretation of the passage as could well be given: "Shall never die; or shall not die forever." Though he die a temporal death, he shall not continue under its power forever, but shall have a resurrection to life eternal."

92.—WHO WILL BE ACCEPTED?

When our Lord shall come, will any be accepted of him who are not found keeping his holy precepts that Sabbath day?

ANS. I think not. Should the Saviour come to-day he would find many sincere Christians among Sunday-keepers; but before he will actually appear in the clouds of heaven, the third angel's message of Rev. 14: 9-12 will go to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th the loud cry, and will unite all of the true followers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keeping of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e faith of Jesus.

93.—WORLD AS BE WORN?

Would it be wrong for you to employ a Sunday-keeper to build a house for me on a vacant lot, allowing him to rest on the Sabbath, provided he should take the job and furnish everything and meet himself?

ANS. I think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Sabbath law. The title of the village lot is in you in every sense of the word. You are the only person who has a right to say on what days work shall, and on what days work shall not, be done. The design of God in prohibiting work within our gates was that of proving us to see whether we

indicating a negative answer. Again, it has been said that when inquiry was to be made by Ulein and Thummin, the high priest placed himself in front of the ark with his face toward that object, the individual desiring the information standing immediately behind the priest. In case, for example, the inquiry made, related to the propriety of making war upon a certain nation, the Lord made reply in the affirmative or negative, as the case might be, by causing those lotions in the names of the different tribes which would spell out a word or words indica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answer, to shine with a supernatural luster.

(96)—CHRIST NOT A CREATED BEING.

Will you please have me with those scriptures which plainly say that Christ is created being?

ANS. You are mistaken in supposing that S. D. Adventists teach that Christ was ever created. They believe, on the contrary, that he was "begotten" of the Father, and that he can properly be called God and worshiped as such. They believe, also, that the worlds, and everything which is, was created by Christ in conjunction with the Father. They believe, however, that somewhere in the eternal ages of the past there was a point at which Christ came into existence. They think that it is necessary that God should have antedated Christ in his being, in order that Christ could have been begotten of him, and sustain to him the relation of son. They hold to the distinct personality of the Father and Son, rejecting as absurd that feature of Trinitarianism which insists that God, and Christ, and the Holy Spirit are three persons, and yet but one person. S. D. Adventists hold that God and Christ are one in the sense that Christ prayed that his disciples might be one; i. e., one in spirit, purpose, and labor. See "Fundamental Principles of S. D. Adventists," published at this Office. Price, 4 cts.

97.—WHAT WAS DONE AWAY?

Can you tell me in a few words what it was that was done away according

BY THE THREE EPISTOLERS.

BY MR. P. ALDRMAN.

LETTER to the Sabbath's voice,
"Never treading on his shoes,
Washing, walking near his feet,
Where the way is cold and bleak.

He has crossed the desert wild;
Well he knoweth all the way,
But he passed it unnoticed.
We so oft have been astray!

Hear the loving earnest call,
"Follow me! thy Shepherd I!
Trust me though the path is steep;
Lead beyond the fold thou'lt see."

Progress of the Cause.

—He that shall teach and counsel, brother and sister, shall discipline one another with gentleness, within his shame with him.—2d Cor. 13: 1.

MISSOURI.

NROSHIO, APRIL 10.—Have just returned from a meeting held by invitation a few miles north of this place. Tracts had prepared the way, and the word preached was received with much joy. The family from whom I received the invitation decided to travel the narrow way that leads to life. I sold \$150 worth of tracts, and obtained one subscriber for the Review, and one for the Signs.

R. G. BLACKMAN.

VIRGINIA.

MOUNTAIN FALLS, FARMERS CO.—I began meetings one mile north of this place, April 8, in a school-house known as Friendly Grove. The house is filled every night with very intelligent people. I have hopes that by the help of God, some good may be done at this place. I meet with the little company at Laurel Grove every Sabbath, and I find some there growing in grace. To God be all the praise.

Dear brethren and sisters, remember the work here in your prayers.

M. G. HUFFMAN.

KANSAS.

1883년 리뷰지 문답 코너에 실렸던 삼위일체 반대 내용

Scripture Questions from THE REVIEW AND HERALD [Vol 60, No 16] April 17, 1883 -- Answers by W. H. LITTLEJOHN

96 - CHRIST NOT A CREATED BEING

Will you please favor me with those scriptures which plainly say that Christ is a created being?

Ans. You are mistaken in supposing that S. D. Adventists teach that Christ was ever created. They believe, on the contrary, that he was "begotten" of the Father, and that he can properly be called God and worshiped as such. They believe, also, that the worlds, and everything which is, was created by Christ in conjunction with the Father. They believe, however, that somewhere in the eternal ages of the past there was a point at which Christ came into existence. They think that it is necessary that God should have antedated Christ in his being, in order that Christ could have been begotten of him, and sustain to him the relation

of son. They hold to the distinct personality of the Father and Son, rejecting as absurd that feature of Trinitarianism which insists that God, and Christ, and the Holy Spirit are three persons, and yet but one person. S. D. Adventists hold that God and Christ are one in the sense that Christ prayed that his disciples might be one; i.e., one in spirit, purpose, and labor. See "Fundamental Principles of S. D. Adventists," published at this Office. Price, 4 cts.

1883년 4월 17일자 리뷰 앤드 헤랄드 성경 질문 코너

답변: W. H. LITTLEJOHN

96 - 그리스도는 창조된 존재가 아님

문: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존재라고 명백히 말하는 성경절들을 부탁드릴 수 있는지요?

답: 제칠일 재림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피조되었다고 가르친다고 추측하는 것은 착각이십니다. 그들은 반대로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불리고 경배 받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세계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과거 영원한 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고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계셨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된 개성을 믿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세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삼위일체주의의 불합리한 면을 거절합니다. 제칠일 재림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영과 목적과 사업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출판한 제칠일 재림교회의 기본 원칙 선언문을 참고하십시오. 가격, 4센트

4. 제칠일 재림교회 역사

제칠일 재림교회 변천사

1844년 - 윌리엄 밀러 재림 운동 대 실망

1844년의 시련기 - 1854년 - 실망한 소수의 무리는 성령의 지도 아래 신중한 말씀 연구와 계시를 통하여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 오류에 묻혀(흐려져) 있던 모든 진리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하여 확실한 깨우침을 받았고 중세기에 형성된 삼위일체 교리가 오류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놓이게 되었고 하늘 도성에까지 이를 일련의 모든 진리가 확립되어 아직 교회 명칭이 없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남은 무리(교회)가 형성되었다. (1기별 25번-우리 신앙의 기초 참조)

1860년 - 제칠일 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ts) 이름이 주어짐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 역사적 서언 참조)

1863년 - 제칠일 재림교회 조직(대총회)형성, 건강 기별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 역사적 서언 참조)

1872년 - 제칠일 재림교회 기본 원칙 선언문 발표 (25개 기본 신조에는 삼위일체를 진술하는 조항은 단 하나도 없음)(EGW 2008 CD Rom {FP1872 } 참조)

1888년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원의 어느 시점에 출생하신 것을 재확인 하였다){1890 EJW, *Christ and His Righteousness*-그리스도와 그의 의 p.21-22 참조}

1900년 무렵 - 켈록의 위험한 가르침 시작 (범신론과 삼위일체 사상) (Letter: A. G. Daniells to W. C. White. Oct 29.1903, p.12 참조)

1902년 2월 - 배틀크릭(켈록 의사)병원 화재

1902년 12월 - 켈록 의사의 “살아있는 성전”책의 인쇄판과 함께 미주 시조사 화재

1903년 - 켈록 의사의 “살아있는 성전” 책 출판

1904년 - 켈록 의사의 사상과 “살아있는 성전” 책에 관한 엘렌 화잇의 강력한 경고

1907년 - 켈록 의사는 끝까지 그의 사상을 고집하였고 1907년에 제 칠일 재림교회와의 연결을 끝내버림²⁾

1915년 - 엘렌 화잇 서거

1919년 -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비밀 성경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음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7/1 (Spring 2006): p. 132-135 참조)

1928년 - 프롬 목사가 제칠일 재림교회의 신앙에 속하지 않은 타종파 (개신교) 책들에서 연구하여 ‘보혜사가 오심(*The Coming of the Comforter*)’을 저술하여 성령을 제 삼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로 부터 분리된 개체로 서술함 (*Movement of Destiny*) p.322-by L.E. Froom 참조)

1931년 - 삼위일체 교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비공식적 성명 발표 (어찌 우리 잇으랴 p. 293-조지 나이트 저 참조)

1941년 - 1941년 침례 서약과 교회 요람에서 삼위일체를 믿어야 함을 확고히 함 (*Movement of Destiny*) p.482-by L.E. Froom 참조)

1944년 -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의 저서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1897년 출판)’에서 삼위일체교리를 반대하는 문구는 삭제해 버리고 재 출판함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7/1 (Spring 2006): p. 138, *Movement of Destiny* p.425 & p.465-by L.E. Froom 참조)

2) (http://en.wikipedia.org/wiki/John_Harvey_Kellogg)

1946년 - 대총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최초로 교단 교리로 공식 승인 (Fifteenth Meeting, General Conference Report No. 8, Review and Herald, June 14, 1946, 197.)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Vol. 41, No. 1, 113-129 참조)

1946년 - 프롬 목사를 주축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복음전도’ 편집, (복음전도 616쪽에 소제목으로 ‘영원 지존하신 삼위 일체’를 삽입) (Letter of LeRoy Froom to Roy A. Anderson, January 18, 1966 참조)

복음전도(전도법) 편집-프롬 고백: 프롬 자신이 그의 저서 ‘운명’에서 ‘복음전도 (전도법)’를 편집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음 - “그 후에 내가 대총회 목회부에 관련되었을 때 이 주제에 관한 예언의 신의 저서들을 상당히 연구했는데 많은 것을 더 배웠다. 우리가 “복음전도(전도법 Evangelism)”란 책을 편찬(편집)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들과 다른 많은 권면들은 그 책의 중대한 부분이 되었다.”(운명, 621p)

"Later, when I connected with the Ministerial Associat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I did considerable research in the Spirit of Prophecy writings on this subject, and found much more. When we were asked to help in compiling the book Evangelism these and many other counsels became a vital part of that book.” (*Movement of Destiny* 621 p, 1971)

SDA 신학자들은 L. E. Froom 목사가 삼위일체주의를 도입한 가장 두드러진 옹호자였음을 인정함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Vol. 41, No. 1, p. 113-129 참조)

1950년대 - 개신교 대표 목사 월터 마르틴(Walter Martin)이 제칠일 재림교단이 삼위일체를 믿는지에 대한 도전 (*Adventist Review*, September 8, 1983, p. 4 참조)

1957년 - ‘제칠일 재림교회의 교리에 대한 질의응답 (QOD: *Seventh-day Adventists Answer Questions on Doctrine*)’을 출간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확고히 하였다. (*MINISTRY* Mag-Feb, 2009 p. 8)

1960년 - 프롬 목사는 그의 저서 '보혜사가 오심(The Coming of the Comforter)'이 출판되었을 때 성령의 개성을 신성의 세 번째 분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 당시 제칠일 재림교회 고참자들이 강력히 반대하였음을 그의 편지에서 고백하였음. 그 편지를 썼을 당시(1960)에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인정함 (Letter of LeRoy Froom to Dr. Otto H. Christenson, October 27, 1960 & *The Seventh Day Adventist Godhead Debate* p. 373 by Terry Hill 참조)

1980년 - 53차 미주 텍사스 달라스 대총회에서 교단적으로 삼위일체교리를 개정하고 투표하여 27 기본교리 중 하나로 공식 채택하였다. ("The current unambiguous statement on the Trinity in the Seventh day Adventist Fundamental Beliefs was revised and voted at the 1980 General Conference Session."- *MINISTRY* Mag-Feb, 2009 p. 8 참조)

-삼위일체신(로마 천주교의 신)을 제칠일 재림교회의 신으로 공식 채택함으로써 일반 개신 교회처럼 바벨론의 어미 로마 천주교를 따르게 되었으며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칠일 재림교회의 사명(세 천사 기별)과 신앙의 견고한 기초에서 떠난 "이름뿐인(명목상의) 재림교회"가 되었고 더 이상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아니며 안식일의 주인을 무효화하고 단지 안식일만 지키는 종교로 타락하였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애 4:1)

1980년 이후 - 찬미가(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찬미 추가)개편, 삼위일체를 지지하기 위한 책자들과 안식일 학교 교과서들 - 1998년 4기, 2006년 2기, 2009년 3기 9과-수요일, 2012년 1기,... 등등

1984년 -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는 개정된 침례 서약

1985년 - 삼위일체 사상의 찬미들을 포함한 새로운 영문판 찬미가 출판

1980년 → 현재 -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천사 기별을 원래의 뜻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전파해야 하는 시기

재림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5. 초창기에 주어진 진리의 빛과 신앙에 충성

“우리는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주어진 진리의 빛과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많은 오류들이 우리들에게 쇄도하였고, 또 새로운 교리들을 가지고 나오는 목사나 의사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도로써 성경을 상고하였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진리를 가져다주었다. 또,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때도 있었다. 열심 있는 신자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곤 하였으며, 이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진리와 오류를 분명히 갈라놓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받는 때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요점들이 확립되었으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증거 하심 아래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였다. 나는 계시를 받는 가운데 그 모든 자세한 해석을 받게 되었다. 하늘에 관한 모든 사물과 성소에 관한 실제 예증을 나에게 보여 주심으로 우리 위에는 밝고 분명한 빛이 비치게 되었다.” (복음, 302)

“우리 백성들은 우리 신앙의 이유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들의 과거의 체험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하고 옛날의 이정표들을 옮겨버릴 경향이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인간에게 과도한 신뢰심을 거침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거짓 영에게 쉽사리 이끌려 가는 자들은 저들이 한 동안 그릇된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너무나 오

래되어 저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실을 스스로 식별하지 못하고 **참된 기초** 위에 믿음을 건설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 안경을 쓰고 저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신앙의 참된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딤후 2:19)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유 3)에 대한 **옛 증거들을** 소생시킬 필요가 있다.” (2기별, 25)

“더욱 **분명한 빛**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길을 방해하는 자들 위에 여호와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목사들이여, 여호와를 찾고, 모든 교만심과 자고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 교회를 연합하게 만드는 것은 냉정함으로 인한 것이며, 또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할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복음, 303-304)

“나는 1844년이 지난 이후에 진리를 찾는 적은 무리가 함께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빛과 인도하심을 구하여 형성된 증거의 고리를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떨어뜨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진리의 요점들이 우리 마음에 아주 확고하게 고정되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없었다. 우리 초창기의 경험에서 주신 증거는 그 당시와 똑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진리는 이전과 같이 지금까지 동일하며 하나의 편이나 기둥이라도 진리의 구조로부터 움직일 수 없다. 1844, 1845, 1846년에 말씀에서 찾아냈던 진리는 모든 상세한 부분까지라도 진리로 남아 있다.” - 서신 38, 1906. 1. 23. (1MR 52.2)

6. 배도의 알파(시작)와 오메가(마지막)



화재 전 배틀크릭 병원

현재 재림교회 내에서 배도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하여 다루는 책과 기사들은 많이 있다. 재림 교인들은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배도의 알파(시작)는 켈록 의사의 범신론 사상이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범신론 사상과 함께 섞여있던 그의 삼위일체 사상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켈록 의사는 범신론과 삼위일체 교리를 동시에 믿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잇 부인은 많은 시간과 글을 할애하여 켈록의 잘못된 가르침(범신론과 삼위일체)을 막고 그를 거짓 가르침들에서 돌이키려 하였지만 켈록은 완고하게 끝까지 그의 사상을 고집하였고 3)1907년에 재림교회와의 인연을 끝내버렸다.

배도의 알파(시작)

켈록 의사(1852-1943)는 1895년-1897년 사이에 그의 아내의 교회인 제칠일 침례교회(삼위일체교단)의 루위스(A. H. Lewis) 박사로부터 범신론의 영향을 받았고 1897부터 제칠일 재림교회 (당시에는 반 삼위일체 교단)에서 그의 거짓된 이론들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⁴⁾

켈록 의사는 거짓된 이론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의료 선교 사업을 교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경향이 있었고 작은 요양원을 여러 장소에 많이 세우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배틀크릭 병원만을 키우려고 하였다. 그리고 제칠일 재림교회의 특수한 교리들을 배틀크릭 요양원에서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단계에도 이르렀다.⁵⁾ 1902년 2월에

3) http://en.wikipedia.org/wiki/John_Harvey_Kellogg#cite_note-6,

(Dr. John Harvey Kellogg and the Religion of Biologic Living p. 113, By Brian C. Wilson)

4) (SBIO - Ellen G. White: The Early Elmshaven Years Volume 5 1900-1905, p. 281.5), (Dr. John Harvey Kellogg and the Religion of Biologic Living p. 101, By Brian C. Wilson)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배틀크릭 요양원은 화재가 나서 무너졌다. 켈록은 배틀크릭에 병원을 다시 건립해서는 안 된다는 권면을 무시하고 화재가 난 날 즉시 새로운 건물 설계도를 직접 그려 같은 장소에 병원을 재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병원 재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문제의 요지는 이 책이 단순한 생리학 서적이 아니라 그의 삼위일체적인 범신론 사상이 섞여 있었던 것이었다.



배틀크릭 병원 화재

그는 교단이 이 책을 발행하기를 바랐지만 리뷰 앤드 헤랄드사(미국 시조사)는 이 책의 그릇된 사상 때문에 출판을 거절하였었다. 그 후 그는 리뷰 앤드 헤랄드사에 개인적으로 출판을 의뢰하였고 리뷰 앤드 헤랄드사는 그것을 수락 하였다. 그러나 책이 발간되기도 전에 리뷰 앤드 헤랄드사는 “살아있는 성전” 책의 인쇄판과 함께 1902년 12월에 잿더미로 변하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살아있는 성전”을 인쇄하여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켈록 의사의 삼위일체 가르침에 대하여 들어보지 않았다. 켈록 의사는 범신론을 가르침과 동시에 영원히 공존하고 동등한 3개체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를 전하고 있었다. 그는 범신론과 삼위일체교리의 철학을 함께 묶었다. 그리고 그는 제칠일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당시에(1903) 대총회장이었던 A. G. 다니엘스 목사님이 엘렌 화잇의 아들 W. C. 화잇 목사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나는 회의가 끝난 후에 “살아있는 성전” 책을 개정하고 재 출판하고자 하는 켈록 의사의 계획에 대하여 당신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써야 할 것을 느꼈습니다. 켈록은 회의에 오기 며칠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했었고 그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5) (SBIO - Ellen G. White: The Early Elmshaven Years Volume 5 1900-1905, p. 148.3)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켈록) 예전에 삼위일체에 관하여 가졌던 그의 견해 때문에 명확한 서술이 힘들었는데 오래지 않아서 그는 삼위일체를 믿게 되었으므로 모든 어려움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모든 공간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라고 말하였습니다.(He told me that he now believed in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and his view was that it was God the Holy Ghost and not God the Father that filled all space and every living thing.) 그는 말하기를 만약 책을 기록하기 전에 이것을 믿었더라면 지금 책이 주고 있는 잘못된 인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ter, A. G. Daniells to W. C. White Oct 29th 1903)

배도의 알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켈록이 당시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켈록이 출판한 “살아있는 성전”책은 그의 생리학 이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켈록은 전직 대총회장이었던 G. I. 버틀러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살아있는 성전”책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은 “성령이 하나의 개체입니까”라는 질문에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경이 성령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잇 자매도 대명사 “그”를 사용하셨고 여러 말로 성령이 신성의 세 번째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성령이 세 번째 분이면서 개체가 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Letter: J. H. Kellogg to G. I. Butler. Feb 21. 1904.)

위의 인용문대로 켈록은 성령이 한 개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재림교단과 선구자들은 성령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분들의 개성으로는 이해를 하였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전혀 다른 세 번째 개체로서는 이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켈록은 성령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세 번째 개체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삼위일체적 단어인 “성령 하나님”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켈록은 버틀러 목사에게 쓴 그의 편지에서 화잇 부인의 글까지 인용하여 성령이 다른 개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잇 부인 본인은 켈록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내가 쓴 글들이 “살아 있는 성전”의 이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 가운데 기록된 어떤 표현들과 사상이 내가 쓴 글들과 일치하는 것이 다소 있을는지 모른다. 또한 내가 쓴 많은 글들이 “살아 있는 성전”의 저자의 사상에 알맞게 인용되고 해석되었으므로 이 책의 교훈들과 나의 글들이 조화를 이루는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점이 “살아 있는 성전”의 사상과 나의 글들이 일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이 파급되는 것을 용서치 않으신다.”(1기별, 203)

그리고 켈록이 버틀러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지 6주 후에 버틀러 목사에게서 답장이 왔다.

답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화잇 자매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신과 화잇 자매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화잇 자매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당신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화잇 자매께서 차이점이 있다고 발언 하신 것을 철회할 때까지는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화잇 자매가 말씀하는 것의 의미를 명백히 알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위로자(보혜사)와 책망자가 되시며 특히 위로자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올 때 그런 의미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영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발로 걸어 다니는 개체가 아니며 실제적인 존재처럼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개체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저의 이해력과 단어와 언어의 의미를 벗어난 것입니다.” (Letter: G. I. Butler to J. H. Kellogg. April 5. 1904)

엘렌 화잇은 켈록의 삼위일체 범신론 철학을 일컬어 이렇게 기록했다. “살아 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치명적인 이단설의 알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1기별, 200)

“살아 있는 성전’은 이런 이론들의 알파를 포함하고 있었다.” (1기별, 203)

“하나님의 개성에 관한 강신론적 이론들이 저들의 논리적 결론을 이루고 있는바 이러한 이론들은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의 제도를 쓸어버린다.” (1기별, 204)

지금까지 배도의 시작은 켈록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한 하나님의 개성에 관한 강신론적 이론들이었고, 범신론뿐 아니라 삼위일체 철학인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곧 오겠다고 예언한 배도의 오메가는 무엇인가? 예수의 증거와 제칠일 재림교회 역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배도의 오메가 (마지막 배도):

질문 1: 배도의 오메가는 언제 재림교회로 들어올 것인가?

답: “살아 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치명적인 이단설의 알파

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메가는 금방 이 뒤를 따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메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1기별, 200)

“나는 오메가가 잠시 후에 뒤따를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다.” (1기별, 203)

-배도의 오메가는 켈록의 배도(배도의 알파) 잠시 후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삼위일체 교리는 L. E. 프롬 목사에게 의해서 1920년대 즈음에 제칠일 재림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소개되었다.

질문 2: 그것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답: “오메가는 금방 이 뒤를 따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메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1기별, 200)

-경고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것이었다.

질문 3. 교회가 오메가 이설을 받아들인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답: “만일 이러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써 남은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원칙들은 버림받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변화되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에 이 사업을 버티어 온 근본적인 원칙들은 마치 오류처럼 인정되었을 것이다.” (1기별, 204)

-제칠일 재림교회의 신앙은 변천했다. 제칠일 재림교회가 1872년 최초로 기본 신앙 선언서를 발표한 이래로 제칠일 재림교회 신앙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단 하나뿐이다. 곧 그것은 제칠일 재림교회가 초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들의 성령에 대해 가졌던 가르침을 거절하고 삼위일체교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1854년부터 1904년까지 재림 사업을 지탱해 주었던 근본 원칙들은 현재 오류로 인정되고 있다.

질문 4: 배도의 알파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답: “그 이론은 하나님의 개성과 그분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에 관하여 공론을 폈을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 (1기별, 201)

“그 책 가운데 표현된 사상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주고 있지 못하다.” (1기별, 202)

“하나님의 개성에 관한 강신론적 이론들이 저들의 논리적 결론을 이루고 있는바 이러한 이론들은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의 제도를 쓸어버린다.”

“이 이론들은 그것들의 논리적인 결론을 따르면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의 체계를 쓸어버리게 된다. 그것들은 속죄를 위한 필요를 제거해 버리고 사람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론들은 그분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그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마침내 전체적인 성경을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로 인정하도록 인도될 큰 위협에 빠진다.” (8증언, 291)

-앞서 살펴보았듯이 배도의 알파는 하나님의 개성과 그분의 임재에 관한 것이었는데 켈록은 이 때 삼위일체를 함께 믿고 있었음을 보았고 삼위일체와 범신론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는 것을 보았다. 삼위일체 교리만큼 성경을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로 만드는 교리는 없다. 삼위일체 교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꾸며낸 이야기가 된다.

질문 5: 배도의 오메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답: “‘살아 있는 성전’은 이런 이론들의 알파를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오메가가 잠시 후에 뒤따를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개성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야 할 것을 깨달았다.” (1기별, 203)

-배도의 오메가에서도 역시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쟁점이다. 1915년에 엘렌 화잇이 서거한 이후 1919년부터 제칠일 재림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참된 가르침을 외면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는 기초 작업이 서서히 진행되었고 제칠일 재림교회는 1931년에 비공식적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성명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질문 6: 마지막 배도의 위기에 닥친 재림교인들의 안전은 무엇인가?

답: "...우리는 1844년의 시련을 이겨낸 후로 세워진 영원한 진리의 토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히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1기별, 199)

-배도의 알파(시작)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경고와 주의가 적용된다.

질문 7: 켈록 이전에도 화잇 부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들을 책망하셨는가?

답: "1844년의 시기를 지난 후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광신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강신술의 이론들을 주장하는 몇 사람들에게 전해 줄 책망의 증언들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사상들을 전하는 데 활동적인 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무효로 만들고 있다는 빛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들을 제시함으로 영혼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교훈을 받았다." (8증언, 292)

질문 8: 배도의 알파 이설 시기에 화잇 부인의 글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였는가?

답: "나는 내가 쓴 글들이 "살아 있는 성전"의 이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 가운데 기록된 어떤 표현들과 사상이 내가 쓴 글들과 일치하는 것이 다소 있을는지 모른다. 또한 내가 쓴 많은 글들이 "살아 있는 성전"의 저자의 사상에 알맞게 인용되고 해석되었으므로 이 책의 교훈들과 나

의 글들이 조화를 이루는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점이 “살아 있는 성전”의 사상과 나의 글들이 일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이 파급되는 것을 용서치 않으신다.” (1기별, 203-204)

-엘렌 화잇의 글들을 켈록의 사상에 맞게 인용하고 해석하였던 것처럼 배도의 오메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질문 9: 배도의 오메가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답: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앞에 이 위협의 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 (1기별, 197)

리뷰지의 전임 편집장이었던 윌리엄 존슨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재림교 신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대 진리”의 영향 아래 변하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다. 제임스 화잇, J. N. 앤드루즈, 우라이야 스미스, J. H. 왜고너를 포함한 많은 선구자들은 아리안적인 혹은 준 아리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아들이 창조 이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재림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오늘날도 몇 사람들은 그것에(삼위일체 교리) 동의하지 않는다.” (Adventist Review, Jan 6, 1994. p.10. Article by William Johnsson.)

-예언대로 배도의 알파는 가장 놀라운 성격의 것인데 재림교회 내에서 권위 있는 역사학 교수(George Knight)와 편집장(William Johnsson)은 반 삼위일체에서 삼위일체로 전환한 재림교 신앙의 변천은 가장 놀라운 것과 충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물론 그들은 선구자들을 아리안주의 혹은 준 아리안주의로 분류하여서 마치 그들이 이설을 믿었

던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였다.

질문 10.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도의 오메가를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답: “그 때에 나는 “시온의 성벽에 있어야만 할 파수병(把守兵)들이 어디에 있는가? 저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가? 이 기초는 위대한 사업가이신 하나님께서 쌓으신 것이며 폭풍과 폭우를 견딜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경험을 부인할 교리를 내세우도록 용납할 것인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한 음성을 들었다.” (1기별, 204)

배도의 오메가(마지막)에 대한 요약:

1. 제칠일 재림교회의 신앙은 화잇 부인이 예언한대로 변천하였다. 실제적인 독생자를 가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후 삼위일체 교리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변하였다.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을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받아들였고 영원한 복음의 내용과 세천사 기별을 달리 해석하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이것은 제칠일 재림교회가 1863년 조직된 이래로 교리가 공식적으로 바뀐 유일한 사례이다.

3. 너무나 두드러진(충격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제칠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오늘날 재림교회에 입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4. 엘렌 화잇이 서거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삼위일체 교리가 교단의 신조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엘렌 화잇 부인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재림 교단의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우리의 신조를 설명하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5. 이 교리는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6. 새로운 제도(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책들이 저술되었다. (예: 프룸 목사의 “The Coming of the Comforter, Movement of Destiny, The

Trinity-Woodden, Moon, Reeve, Understanding the Trinity-Max Hatton, etc....)

7.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개성에 관한 현안으로써 그분의 본성, 개성, 정체를 다룬다. (알파의 치명적인 이설도 그러하였다)

8. 초기 재림교 선구자들이 세운 기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역사를 부인하는 교리이다. (알파의 이설과 동일함)

9. 치명적인 이설의 알파 때와 마찬가지로 화잇 부인의 글들을 잘못 인용하여 새로운 교리, 즉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한다.

위에 열거한 배도의 오메가(마지막)의 특성들은 배도의 알파(시작)와 같은 성격의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제칠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 중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배도의 오메가의 특징들에 정확히 일치함을 인정할 것이다.

배도의 알파(시작)와 배도의 오메가(마지막)의 비교

배도의 알파(시작)의 특징(켈록의 범신론과 삼위일체 사상)	배도의 오메가(마지막)의 특징(현재 제칠일 재림교회 삼위일체 사상)
하나님의 본성과 개성에 관한 것-범신론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성과 본성에 관한 것 -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부인하고 기초를 무너뜨림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부인하고 기초를 무너뜨림
새로운 제도의 책 -살아있는 성전	새로운 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서적들-프롬 목사의 저서들, 현재 교회 내에서 출판된 삼위일체 교리 관련 서적들
화잇 부인의 글을 잘못 인용하여-범신론과 삼위일체사상 옹호	화잇 부인의 글을 잘못 인용하여 삼위일체 교리 지지
켈록 -전에는 믿지 않던 삼위 하나님(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음 = 삼위일체 교리	현재의 제칠일 재림교 -전에는 믿지 않던 삼위 하나님(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음 = 삼위일체 교리
하늘 도성에 까지 이를 기초를 떠남	하늘 도성에 까지 이를 기초를 떠남

7. 선구자들의 글을 반복-재 출판하라는 명령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정기 간행물들에 대한 빛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이 말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들의 수고가 그들을 뒤 따를 것이다. 우리는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던 우리 사업의 선구자들의 글을 반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기초를 놓는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 아래 한 발자국씩 전진하였었다. 이 선구자들이 하나씩 잠들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들이 전에 쓴 글들을 재 출판하라는 것이다.” (RH, 1905. 5. 25.)

“나는, 우리가 지금은 잠든 몇몇 옛 일꾼들의 증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의 초창기 간행물들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글들을 통하여 그들로 계속해서 말하게 하라. 이 글들은 주님의 증인들로부터 나오는 산 목소리가 되도록 지금 재인쇄되어야 한다. 기별 속에 담겨진 초기 경험의 역사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방어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 지시는 최근에 반복되었다. 나는 백성들 앞에 성경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수년 전에 주어진 결정적인 기별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장막회와 교회들에서 행한 나의 설교가 살아서 그 지정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문선, 31)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였던 제칠일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과거 출판 기록들

제임스 화이트 - James Springer White(1821-1881) (화이트 부인의 남편, 목사, 행정가, 편집장, 대총회장 역임):



남편에 관한 화이트 부인의 증언: “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불어 맺고 있는 관계와 유사함을 보았다.” (3증언, 85)

“그분은 또한 내 남편에게 성경 주제들에 관해 큰 빛을 주셨는데,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나는 이것들을 기록하고 말해야 하며 말씀 위에 새로운 빛이 계속해서 비칠 것을 보았다.” (3증언, 85)

“하나님께서서는 귀중한 진리의 빛이 당신의 말씀을 비추고 내 남편의 마음을 계몽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는 예수님의 존전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광선을 설교와 저술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반사할 수 있다.” (3증언, 502)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 1:3,4)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권고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유다)는 우리가 왜 그 믿음, 독특한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 주고 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혹은 홀로 하나이신 주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 것이다.

강신술사들이 홀로 하나이신 주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부인했던 방법은 첫째로 케케묵고 비성서적인 삼위일체 신조를 사용함으로써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구절도 없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성경의 증언이 풍부히 있다.” (James White, January 24, 1846, The Day Star)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기도는 열두 머리를 가진 한 제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주인의 사업의 목적과 노력에 있어서 하나가 된 열두 제자들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도 역시 “셋의 하나인 하나님”의 부분들이 아니다. 그분들은 구별된 두 분의 개체이지만, 구

속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하나이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 위대한 구속에 참여한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모두 **하나님과 어린양**께 돌린다.” (James White, 1868, Life Incidents, page 343)

“개신교도들이 천주교회로부터 가져온 **근본적인 오류들** 가운데 이 거짓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오류들, 곧 침례 대신 세례, **삼위일체**, 죽은 자의 의식과 비참함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오류들을 붙들여 온 대중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무지 가운데서 하였을 것이지만 심판의 장면들이 세상에 닥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오류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인자가 흰 구름 위에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실 직전에 주어질 기별의 기간 동안에, 계 14:14)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이 부류는, 인간의 전통들을 지키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속의 계획과 관련된 근본적인 오류들을 간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에 관한 참 빛이 비춰지고 대중들에 의해서 거절되면 그 때에야 정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참된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넷째 계명의 요구가 그들에게 권고될 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제도를 거절하고 그 대신에 짐승의 제도를 선택한다면 모든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대신에 짐승의 표를 받아들여지게 될 그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엄숙하고 두려우며, 속히 다가오고 있는 시간인 것이다!” (Sept 12, 1854 JWe, ARSH p. 3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개성을 파괴하는 삼위일체**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대신에 세례를 주거나 붓는 의

식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우화**들을 제치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곧 천주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 모두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 하나를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주일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한 것이다.” (December 11, 1855 JWe, ARSH 85.15)

“**‘불법의 비밀’**은 바울 시대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복음의 단순성을 밀어냈으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오염시키므로 교회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틴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말씀과 영으로 종교개혁에서 위대한 진보를 하였다.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기를 멈췄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교황권의 마지막 흔적들, 즉, 영혼 불멸설, 세례, **삼위일체**, 일요일 신성설을 버리고 계속 전진하고 전진하였더라면 교회는 그녀의 모든 **비성서적인 오류들**로부터 지금 자유로웠을 것이다.” (James White, February 7, 1856, Review & Herald, vol. 7, no. 19, page 148, par. 26)

“신성을 하나 안에 셋, 셋 안에 하나로 만든 불가해한 **삼위일체도 충분히 나쁜데** 그리스도를 아버지보다 열등하게 만드는 극단의 유니테리안주의(역자주: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는 더하다. 하나님께서 하위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는가?” (James White, November 29, 1877, Review & Herald)

“**아버지께서 아들보다 크심은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한 이유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이다.” (J. S. White, Review & Herald, January 4, 1881)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셨으며 우리가 감히 깨닫지 못하는 가장 엄숙한 의무들 아래 우리를 놓으셨다. 제칠일 재림 교인들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예언의 신(영)의 나타남이다.

이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도 분열들에 더 노

출될 것이다. 이 선물을 받아들였고, 유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단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연합이 주는 믿음의 결합과 효과적인 활동을 누리고 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녀(화이트 부인)의 글에서 하나의 상스러운 단어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성령의 사역이나 그리스도인 거룩함의 표준을 낮추거나, 믿음과 의무의 표준인 성경에서 떠나가게 하는 하나의 문장이라도 있어서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그 글들에 대해서 백성들을 경고해야 할 때이다. 그들이 이 주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그들의 경멸들을 주목할 가치도 없는 것이 그 경멸을 관찰하고 답해주는 것은 다 같이 어렵고 불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이트 부인을 통해 주신 성령의 증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라고 모두를 초청한다. 이렇다고 하여 이것을 그대의 신조와 비교하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별개의 것이다. 삼위일체 주의자는 그의 신조와 그것(화이트 부인을 통해 주신 성령의 증언)을 비교하고 그것이 서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화이트 부인을 통해 주신 성령의 증언)을 정죄할 것이다. 일요일 성수자나, 영원한 지옥을 중요한 진리로 여기는 자나,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는 목사는 화이트 부인의 증언들을 모두 정죄할 터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 특유의 견해들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백 명의 사람들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화이트 부인을 통해 주신 성령의 증언)의 진실성은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James White, Review and Herald, June 13th 1871, ‘Mutual obligation’)

J. N. 앤드루즈 (J. N. Andrews) (1829 - 1883) (목사, 학자, SDA 교단 최초의 해외 선교사)

앤드루즈에 관한 화잇 부인의 증언: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때로 보여주신 것에 의하면 앤드루즈 형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그분의 선택하신 종이라는 것이다." - Letter 13, 1871



"앤드루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종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대열 가운데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그대들에게 보냈다. 우리는 앤드루즈 목사를 여기서 필요로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탁월한 신중함, 그의 경험, 책상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품위가 그대들이 필요한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5MR 436.3)

"...그는 자신의 기회들을 향상시켰고 우리 중에 아주 소중한 일꾼 중의 하나가 되었다." (2설교, 245)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총회에서 기원후 325년에 기초가 놓였다. 이 교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성을 파괴한다. 교회 역사의 기록들에 나온바와 같이 그것(삼위일체)을 교회에 강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수치스러운 수단들이야말로 그 교리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얼굴을 수치로 붉히게 해야 할 것이다." (J. N. Andrews, March 6, 1855, Review & Herald, vol. 6, no. 24, page 185)

존 러프보로우 - John N. Loughborough(1832 - 1924) (목사, SDA 교단의 첫 역사가):

J. N. 로프보로우에 관한 화잇 부인의 증언: "나는 J. N. 로프보로우 목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아직도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는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충실하게 일하였다. 스미스 목사, 나의 남편 그리고 나중에서 우리들과 합세한 버틀리 형제와 그대 자신(S. N. 헤스켈)과 더불어 로프보로



우 목사는 “태초부터 …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1-3)고 말할 수 있다.” (2기별, 225-226)

“질문 1: 삼위일체 교리의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나 지면상 세 가지 이유만으로 줄인다:

1. 상식에 어긋남.
2. 성경과 반대됨
3. 그 기원이 이교와 전설(신화)에 있기 때문이다.”

(J. N. Loughborough, Nov 5, 1861, Review & Herald, vol. 18, p. 184)

“**요한복음 17장 하나만을 가지고도 삼위일체 교리를 반박할 수 있다.....**” (J. N. Loughborough, November 5, 1861, Review & Herald, vol. 18, page 184)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친다고 추정되는 주요한 성경절은 요일 5:7절인데 그것은 삽입된 어구이다. 클라크는 “백 십삼개의 원고에서 그 구절은 백 십이개에서 빠져있다. 십 세기 이전에는 어떤 원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구절이 처음 존재한 곳은 헬라어에서인데 서기 1215년에 라테란 회의의 결정에서 나온 헬라어 번역본에 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상숭배, 태양의 날 숭배와 같은 무렵에 교회로 들어왔으며, 개조된 페르시아의 교리일 뿐이다. 지금의 교리로 형성되기까지는 그 도입으로부터 약 300년이 걸렸다. 그것은 A.D. 325년부터 681년에 완성되었다. Milman’s Gibbon’s Rome, vol. 4, p.

422.을 참조. 그것은 스페인에서는 589년에, 영국에서는 596년에, 아프리카에서는 534년에 받아들여졌다. (Gib. vol. 4, pp. 114, 345; Milner, vol. 1, p. 519. 참조)” (J. N. Loughborough, November 5, 1861, Review & Herald, vol. 18, page 184, par. 1-11)

우라이야 스미스 - Uriah Smith (1832 - 1903) (오랫동안 리뷰 잡지의 편집장 역임):

우라이야 스미스에 관한 화잇 부인의 증언: “우리들은 현재(1902년) 생존해 있는 초기의 교역자들을 쉽사리 손꼽아 헤아릴 수 있다. 우라이야 스미스 목사는 출판 사업의 시초부터 우리들과 같이 있었다. 그는 나의 남편과 함께 일하였다. 우리들은 항상 그의 이름이 리뷰 앤드 헤랄드지 편집자들 명단 위의 맨 꼭대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기 원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맨 위에 올려놓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용감하게 싸운 자들은 지금껏 저들이 굳게 붙잡아 온 것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저들은 가장 심한 궁핍이 지나간 후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나는 스미스 목사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출판 사업에 관여된 나의 필생의 과업은 그의 일생과 한데 묶여 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우리들에게 왔으며 편집인으로 채용할 충분한 자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것처럼 탁월하고 신령한 진리로 가득 찬 그의 글을 리뷰지에서 읽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른다. 나는 그러한 글들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스미스 목사에 대하여 강렬한 동정심을 느끼며 지도적인 편집인의 이름으로서 항상 그의 이름이 리뷰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몇 해 전에 그의 이름이 두 번째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나의 마음이 몹시 상하였다. 또다시 그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울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스미스 목사의 오른손에 펜대가 쥐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그의 이름은 항상 맨 윗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의 오른손이 글을 쓸 수 있는 기력을 잃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글을 받아쓰게 해야 할 것이다.” (2기별, 225)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아들의 중보,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믿는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U. Smith, The Bible Students Assistant, pp. 21, 22. 1858)

J. W. W.의 질문: 우리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개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답: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인데;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혹은 그리스도께 속하였든지 같은 영이다. 그러나 이 영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분이라는 개념과 일치할 수 없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신성의 감화력, 직접 임재 하지 않을 때 그분들의 임재와 그것으로 인해 온 우주에서 지식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매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개성을 가지신 한 분으로서 현재 하늘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두 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그분도 함께 계신다고 하셨다. 어떻게? 몸소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영으로 계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요 14-16)중에서 이 영은 “보혜사”로 인격화되었고 ‘그가’ ‘그의’ ‘누구의’라는 인칭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들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묘사 된다. 예를 들어 그것에 대하여 “부어지고” “부은바”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어진다는 것을 전혀 읽을 수 없다. 만약 그것이 개체라면 그것이 몸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실은 특이하게 서술되었다. 그리하여 눅 3:22은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내려오더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양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었는데; 오순절에는 그것이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의 모양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행 2:3, 4.

다시 우리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하여 읽을 수 있다. 계 1:4; 3:1; 4:5; 5:6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령에 대한 단순한 명시인데 그것의 완벽함과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표현법이 쓰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한 분의 개체라면 이런 표현법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곱 하나님 또는 일곱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읽을 수 없다.” (U. Smith, Review & Herald, October 28, 1890)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것은 그분들이 그분들의 위대하고 무한한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 신성하고 신비한 감화력이다…….

그것은 영원한 영이라고 불리며, 전지하고 무소부재한 영이다; 무질서하던 초기에 수면 위에 운행한 영이며, 무질서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왔다.

그것은 보혜사이며, 진리의 영이며, 소망의 영이며; 영광의 영이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극히 중대한 연결이다. 왜냐하면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영은 부드러우며, 모욕을 당할 수 있고, 근심케 할 수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 언젠가 불멸을 접한다면, 불멸을 접하게 해줄 매개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리라고 말하였다.” (March 18, 1891 N/A, GCDB 146.6)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시다. 일찍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시대에 - 유한한 인간에게는 너무 먼 시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원인 시대에-말씀이 나타나셨다.** 그분의 시작은 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의 시작과도 다르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신비스러운 표현으로 시작한다.” (1898 UrS, *Looking Unto Jesus* p. 10.)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의 영감과 수단, 그리고 그분들을 대표하는 성령-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도 그 때에 있었다.” (1898 UrS, *Looking Unto Jesus* p. 10.)

스티븐 해스켈 - Stephen Nelson Haskell (1833 - 1922) **(목사, 행정가, 선교사):**



스티븐 해스켈에 관한 화잇 부인의 증언: “해스켈 목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능률이 있어 보인다. 그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학생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견고하고 건전한 이야기들이 그의 입술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는 새 것과 옛 것을 공간에서 내어온다.” (9MR 350.1)

“구름에 떠 있는 무지개는 영원 전부터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상징일 뿐이다. 유한한 지성이 헤아리지 못하는 시대로 거슬러 가면 **아버지와 아들만이 우주에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첫 독생자이셨으며, 여호와께서는 그분께 창조의 신성한 계획을 밝히시었다.” (S. N. Haskell, *The Story of the Seer of Patmos*, pp. 93, 94. 1905)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처음 난 분이셨으며 땅에서도 하나님의 처음 난 분이셨고 아버지의 보좌의 상속자이셨다.” (Stephen N. Haskell, *The Story of the Seer of Patmos*, pages 98- 99, 1905)

존 매티슨 - John Gottlieb Matteson (1835 - 1896) (목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실제적인 아들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요 1:14) 그분이 하나님으신 것은 그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이지 그분의 부활의 미덕 때문이 아니다.” (J. G. Matteson, *Review & Herald*, October 12, 1869 p. 123)



E. J. 왜고너 - Ellet J. Waggoner (1855-1916) (1888 기별자, 목사, 의사, 편집장):

왜고너와 존스에 관한 화잇 부인의 증언: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목사, 91-92)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아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아버지를 판 박듯 닮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 아버지의 모습과 개성을 지닌다. 그러나 완전히 닮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류에게는 완전히 꼭 닮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나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코 불완전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히 1:3). 자 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많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일찍이 없었고 또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천사들은 아담과 같이 창조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욥 38:7; 눅 3:38).,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에 의하여(롬 8:14, 15).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출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 11-13)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결국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자신조차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직접적인 대리자가 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위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밝혀서 그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보다 잘 깨닫게 하려는데 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 19)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출생되셨지, 창조되지 않으셨다. 언제 출생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질문할 일이 아니며 혹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선지자 미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만한 것을 모두 말해주고 있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곧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때가 있었지만(요 8:42; 1:18) 그때는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사실은 시작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출생된 아들이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점으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그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히 1:4; 3:6).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면서부터 지니셨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이 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불멸의 생명이 그 자신의 권리에 속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생명이 그분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다시 취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 22-23)

**A. T. 존스 목사 - Alonzo Trevier Jones (1850 - 1923)
(1888 기별자, 목사, 편집장):**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재탄생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하늘에서 지구로 오신 것이다. 그의 근본이 상고에 태초이신 분, 하나님의 초태생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탄생한 것이다.” (*Christian Perfection*, pr. 53. A Sermon by A. T. Jones, Review & Herald, July 18-August 1, 1899)



에드슨 화이트 (엘렌 화이트의 둘째 아들) - Edson White (1849 - 1928) (목사, 미 남부지역의 흑인들에게 선교):

“우주에서 아버지 이외에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The Coming King*, p. 33)



윌리엄 화이트(엘렌 화이트의 셋째 아들) - William Clarence White (1854-1937) (아버지 제임스 화이트의 죽음 이후로 어머니와 동역):

윌리엄 화이트에 관한 어머니의 증언: “또한 제 아들 W. C. 화이트가 저의 조력자와 상담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슬기로운 정신과 건전한 마음을 주시리라는 것을 저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가 성령의 지도와 안내를 깨달아 알 것이므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1기별, 54)

“내가 나의 영을 그대의 아들에게 부여 줄 것이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에게는 겸비의 미덕이 있다. 여호와께 서는 당신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쓰시려고 그를 선택하셨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신 것은 1882년이었으며 그 때 이 후로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는 보장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최근 제가 번민에 싸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그대를 위하여 내 종 W. C. 화잇을 주었다. 그대에게 조력자가 되도록 나는 그에게 판단력을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도록 재능과 이해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1기별, 55)

“우리의 목회자들 중 어떤 이들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한 분의 개체라는 주장과 논증들은 나를 난감하게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슬프게 하였다. 한 인기 있는 교사는 ‘우리는 그분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일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Letter, W. C. White to H. W. Carr, April 30, 1935)

-엘렌 화잇의 두 아들은 마지막 숨질 때까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았었다. 1930년대쯤 삼위일체에 대한 논란이 교단 내에 있을 때에 어느 형제가 그녀의 아들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하였다. 그 때 엘렌 화잇의 아들 윌리엄 화잇은 본인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소유한 영으로 믿는다고 대답하였다.⁶⁾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⁶⁾ Letter by W. C. White to H. W. Carr, April 30, 1935

아사 테일 - Asa Oscar Tait (1858 -1941) (목사, 행정가, 영문 시조 편집장):

“그분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영원부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자도 되셨다.”(Signs of the Times, April 8th 1930)



밀튼 윌콕스 - Milton C. Wilcox (1853 - 1935) (목사, 영문 시조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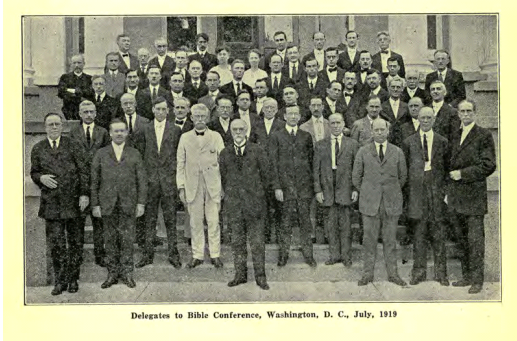
“질문 187: 성령과 부리는 영인 천사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답: 성령은 신성의 강력한 에너지로써, 그분으로부터 온 우주 모든 부분에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다. 어떤 이가 표현한 것 같이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생명의 호흡이다. 영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편재하도록 만든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구체화 되지만 절대로 따로 분리된 개체로 계시되지 않는다. 성령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없다.”(영문 시조 질문 코너에 등장하였던 질문과 답변) (Answers gathered from the Question Corner Department of the Signs of the Times, pages 181, 182)

8. 교단 내에서의 반대의 목소리

1919년 성경 총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들



1919년 성경 총회 참석자들

엘렌 화잇이 서거한지 4년 후가 되는 1919년 7월에 워싱턴 D.C. 타코마 파크에서 비밀 성경 총회가 열렸다.

성경 총회가 제칠일 재림교회에서 처음 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 총회는 과거의 총회

들과 달랐는데 그 이유는 교단 내 고위직의 교육기들과, 편집인들 혹은 행정가들이나 지도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비밀 성경 총회였기 때문이다.⁷⁾ 비밀 총회라고 불린 또 하나의 이유는 총회가 끝날 때 즈음 대표자들은 속기사들이 열심히 기록한 그들의 토론 내용을 일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토론 내용들은 다니엘스 대총회장의 요청 아래 아예 기록이 되지 않았다.^{8) 9)}

다음은 성경 총회에 대한 다니엘스 대총회장의 고백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심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동의해야 할 신조를 우리가 편성할까 봐 의아해 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매우 불안해한다.” (A. G. Daniells. Notes on the discussions of the 1919 Bible Conference and

7) Michael W. Campbell, Adventist Review, January 28th 2010, ‘Sifting Through the Past’

8) 1919 Bible Conference transcript, July 2, 1919, afternoon discussions, 58.

9)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7/1 (Spring 2006): p. 132. article by Merlin D. Burt

Teachers, July 1st 1919, page 11)

슬프게도 속기사들이 성실히 기록한 성경 총회 토론 내용들은 삼위 일체 교리가 교단 내에서 더 굳건히 자리 잡은 55년 후인 1974년 도널드 요스트 박사(Dr. Donald Yost)에 의하여 SDA 대총회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10) 11)}

공개된 내용을 보면 토론 주제들 중 몇 개는 프레스콜 목사의 아침 강목이었던 “그리스도의 개성”과, “다니엘서 8장의 ‘매일’, 다니엘서 11장의 해석과 북방 왕, 성소 교리, 등등...이 있었다. 프레스콜 목사가 ‘그리스도의 개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한 각 대표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음을 남겨진 기록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¹²⁾ 강의 중 프레스콜 목사는 SDA 교단이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쳤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는데 SDA 교단이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음을 본서 134쪽(리뷰지 문답 코너에 나타난 삼위일체 교리 반대 증거 자료)에서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프레스콜 목사의 발표 내용에 관하여 발언한 여러 대표자들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모아 보았다.

1919년 7월 2일 - 프레스콜의 아침 강의 후 대표자들과의 토론 내용 중 일부

C. P. 볼먼 (C. P. Bollman)(삼위일체 반대 지도자):

(프레스콜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정의함에 있어서 신약 밖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볼먼은 프레스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한 삼위일체적인 용어들을 두고 하는 말임.

10) Donald E. Mansell, “How the 1919 Bible Conference Transcript Was Found,” Unpublished Paper, Ellen G. White Estate Document File, July 6, 1975.

11) <http://spectrummagazine.org/blog/2010/02/19/reviewing-review-1919-bible-conference-edition>

12) <http://documents.adventistarchives.org/Resources/1919BC/>

C. P. 볼먼 (C. P. Bollman)(삼위일체 반대 지도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 밖으로 멀리 가서 그분께서 아버지와 영원히 공존하셨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리고 그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왜 아리안주의라고 해야 합니까?”

C. P. 볼먼 (C. P. Bollman)(삼위일체 반대 지도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영원의 어느 한 시점에서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어떤 부분을 아들이 되도록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관한한 그분의 아버지처럼 영원하시지만, 영원히 따로 공존하는 존재를 가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에(본문 공백)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아리안주의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19년 7월 6일-프레스콜의 강의 후 대표자들과의 또 다른 토론 내용 중 일부

L. L. 캐비네스 (L. L. Caviness) (삼위일체 반대 지도자): “나는 이 토론 중 많은 부분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이 우리가 소위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신성에는 세 위격이 있고 항상 존재했다고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소위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교리라면 나는 그것과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 요한복음을 내가 어제 읽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지 않는 한 나는 그 교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주장들은 그분의 아들 신분에 근거하는 것이며,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분의 아들 신분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성의 두 분 - 아버지와 아들께서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또한 아버지도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자주: 캐비네스 [Caviness]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삼위일체주의의 시각에서는 세 위

격이 항상 동일하고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취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원 전 어느 한 시점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느 시점에 그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셔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위 세 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존 아이작 (John Isaac): “우리 성경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한 학교에서 성경 교사들이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학교에 가면 다른 교사는 저것과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명백하게 진술된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것입니까? 아십니까? 또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위의 대표자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경 총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영원 전에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실체가 아니고 역할뿐이라고 주장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맞서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중요한 서적의 내용을 개정 삭제하려는 시도

이 총회에서 프레스콧 목사는 그동안 SDA 교단에서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 해석에서 표준이 되고 권위 있는 서적으로 알려졌고 엘렌 화잇이 높이 평가하고 판매하라고 하였던 우라이야 스미스의 책 ‘다니엘과 계시록에 관한 사상’에 담긴 반 삼위일체적인 표현 문구들이 아리안주의와 오류라고 공격하면서 이것을 배포하기를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이런 주장 때문에 1944-46년 사이에 저자의 허락도 없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관한 사상’에서 반 삼위일체적인 문구들을 삭제하는 일이 교단 내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이 일의 발단은 프레스크롤 목사와 다니엘스 대총회장의 소행이었는데 기별자 엘렌 화잇은 그녀가 생존하던 당시(1910)에도 이 두 지도자가 이런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였던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다.

엘렌 화잇 기별자의 경고 내용을 10원고 363-365 쪽에서 볼 수 있다.

“나는 그대들 둘 다 하나님 앞에 그대들의 마음을 낮추라는 기별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프레스크롤 목사나 다니엘스 목사는 대총회의 사업을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어떤 점들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불명예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향한 고상하고 순결한 헌신이 그대들의 자리에 놓인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이런 사람은 다니엘이었는데, 그는 정부의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청렴하고 거룩한 목적을 지속하였다. 이런 인물들이 지금 필요하다.” (10MR 362.3)

“나는 그대들 중 누구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명백한 영적 안목으로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대들은 현혹시키는 의견들을 표명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10MR 363.1)

SDA 책자들의 일반적인 개정에 관한 경고 (A. G. Daniells 에게)--
“나는 프레스크롤과 다니엘스 목사들이 수년 동안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우리의 책자들을 일반적으로 수정하는 임무를 맡으면 사탄이 심히 기뻐할 것을 보았다. 그대들 중 누구도 그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만일 그대들이 이런 사업에 착수한다면 회개치 않는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쓰여야 할 많은 시간이 사용될 것이다…….

만일 지금 우리들이 우리의 출판된 서적들과 소책자들의 정확성에

¹³⁾ (W. W. Prescott, Notes on the discussions of the 1919 Bible Conference and Teachers Meeting held at Takoma Park, Washington D.C. July 2nd)

대하여 의심의 씨앗들을 심고 뿌리며 우리의 출판된 책들에 일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사업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만일 부정확성에 대한 한 개의 시사라도 공개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들로 하여금 결함과 실수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는 그들의 행동 노선을 옹호하게 할 것이다. 어떤 정신들에게는 이런 생각의 경로로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의심과 불신의 수확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이 책자를 개정하는 일을 떠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경 진리를 제시하는 일에 그대들의 모든 지력을 전념하라고 권고할 것을 명령 받았다. 만일 그대와 프레스콜 형제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 반신반의와 불신의 씨앗을 심고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 대한 무서운 책임을 그대들에게 추궁하실 것이다.

밤중에 나는 사람들이 비평하려는 무엇을 찾으려고 우리의 출판된 서적들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원수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정신에 암시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지혜롭지 못한 비평의 자연적인 결과는 우리의 대열에 불신을 가져올 것이다.” (10MR 364-366)

-하나님께서서는 엘렌 화잇이 살아계신 동안(1910)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지 않은 중요한 서적의 수정 사업을 행하려는 조짐을 보인 이 두 지도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강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런데 엘렌 화잇이 돌아가신 지 불과 4년만인 1919년 7월에 이 비밀 성경 총회에서 이 두 지도자의 고취 아래 이런 무서운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특히 프레스콜 목사와 다니엘스 대총회장이 그 주역이 되었고 그 때부터 삼위일체 교리는 차츰 차츰 SDA 교단 안으로 확고하게 발을 들여 놓기 시작하여 1931년에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최초의 성명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있었던 삼위일체 반대자들의 목소리

1960년에 프롬 목사는 O. H. 크리스텐슨(Dr. O. H. Christenson)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로 그의 책 '보혜사의 오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나의 책, ‘보혜사의 오심’은 1927-1928년 사이에 북미 연합 목회자 연구회에서 강연한 연구 시리즈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개성을 신성의 세 번째 분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몇몇 고참자들이 얼마나 강력히 반대하였는지 그대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반대하였고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Letter of LeRoy Froom to Dr. Otto H. Christenson, October 27, 1960)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SDA 은퇴 목사 알란 로버트슨(Allan Robertson)은 몇 년 전에 리뷰지에 삼위일체에 대한 기사를 기고하였다. 그의 기사에 따르면 과거에 그는 1963부터 1967년 사이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몇 교회들에서 시무하였는데 그가 시무하던 프린스 조지(Prince George)교회에 출석하던 한 고령 성도인 그레이스 다위(Grace Dowy)는 자주 그에게 “제칠일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었다”고 상기시켜 주었음을 회고하였다.¹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이어진 반대의 목소리들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도 제칠일 재림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론을 고수하던 몇 성도들은 소위 제칠일 재림교회의 원래 신앙을 회복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독립기관 지도자들에게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낸 기록들이 남아 있다.

¹⁴⁾ <http://archives.adventistreview.org/issue.php?id=947&action=print>

Dear Elder Wieland:

Praise the Lord, He is so good to us.

In your letter to me you wrote, "I would be grateful for any help you could give me on the subject you refer to of the trinity." I interpret your request, that you wanted me to give to you what I know about the Trini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Scriptures and the writings of Mrs. White, which is different from setting forth its development from heathenism into the Papacy and Protestantism. The information that I have been able to obtain by several years of investigation, gives me the impression, based on conscience and reason, that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s anti-Biblical, and anti-Christian. A well known historian and theologian in the Catholic Church wrote an article in the Life magazine of Oct. 1950 A.D. and said, "The Protestant church denies the doctrine of the Assumption of Mary, and other of our churches teaching saying, that nothing can be found in the Bible to support such teaching, yet they adopt and defend the doctrine of the Blessed Trinity which cannot be proven by the Bible."

At an Ohio ~~conv~~ meeting, I asked a former Union Conference President if our church believed and taught the trinity like the Catholic Church. He said no, they teach One God in three co-equal, co-eval persons. Our church teaches three Gods in three co-equal individual persons in unity. This answer startled me; for the first time I heard a good leader say no trinitarianism, but tritheism. From my knowledge of the Bible I felt sure that it did not teach tritheism. I honestly confess that I am unable to grasp the doctrine of tritheism. My mind can see no light in three Gods in three persons in unity. I feel that you can detect this in my letter that I sent you.

Since my union President informed me as he did; I have learned that from the time following the death of the Apostles, to the organizing of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the truth about God was hidden by the enforced doctrine of the Trinity. It has been the gift of prophecy that has brought the truth to light, out of scripture.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is the only one in all the world, where the truth of God can be found. And it is not Trinitarianism nor Tritheism.

In my first letter every statement of Mrs. White was in harmony with the Bible which teaches only One true God.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Mark 12:29.

평신도 George Grow 가 Wieland 목사에게 보낸 편지 복사 사진

1990년대와 2000년 이후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진지한 자녀들을 지도하시어 세천사 기별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중이시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이후로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의 보급과 왕래가 빨라지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와 제칠일 재림교회 역사에 관한 사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서 세 천사 기별의 참 뜻을 아는 백성들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며 진리는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9. 극단적인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이유

제칠일 재림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1950년대까지 제칠일 재림교회는 개신교에 의해서 극단적인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안식일, 반 삼위 일체, 영혼 멸절설, 성소, 속죄 사업, 등등의 교리에서 개신교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월터 마르틴(Walter Martin)¹⁵⁾이라는 개신교 목사가 제칠일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지목 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그리고 1955년에 마르틴은 다른 개신교 목사들과 함께 제칠일 재림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¹⁶⁾

왜냐하면 이들은 재림교 선구자들과 엘렌 화잇의 글들에서 반 삼위 일체적인 사상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때 지도자들은 재림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뿐 아니라 다른 핵심적인 교리들도 개신교단들과 동일하다고 대답하였다. 이 때 마르틴 목사는 삼위일체 반대 사상이 들어 있는 제칠일 재림교회 출판물들(엘렌 화잇의 글을 포함한 약 3미터 정도의 책들)을 재림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들을 검토한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출판물들은 정통적인 재림교회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대답하였다.¹⁷⁾

1957년에 제칠일 재림교회는 삼위일체교리를 옹호하므로 더 이상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개신교단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제칠일 재림교회의 교리에 대한 질의응답(QOD: Questions on Doctrine)’을 리로이 프롬(Le Roy Edwin Froom), 월터 리드(Walter E. Read), 로이 알란 앤더슨(Roy Allan Anderson)이 주축이 되어 개신교단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책을 출간하였다. 이단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줄이기 위해 일

¹⁵⁾ en.wikipedia.org/wiki/Walter_Martin

¹⁶⁾ Adventist Review, September 8, 1983, p. 4

¹⁷⁾ Walter Martin, videotape conference at Campus Hill Church in Loma Linda, California, January 26, 1989

반 개신 교회들처럼 삼위일체 교리(QOD 22p.)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므로 이 발표 이후부터는 빌리 그래햄 전도회에 제칠일 재림교단도 점차적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개신교 단체의 목사들은 제칠일 재림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최악의 이단은 아니지만, 성소기별, 안식일, 대속죄일, 예수님을 미가엘로 인정한다는 점 등에서 아직도 정통이 아닌 이단이라고 하였다.

그 후 마르틴 목사는 재림교회 리뷰지의 편집장인 윌리엄 존슨 목사와 1985년 1월에 TV 공개 토론회를 열었을 때 엘렌 화잇이 거짓 선지자라고 강력 주장하였다.¹⁸⁾ 그리고 존슨 목사에게 반 삼위일체 사상이 담긴 엘렌 화잇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그런 분이 참 선지자일 수 있느냐고 공격하였다. 이 때 마르틴 목사는 이 문구가 처음 원고에서 삭제되어(expunged)버린 사실까지도 언급하였다. 그는 계속 하여 말하기를 엘렌 화잇이 그 글을 썼을 당시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예’ 아니면 ‘아니요’ 라는 대답만 할 것을 계속 강요하였다. 존슨 목사는 대답을 피하다가 ‘그런 글을 썼을 당시는 거짓 선지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10.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

“만일 대부분의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해 28개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 대부분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28개 기본 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제2번 교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어찌 우리 잇으랴 p.288 (10월 9일) 죠지 나이트 저)

“1931년에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기본 교리로 인정하는 최초의

¹⁸⁾ John Ankerberg Show, Martin vs. Johnsson debate (YouTube: 1-3 Seventh Day Adventist -vs- Christianity - DEBATE)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모든 재림신도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어찌 우리 잇으랴 p.294 (10월 12일) 조지 나이트 저)

조지 나이트는 제칠일 재림교 창시자들의 대부분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인정은 하면서 오늘날 제칠일 재림교단이 삼위일체교리를 받아들이게 된 경로를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시켜 버렸다.

그러나 그 내면의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의 대부분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1. 십계명에 위배된다

첫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3)

-나(여호와 하나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요 17:3)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주어졌다. (출 23:21, 히 1:4) 그러므로 예수님께도 그 이름이 적용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그러므로 우리는 두 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계 5:13). 그러나 삼위일체교리는 두 분이 아닌 세 분을 경배하므로 첫 번째 계명에 위배된다.

둘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

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4~6절)

-금과 은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사상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신(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둘째 계명에 위배된다. 철학적 우상 (5증언 174, 쟁투 584, 겔 14:4 참조)

셋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출 20:7)

-존재하지 않는 신(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됨.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날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8-12) (신 5:15)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창조주와 구속주를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히 1:2) 또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두 분께서만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계 5:13) 세 분에게 헛되이 경배하므로 넷째 계명에 위배된다.

2. 세 천사 기별을 왜곡시킴

계 14:6-12 절에는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대한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이 기록 되었다.

첫째 천사(계 14: 6-7절)의 기별 가운데 영원한 복음이 포함되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께서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두 분의 희생이 아닌 세 분의 희생으로 둔갑시켜 다른 복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그들을 존경해야 하지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요 17:3)를 두려워하며 그분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요청이 있다. 두 분께서 창조(히 1:2)하셨으므로 두 분께서만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경배의 대상이 세 존재가 되었다. 또한 조사 심판이 언급되어 있다. 단 7:10-14절에 의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유일하신 참 하나님)와 “인자 같은 이”(예수 그리스도)가 조사 심판에 관련되어 있다.

둘째 천사(계 14:8 절)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한다. 모든 비 성서적인 거짓교리들(삼위일체 교리, 일요일 신성설, 영혼 불멸설, 연옥설, 죽은 자 승배…… 등)이 무너졌음을 지적한다.

셋째 천사(계 14:9-12)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 것과 그의 표를 받지 말 것을 당부 한다. 여기서 짐승은 왕국, 정권 혹은 정치 세력(단 7:23)을 의미한다. 이 짐승은 종교와 정치 세력을 힘입어서 성경 상 근거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요일에 경배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계 13장 참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계 16장)이 임할 것이다. 이 진노의 일곱 재앙은 과거의 어떠한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무서운 재앙들이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3. 다른 예수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 11:4)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에게는 뛰어난 지위가 제공되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그분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다.”(8증언, 268)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 1:1-3, 14, 18; 3:16; 갈 4:4, 롬 8:32, 잠 8:24,25)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세 하나님이 다 같다고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뿐이며 친 부자 관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친 아들 되심을 부인할 뿐 아니라 친 부자 관계를 부인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9-12)

4. 다른 영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 11:4)

-하나님은 기록하시므로 그분의 영도 기록하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또 다른 개체의 “성령 하나님”으로 지칭

하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되어 버렸다.

5. 다른 복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후 11: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9-10)

-참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무한하신 희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무궁한 사랑을 포함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세 하나님이 동등하고 예수님은 그 세 분 중의 한 분으로서 단지 아들의 역할뿐이라 하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참된 사랑의 가치를 내어 던져 버렸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실을 왜곡시키므로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다.

6. 참된 구속의 경륜(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두 분이 아닌 세 분으로 둔갑시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슥 6:13)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

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소망, 834)

7. 혼란스러운 관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4)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3)

-그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성령을 잘못 이해했을 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영으로 함께하시는 두 분이 아닌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

8.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분에 혼란을 일으킴

눅 1:3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성령이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9. 속죄의 가치를 저하시킴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죽음을 부인하고 다만 인성만이 죽었다고 하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다만 인간의 희생 제물로만 격하된 것이다.

10.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일 5:10)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성경절들이 많이 있다. (요 3:16, 롬 8:32, 갈 4:4, 요일 4:9, 15 등등…….) 그 이외의 수많은 성경 절들은 두 분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11.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도외시된 격이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무능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이 없으신 분들로 만든다.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고, 무소부재(無所不在-편재)하다. (창 1:2, 시 139:7, 렘 23:23, 24, 눅 1:35, 요 6:63, 계 5:6……).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께 돌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외시된 격이 되었다.

12. 성경에 기원을 두지 아니하고 이교의 신화에 기원을 둠

이교의 신화는 루시퍼(사탄)의 타락에 기원을 두고 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루시퍼)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2-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겔 28:14-1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꺾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7-9)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고후 11:14)

-피조물인 루시퍼는 자기 보좌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하나님께만 속한 경배를 탐내다가 이 지구로 쫓겨났으므로 이 땅에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빙자하여 경배를 받고 있다.

13. 삼위일체교리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의 친 아들 되심을 부인할 뿐 아니라 친 부자 관계를 부인하므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일 2:22)

14. 회의론자

삼위일체 교리를 믿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회의론자가 되어 버린다.

15. 이원론: 철학의 근원 - 영과 육을 분리시킨 교리

영과 육을 분리시킨 교리가 영혼불멸설이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는 영과 육을 분리시킨 교리이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없는 분들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교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철학의 근원은 이원론이기 때문이다. 즉, 영과 육을 분리시킨 것이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 (Handbook for Today's Catholic p. 11)

결론: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의 대부분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삼위일체신을 경배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삼위일체교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관한 1-4계명과 세 천사 기별에 정반대임을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제 4부

교회

1.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 그리스도의 신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함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5 -18)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소망, 412)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소망, 413)

마귀가 시험한 내용: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 4:1-3)

십자가 사형 이유: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마 26:63-66)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 5:18)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거대한 성당도 아니고 국가적인 체제도 아니며 여러 교파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몇 사람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하늘, 315)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두 셋만 있으면** 그곳이 비록 세상의 외진 곳이나 황야, 혹은 성벽으로 둘러 쳐진 감옥이라 할 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벽을 뚫고 들어가 영광의 하늘 빛줄기를 가장 어두운 지하 감옥에까지 가득 채운다.”- 원고 108, 1886. 10. 28 (하늘, 315)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보화, 신비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을 대표할 매개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

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매개자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은 없다.” (행적, 600)

남은 교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사 4: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 2:3)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세상을 그의 백성으로 헤아리고, 배교한 교회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그의 패권을 거역하는 하나의 작은 무리가 여기에 있다. 만일 그가 지상에서 그들을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교의 국가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지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

법을 어기고 인간의 법령에 순종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의무에 대하여 진실한 자들은 헐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추방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눅 21:16)에게 배반당할 것이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 51:7, 8, 6)” (9증언, 230-231)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의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칭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벗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할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2 기별, 380-381)

남은 교회 =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 율법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남아 있는 자 = 하나의 작은 무리=하나님의 백성 =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의무에 대하여 진실한 자들 = 의를 아는 자들 =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 = 그리스도의 의의 옷(품성, 영, 마음)을 입은 자들 = 그 여자의 남은 자손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 성도들 =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 결코 쓰러지지 않을 교회

2. 바벨론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할 교회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 날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시대에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서 견책과 경

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세상은 하나의 일터인데 이 안에서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협력함을 통해 예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신성한 자비로써 인간의 마음에 실험을 하고 계신다. 천사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이들 속에 일어난 품성의 변화를 바라볼 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환희에 넘치는 찬송을 드림으로 기쁨을 표현한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들이 회심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본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이 사악하고 비뚤어진 세대의 도덕적 밤을 밝히는 빛들이 되는 것을 본다. 천사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해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후에 그분과 함께 저 위의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며,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질 세상에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도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신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선물을 풍부하게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끊임없이 주어짐으로 세상에서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현재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의력이 교회를 향해 환기시키며 그를 바벨론이라고 정죄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인물은 형제들의 참소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 관하여 사탄이 세상에 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감정을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가능할까? 오류의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그대의 열성을 충족시켜 주기에 족한 사업이 있지 않은가? 자금과 재능을 위탁받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이로서 그대는 그대의 주님의 소유를 오류를 유포하는 일에 잘못 사용해왔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구속력이 있다고 선포하는 이들에 관해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투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 그들의 무기를 돌려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온 힘을 합쳐 악의 동맹체에 맞서 싸울 것이다.” (목사, 49-50)

1844년의 시련기 이후에 오랜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에 짓밟혀진 율법이 회복되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형성되었다. 1860년까지 그들에게 교회의 명칭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타락한 기독교의 다른 신(삼위일체신)을 경배하는 대신에 성경의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셨다. 1860년에 ‘제칠일 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ts)’라는 명칭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교회는 천주교회나 일반 개신교회들처럼 삼위일체교리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진 구별된 백성이었고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교회였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1931년까지 제칠일 재림교회는 삼위일체신을 경배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었다. 그래서 그 교회, 즉 삼위일체신을 경배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던 교회를 바벨론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엘렌 화잇 기별자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삼위일체신을 경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녀가 1915년에 잠드신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일반 개신교처럼 변하게 되었으며 1931년부터 삼위일체교리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 삼위일체교리를 제칠일 재림교회의 기본교리로 공식 채택함으로써 그 교단은 더 이상 창조주 되신 참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진 구별된 백성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현재의 제칠일 재림교회는 천주교회나 일반 개신교회들처럼 삼위일체교리를 믿고 삼위일체신을 경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제칠일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사명에서 빛나가게 되었고 명목상의(이름뿐인) 재림교회가¹⁹⁾ 된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애통할 사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 그 파괴된 곳(하나님의 계명)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할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계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할 교회**는 삼위일체교리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졌던 초창기 제칠일 재림교회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제시하며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사람들이다.

성전을 두 번 깨끗케 하심: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일 곱 금 촛대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

19) 초기문집 33쪽과 261쪽 참조

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 5)고 말씀하셨다.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끈 솟아 새로운 활동을 일으켜 왔다. (1기별, 387)

“예수님께서서는 공중 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을 신성 모독의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또한 주님의 마지막 봉사의 행위으로써 성전을 두번째로 깨끗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것처럼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도 당신의 교회에게 두 번에 걸친 뚜렷한 부르심을 보내셨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계 14:8)라는 것이었다.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계 18:4, 5)셨다고 하였다고 하였다(RH, 1892. 12. 6).” (2기별, 118)

3. 제칠일 재림교회가 세워진 이유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병(把守兵)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9 증언, 19)

이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8증언, 27)

세 천사의 기별은 변경될 수 없음: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초기 258)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여러 설명들이 많이 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잘못 적용하고 기독교 역사와 제칠일 재림교 역사에 대하여 무지하든지 잘못 알기 때문인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한다면 그 기별의 요지를 알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깊은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기별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4. 세 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

1) 첫째 천사의 기별 (계 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6-7)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람들은 법왕의 제도를 존중하였으며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은 증가하여야만 하였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바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2기별, 106)

영원한 복음(구속의 경륜 = 구속의 계획)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속 6:13)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 3: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춰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6-27)

구속의 계획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세우신 계획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복음이 되고, 죄가 들어 온 후에도 복음이 되며, 죄가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복음이 될 것이다. 죄를 지은 인류의 죄 값을 담당할 뿐 아니라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무한한 희생(사랑)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인 것이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복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만 구속의 계획과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두 분께서만 모든 지적 존재들의 애정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사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특히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삼위일체 교리가 오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님을 밝혀준다. 또한 삼위일체 교

리는 다른 복음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롬 15:6)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엡 1:3)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전 8:6)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3).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전자(保全者)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부조, 305)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만이 창조 사역에 관련됨)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2-3)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

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6)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 분만을 경배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삼위일체 경배가 틀렸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시 33:6)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 33:9)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경배와 영광돌림: 경배 문제 (몇 분을 경배 할 것인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계 5:13)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10)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계 22:1, 3)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

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 28:9).” (쟁투, 43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원고 16, 1890).” (화잇주석, 계 14:7-8)

심판하실 시간: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단 7:10)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3)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 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단 8:14)

(이천 삼백 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조사심판이 시작됨)

2) 둘째 천사의 기별(계 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 14:8)

큰 성 바벨론: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효의 교파로 나뉘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알맞다. 세상과 더불어 죄악적인 연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로마교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낸다.” (쟁투, 383)

진노의 포도주=거짓 교리들: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쟁투 488)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

천주교의 핵심 기둥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 일요일 신성설, 영혼 불멸설, 영원 지옥설, 죽은 자 승배, 화체설, 세례, 등등.....

3) 셋째 천사의 기별(계 14:9-12)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9-12)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셋째 천사 기별의 중대성은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제공된 마지막 자비의 호소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기별이다.” (ST, January 25, 1910 par. 15)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는데 곧 우리가 마지막 큰 시험에 다가갈수록 그 세력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로 내포되어있는 기별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를 뒤따르는 셋째 천사 기별이다.” (9MR 291.1)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예언은 첫째 천사가 그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다. 삼중 기별의 한 부분인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그것과 같은 범위로 전파되어야 한다.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파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쟁투, 449-450)

“이 기별은 앞의 두 기별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큰 목소리로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모든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셋째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이 기별을 통하여 받는 인상은 이것을 반포할 때 진지함과 엄숙성에 비례할 것이다.” {7BC 980.3} (MS 16, 1900)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 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또 없다. 얼마나 큰 신임인가! 은혜스런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5증언, 206-207)

“셋째 천사의 기별—죽어가는 세상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

은 매우 신성하며 매우 영광스럽다. 등불이 타서 비추듯이 진리가 전진하게 하라. 천사들이 주목하기 바라던 신비들, 선지자들과, 왕과 의인들이 알기 바라던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낼 것이다.” (RH, April 22, 1909 par. 16)

“현대진리, 우리 지구를 위한 특별한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대한 분야를 함축하고 있으며 하늘의 보화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이 특별한 기별들과 아무 관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다”라고 변명 할 수 없다. 이처럼 중대한 사태가 진행되어 가는 시기에 아무도 현재 다가올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없다.” (VSS 325.2)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RH, 1890.5.27)

“현대 진리는 우리의 부담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켜 내는 일을 해야 한다.” (6증언, 61)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깨끗케 한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인간 도구가 자아에 관한 스스로의 중요한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늘의 우주가 보는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때, 그의 경건은 달콤하고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맡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능력이다. 그러나 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이며 영혼의 파멸이다.” (2설교, 131)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목사, 410)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져야 할

기별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졌어야만 한다. 대개 그 기별의 첫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여 왔으며 마지막 부분은 이따금 생각하여 왔다. 예수의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기도해야만 하며 기별의 이 부분을 그들의 가정생활에 적용하도록 백성을 교훈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3기별, 184)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주어진 기별의 진리의 기반위에 지금 서야한다…. 누구에게나 유일한 소망은 의로움 가운데서 확립된 진리의 증거들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것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반복되게 하라.” (Manuscript 61, 1906, p. 3)

짐승과 그의 우상: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왕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쟁투 433)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쟁투 446)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대신에 로마 천주교와 타락한 개신교의 압력에 의해 국가가 제정한 법령(일요일 휴업령)에 굴복할 것임을 의미한다.

짐승의 표: 거짓 안식일(일요일)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원고 51, 1899년)

“시험이 올 때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 이 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한 죄악의 사람의 인을 받는 것이다.” (7BC 980.9)

“주일 중 첫날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 (7BC 979.11)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지막 칠재앙(계16장)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칠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초기 289)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출 20:1-17, 신 5:6-21)

예수 믿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짐진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3기별, 172)

5. 과거에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진리

“태초에 진리였던 것이 오늘에도 진리이다. 비록 그 후세대들에 알맞은 새롭고도 중요한 진리들이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기는 하였을지라도 현재의 계시는 과거의 것들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이해된 새로운 진리마다 옛 진리를 좀 더 의미심장하게 할 따름이다.” (RH, March 2, 1886 par. 6)

“옛 이정표를 옮기고자 하는 자들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였고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성소와 하나님의 개성 혹은 그리스도의 개성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옮길 이론들을 도입하고자 시도하는 자들은 장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확실 가운데 두고 닳 없이 표류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MR760 9.5)

“진리는 진리이며 진리로 남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다.” (RH, December 28, 1897)

과거에 출판된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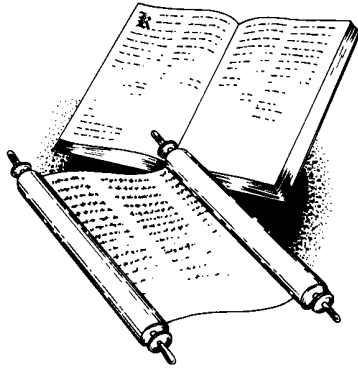
“나는 지금 한번 출판된 진리가 오랫동안 증거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 진리가 마지막 시대를 위한 것이며 이후에 그 위에 다시 첨가할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책자의 내용을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단어를 나열할 필요는 없다. 진리는 곧고 단순하고 명확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담하게 옹호할 것이다. 오류는 그렇지 않다. 오류는 왜곡된 사실을 변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단어를 모아 빌빌 꼬아 놓는다. 어떤 지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쇄물을 통하여 빛을 받고 진리를 깨달았으며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지금 몇몇 신자가 있는 곳에 일찍이 이 침묵의 사자가 있어서 그들을 굳게 일으켜 세웠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유일한 설교자였다.” (초기, 96)

“주님의 인도하심은 뚜렷하였으며 진리인 당신의 계시들은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차례로 확립되었다. 그 때에 진리였던 것은 오늘날에도 진
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다. 나는 새 빛을 받았다”는 음성은 아
직도 그치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예언적인 문제에 따르는 새로운 빛
들이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닳이 없
어 표류하는 배처럼 부동(浮動)시키는 일을 함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
고 있다.** 만약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
하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내신 진리들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아
소화하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긴다면 저들은 **빛의 산 통로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와 오류가 혼합된 새로운 이론들을** 구상해
내며 이러한 것들을 뚜렷하게 내세우려고 스스로 결심한 자들은 거룩
한 제단에서 불을 당겨 등불에 불을 붙이지 않았으므로 **깜깜하게 꺼
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원고 31, 1896).” (2기별, 104)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
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
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 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
두 선포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긴요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예
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2기별, 104-105)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30)

제 5부

곡해된 예언의 신

1. ‘신성의 삼위’인가 아니면 ‘신성의 삼인칭’인가

“In describing to His disciples the office work of the Holy Spirit, Jesus sought to inspire them with the joy and hope that inspired His own heart. He rejoiced because of the abundant help He had provided for His church. The Holy Spirit was the highest of all gifts that He could solicit from His Father for the exaltation of His people. The Spirit was to be given as a regenerating agent, and without this the sacrifice of Christ would have been of no avail. The power of evil had been strengthening for centuries, and the submission of men to this satanic captivity was amazing. Sin could be resisted and overcome only through the mighty agency of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who would come with no modified energy, but in the fullness of divine power. It is the Spirit that makes effectual what has been wrought out by the world's Redeemer. It is by the Spirit that the heart is made pure. Through the Spirit the believer becomes a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Christ has given His Spirit as a divine power to overcome all hereditary and cultivated tendencies to evil, and to impress His own character upon His church.” (DA 671.2)

올바른 번역: “성령의 직무를 그분의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시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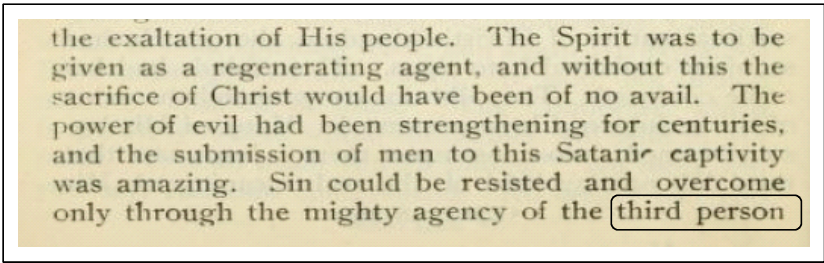
여 **그분의**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최상의 선물이었다.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삼인칭(혹은 세번째)**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순결하게 된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그분 자신의 품성을 그분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그분의 영**을 주셨다.” (소망, 671)

시조사 번역: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시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 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 삼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소망, 671)

-이렇게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에 흑자는 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엘렌 화잇은 그녀의 100,000쪽이 넘는 저술들에서 단 한번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어느 언어든지 한 단어 혹은 문구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영어도 예외는 아니다. 영어로 삼위를 뜻할 때에는 ‘Third Person’으로서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러나 엘렌 화잇은 1898년판 ‘시대의 소망’에서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기록하였다. 그녀가 잠드신 후에 출판 관리 위원회가 이것을 삼위일체처럼 보이도록 대문자로 수정하였다. 영영 사전이나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소문자 ‘third person’은 ‘삼인칭’ 혹은 ‘제삼자’를 뜻한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삼인칭 표현법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



1898년판 시대의 소망 확인 사진

신성의 삼인칭 (third person):

1. 사전에서

【문법】 제3인칭, 제3자

영한 사전이나 영영 사전을 보면 ‘third person’은 제3자나 삼인칭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라고 표현하여 제 삼자로 나타내는 어법도 있다.

2. 예수님에 관한 이해

1)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주 삼인칭으로 표현하셨다.

삼인칭 표현법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요 4:10, 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요 9:37)

-위의 성경 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분인 것처럼 삼인칭 표현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 역시 고후 12:3절에서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였고 사도 요한도 요 19:26, 21:20절에서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영으로 임하시는 보혜사 예수님 자신을 삼인칭의 표현법으로 소개하셨다.

2)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신성의 세 번째 분이 되셨다.

☞ 신성의 첫 번째 분: 하나님 아버지

☞ 신성의 두 번째 분: 성육신 전에 신성만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 신성의 세 번째 분: 신성의 두 번째 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때에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셨으므로 신성의 세 번째 분이 되신 격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인성을 입으시기 전)에 신성의 두 분(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을 때에 신

성에다 인성을 입으셨다. 성육신 이후에는 신성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신성의 세 번째 분이 되신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신성의 두 분만 계신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는 신성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분의 육체(인간의 연약한 인성)안에 신성(하나님의 영)이 내재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성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위로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인성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면서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의 보혜사가 되실 수 있음을 여러 예언의 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부가 동료 과부의 심정과 입장을 동정할 수 있듯이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시고 위로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인성을 체험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죄를 승리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는 대언자로서 수고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분의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어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자(보혜사)와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화잇 여사는 ‘신성의 삼인칭’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셨다. 만약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의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예언의 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언의 신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로 죄를 이기게 도우실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성령을 그리스도와 분리된 또 다른 존재로 믿고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신성의 삼인칭’이라는 표현법은 적절한 것이지만 이것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면 그분께서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데 그분의 육체가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그리스도의 영)를 통해서만 죄를 이기고 모든 악한 성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2.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그리스도 자신의 영

“The Holy Spirit is Christ's representative, but divested of the personality of humanity, and independent thereof.” (DA 669.2)

잘못 번역 -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自主)하신다.~~” (소망, 669)

위의 잘못된 번역만을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제대로 번역 -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이나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렸으므로 자유롭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서 그분의 후임으로 영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소망, 669)

“The Holy Spirit is Christ's representative, but divested of the personality of humanity, and independent thereof. Cumbered with humanity, Christ could not be in every place personally. Therefore it was for their interest that He should go to the Father, and send the Spirit to be His successor on earth. No one could then have any advantage because of his location or his personal contact with Christ. By the Spirit the Saviour would be accessible to all. In this sense He would be nearer to them than if He had not ascended on high.” (DA 669.2)

위 내용을 아래 출처에서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Cumbered with humanity, Christ could not be in every place personally; therefore it was altogether for their advantage that He should leave them, go to His father, and send the Holy Spirit to be His successor on earth. *The Holy Spirit is Himself* divested of the personality of humanity and independent thereof. *He would represent Himself as present in all places by His Holy Spirit*, as the Omnipresent. "But the Comforter, which is the Holy Ghos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shall (although unseen by you) [THIS PHRASE WAS ADDED BY ELLEN WHITE.]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all things to your remembrance, whatsoever I have said unto you" [John 14:26].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expedient for you that I go away: for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come not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 [John 16:7].” (14MR 23.3)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서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그분 자신이며 그러므로 자유롭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성령으로 모든 장소에 편재하시는 분이

로 나타낼 것이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안보일지라도) [이 문구는 엘렌 화잇에 의해 추가된 것]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14원고 23.3)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독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써 그들을 위로하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와 함께 거듭거듭 정죄를 받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에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계 1:18)라. 나를 위하여 희생한 생명은 영원한 영광 속에 보존된다.” (소망, 669.3)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보혜사가 보내신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소망, 669.4)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상 더 그대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엡 3:18, 19)을 것이다.”(소망, 670.1)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성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위로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인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지전능하고 편재하는 **그분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위로자(보혜사)가 되신다는 말씀이다.**

3. 마태복음 28장 19절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 엘렌 화잇은 그렇지 않았음을 그녀가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28:19절에 관한 엘렌 화잇의 주해(설명) - (괄호 안 - 화잇 부인의 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후에 그가 그분의 영을 보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개성을 가지신 왕자와 구세주 되신) 아들**

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RH, 1897. 10. 26)

“Christ gave his followers a positive promise that after his ascension he would send them His Spirit. "Go ye therefore", he said,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personal God)*, and of *the Son (personal prince and Savior)*, and of the *Holy Ghost (sent from heaven to represent Chris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 (RH, OCTOBER 26, 1897)

‘Personal God’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께만 적용하였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개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개체를 가지신 분이로서, 자신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히 1:3)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이다.” (교육, 131)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침례를 베풀었는가?

사도행전 2:38절에 첫 기록이 나온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침례를 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는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행 10:48).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한 무리를 보았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리라”(행 8:16).

위의 성경 절들을 볼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삼위일체의 가르침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베드로 이외에도 이렇게 이해한 또 다른 사도가 있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는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행 19:5).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에는 각각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제자들은 마 28:19절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가르치고 계셨더라면 그전에 하셨던 말씀들과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반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절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에베소서 4:6절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쓰여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신자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며(출 6:3), “미가엘, 예수님” 등은 아들의 이름(단 12:1; 계 12:7; 마 1:21)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도 성령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성경에서 ‘이름’은 품성, 혹은 특성을 의미한다. 야곱은 그의 품성이 변하였으므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태복음 28:19절에서 나오는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ὄνομα)인데 ‘이름’, ‘권위’, 혹은 ‘특성, 품성’을 뜻한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죄 지은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분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중이

시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2).

-이 절에서 왜 성령의 이름은 안 나와 있을까?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이외에 또 다른 분이 없기 때문이다.

4. 삼위일체, 세 분, 세 개성, 삼중주

삽입된 소제목 삼위일체(복음전도, 616)

원문출처: “The Lord Jesus described the difficulties they should meet. Having called their minds to rise to an eminence, He bids them behold the vast confederacy of evil arrayed *against God, against Christ*, against all who unite with these holy powers. Christ tells them they were to fight in fellowship with all the children of light; that satanic agencies would combine their forces to extinguish the light of the life of Christ out of their ranks. But they were not left to fight the battles in their own human strength. The angelic host coming as ministers of God would be in that battle. Also there would be the eternal heavenly dignitaries--God, and Christ, and the Holy Spirit--arming them with more than mortal energy, and would advance with them to the work, and convince the world of sin.” (16MR 204.4)

복음전도 616쪽은 위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The Eternal Dignitaries of the Trinity*~~--“The eternal heavenly dignitaries--God, and Christ, and the Holy Spirit--arming them [the disciples] with more than mortal energy, . . . would advance with them to

the work and convince the world of sin.--” (Ev 616.4)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전도, 616)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The Eternal Dignitaries of the Trinity)~~”가 소제목으로 삽입되었다. 또한 ‘삼위일체 (the Trinity)’가 추가 삽입 되었다. 여기 복음전도에서는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원문 출처 단락의 윗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번역하면 이와 같다:

“...그분(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며**, 이 거룩한 능력들과 연합한 모두를 대항한 악의 거대한 동맹체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신다.”

‘복음전도’는 엘렌 화잇이 돌아가신 이후인 1946년에 프롬(L.E. From)목사의 지도 아래 화잇 유산 출판 관리 위원회가 편집하여 출판한 책으로써 그녀의 글들의 어떤 문단들을 원래의 문맥에서 분리하고, “삼위일체”라는 소제목을 삽입하므로 엘렌 화잇이 마치 삼위일체를 옹호하였던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책이다.²⁰⁾ 이 책에는 좋은 글이 많이 있지만 원문에 없는 단어인 삼위일체가 삽입으로 들어왔다.

엘렌 화잇은 그녀의 글 가운데 한번도 “삼위일체(trinity)”, “삼위(triune)”,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God the Son)”, “성령 하나님(God the Holy Spirit)”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그러한 표현은 없다. 만약 엘렌 화잇이 성령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 “신성의 삼위”임을 암시하였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녀의 다른 글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성의 일위”, 예수님에 관하여는 “신성의 이위”로 서술한 문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영어)예언의 신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전혀 없다.

²⁰⁾ Letter from Leroy From to Roy Allen Anderson. Jan 18th, 1966

세 분, 세 개성, 세 큰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

The Comforter that Christ promised to send after He ascended to heaven, *is the Spirit* in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making manifest the power of divine grace to all who receive and believe in Christ as a personal Saviour. *There are three living person(alities) of the heavenly trio; in the name of these three great power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those who receive Christ by living faith are baptized, and these powers will co-operate with the obedient subjects of heaven in their efforts to live the new life in Christ.-- Special Testimonies, Series B, No. 7, pp. 62, 63. (1905)” (Ev 6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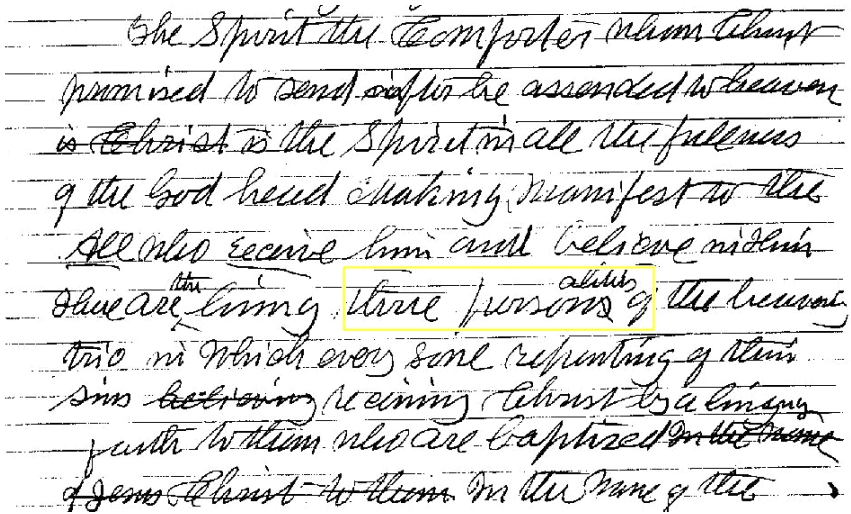
직역: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 있는 영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 하늘 삼중주에는 살아있는 세 개성이 있다. 이 위대한 세 능력들-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 능력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특별증언 B, No. 7. 62, 63 (1905)

시조사 편역: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양순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특별증언 B, No. 7. 62, 63 (1905)” (전도, 615)

-복음전도의 "살아계신 세 분"은 원래 켈록 사건을 다루며 쓰신 특

별증언 B 에서 인용한 것인데 그녀의 원문 필체를 보면 "살아있는 세 개성"으로 쓰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이트 부인의 원문 필체 - Photocopy of Ellen White's handwritten manuscript



The Spirit the Comforter whom Christ
promised to send after he ascended to heaven
is Christ is the Spirit in all the fullness
of the God head making manifest to the
All who receive him and believe in Him
These are the living three persons of the heavenly
trio in which every soul repenting of their
sins believing receiving Christ by a living
faith to them who ar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them in the name of the

화이트 부인의 필체 사진-personalities 로 쓰신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The Spirit is the Comforter whom Christ
Promised to send after he ascended to heaven
Is Christ is the Spirit in all the fullness
Of the God head making manifest to the
All who receive him and believe in Him
These are the living three persons^{alities} of the heavenly
trio in which every soul repenting of their
Sins believing receiving Christ by a living
Faith to them who are baptized...” (원문 필체를 순서대로 적은 내용)
세 분(three persons) → 세 개성(three persons^{alities})으로 정정하여 쓰
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문 직역: “영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이며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진 영이며,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낸다. 하늘 삼중주의 살아 있는 세 개성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각 영혼에게.....”

세 분(three persons) → (persons^{alities}) → 세 개성(three personalities)으로 정정하여 쓰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의 삼중주(heavenly trio)를 살아계신 세 개성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공유하신 매개적인 개성으로써 두 분의 두드러진 속성이기 때문이다.

복음전도에서 인용한 바로 그 위 단락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

“절대적인 진리와 강신술적 주장 — 진보된 과학적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믿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빛과 같고, 아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빛과 같으며, 성령은 발산되는 빛과 같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슬이요 보이지 않는 수증기와 같으며, 아들 하나님은 아름다운 형태로 모여진 이슬과 같으며, 성령은 생명의 자리에 내려앉은 이슬과 같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수증기와 같고, 아들 하나님은 검은 구름과 같고, 성령은 내려와서 생기를 주는 비와 같다.”

이러한 모든 강신술적(spiritualistic) 주장은 무가치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진실되지 못한 주장들이다. 그것들은 이 세상의 어느 것들로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약화시키고 감소시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다. 그것

들은 단지 세상에 속한 사물들일 뿐이며,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통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속한 사물로 묘사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도, 614-615)

하늘의 세 큰 능력:

“Our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t is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God has made with those who bind themselves up with Him, to stand with Him, His Son, and His Spirit in holy fellowship. Have you been born again? Have you become a new being in Christ Jesus? Then cooperate with the three great powers of heaven who are working in your behalf (MS 11, 1901).” (7BC 908.11)

직역: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제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영과 함께 서도록 자신들을 그분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대는 거듭났는가?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하늘의 세 큰 능력들과 협력하라.” (원고 11, 1901) (7BC 908.11)

세 큰 능력들=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그분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영

“Those who believe the truth should remember that they are God's little children, that they are under His training. Let them be thankful to God for His manifold mercies and be kind to one another. They have one God and one Saviour; and one Spirit--the Spirit of Christ--is to bring unity into their ranks.” (9T 189.3)

직역: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이 그분의 혼련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비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서로 간에 친절해야 한다. 그들은 한 하나님과 한 구주와 그들의 대열에 연합을 가져다주는 한 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9증언, 189)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또 다른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자주 ‘그것(it)’으로도 표현하였는데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하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유롭게 일하는 독립된 매개(free, working, independent agency)’이기 때문에 ‘하늘의 삼중주(heavenly trio)’로 표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복음 전도의 ‘하늘의 삼중주(heavenly trio)’는 1905-1906년에 기록한 것인데, 그 이후에 1909년과 1911년에 기록한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다. 아직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만”의 진리를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만 사람의 영혼을 위해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 아신다.”(ST, January 13, 1909 par. 8)

“*God and Christ alone* know what the souls of men have cost.”(ST, January 13, 1909 par. 8)

“그분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만** “불에서 꺼낸”이 얼마만큼 의미하는지를 아신다.” (RH, January 26, 1911 par. 7)

“The words come from his lips, "The Lord rebuke thee, O Satan; even the Lord that hath chosen Jerusalem rebuke thee: is not this a brand plucked out of the fire?" "Plucked out of the fire,"--*only God and Christ* know how much that means.” (RH, January 26, 1911 par. 7)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신성을 닮은 영혼들을 인하여 기뻐하신다.” (ST, January 20, 1909 par. 7)

“The leaven of truth works a change in the whole man, making the coarse refined, the rough gentle, the selfish generous. By it the impure are cleansed,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Through its life-giving power it brings all there is of mind and soul and strength into harmony with the divine life. Man with his human nature becomes a partaker of divinity. Christ is honored in excellence and perfection of character. As these changes are effected, angels break forth in rapturous song, and **God and Christ** rejoice over souls fashioned after the divine similitude.” (ST, January 20, 1909 par. 7)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 21:22).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쟁투, 676)

“구원 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율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두 찬양과 감사로 옷 입게 될 것이며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새 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부르짖는 광경을 보

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연합하여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으리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선지, 732)

-모든 예언의 신의 전체 문맥을 종합해서 증거의 무게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엘렌 화잇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셨다. 만약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데 성경과 예언의 신 어느 곳에서도 성령을 경배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5.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요일 5:12)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소망 530)

-일부에서는 이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엘렌 화잇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용구이다.

같은 내용을 가려뽑은 기별 1권 296, 297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1-5). 이 세상은 나사렛의 겸손한 분에게서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나 주님의 참된 성품을 알지 못하였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여

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불멸의 생명을 의미한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갖고 계셨다. 육체적인 생명은 인간 각자가 받는 어떤 것이다. 육체적인 생명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여 가시는 것이므로 영원하거나 불멸하는 생명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지배할 힘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딤펀 데서 빌리신 것이 아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 10:18)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딤펀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딤펀 기원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이러한 생명을 타고나지 못하였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인간은 수고의 값을 치루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믿을 때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바로 이것이 세상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생명의 샘이다.” (1기별, 296-297)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생명을 물려 받으셨고 인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소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인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으신 그 같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딤펀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딤펀 기원에서 유래”되지 않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본문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그 “근본적인 것이었고 딤펀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딤펀 기원에서 유래”되지 않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으신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요 5:26).

6.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로 친히 서약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아버지의 영광의 참여자이셨던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 놓으시고 베들레헴의 갓난아기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높으신 권좌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원수가 인간에게 가져오는 모든 유혹들을 스스로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도 그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충성심을 변절케 할 수 없었다. 죄가 없으신 생애를 사심으로써 주님께서서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를 가져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 사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모든 부담들이 입증되어야 하고 시련을 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셨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인성 가운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셨다. 당신의 성육신(成肉身)을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고 말하였다.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서는 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다.”(1기별, 226-227)

“약 2천년 전에 오묘한 뜻을 가진 한 음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

나이다”(히 10:5~7). 이 말씀 가운데 영세 전부터 숨겨져 왔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려고, 곧 육신이 되려고 하셨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지니신 채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광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이 가려졌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려졌으니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체 안에 감춰졌다.” (소망 23)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잠 8:22-30)다.” (부조, 3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 8:24-25)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증거할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재성에 관하여서도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 말씀은 신성의 존재자이시며 그분의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연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하셨다. (The Word existed as a divine being, even as the eternal Son of God, in union and oneness with His Father).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언약의 증보자이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 인류와 천사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요 1:3)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었다. 주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뚜렷한 하나님의 개성을 가지시고 존재하셨으며 하늘 아버지와 하나 이셨다.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탁월한 영광이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을 호령하시는 사령관이셨고 천사들의 숭배와 존경을 당신의 권리로서 받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찬탈(贊奪)의 행위가 아니었다. 주님께서서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잠 8:22-27)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는 진리 가운데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빛이야말로 흑암 속에서 비취는 빛이며 거룩하고 근본적인 영광으로 그 빛을 찬란하게 한다. 이 진리 자체에 무한한 신비가 깃들여 있으며 다른 신비들과 그 밖의 설명할 수 없는 진리들을 설명해 주고 이와 동시에 이 진리는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1기별, 247-248)

-위 증언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두 번 출생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으로 출생하셨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신성에 다 인성을 입으신 인간으로 출생하셨다.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미가엘로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을 지니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셨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히 1:3)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부조 45)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직 홀로 출생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는 성육신하신(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신 것이다.

7. 어느 분의 개성인가?

오해된 문구: “성령께서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증거가 생길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신다는 증거가 따르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전도, 616)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심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보혜사가 보내신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상 더 그대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엡 3:18, 19)을 것이다.” (소망, 669-670)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그들과 동행하심

“문서전도자 곁에 서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은 일꾼들의 우두머리시다. 만일 우리가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면 우리 곁에 계신 성령은 필요한 바로 그 때에 감동을 끼쳐 주실 것이다.” (문전, 107)

“우리의 눈이 열렸었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 중에 계셨음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1888 Materials p. 58)

그분의 영을 통해 그들과 만나심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분의 영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선지, 50)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가 아직도 임재하여 계시는 감(感)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빛이 충만한

개인적인 임재이었다. 저들과 같이 다니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신 예수, 저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안을 주신 구주께서 오히려 평강의 기별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오르셨는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음성이 그를 영접하는 구름 같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들려왔다.” (정로, 73)

그리스도께서 영을 통하여 내재(內在)하심

“그 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영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그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을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내재(內在)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권능이 저들을 통하여 비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행 4:13) 알았다.” (정로, 75)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잠 1:7)다. 성경의 한 문장은 사람의 일만(一萬) 사상과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마침내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보증으로 채우신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 내주하시는 구주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재산으로 만드신다. 진리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주식이 된다. 불의는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생명력을 주는 힘이 되어 인간 전체를 강하게 한다.” (7증언, 70-71)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 주위에 계신

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찾아라. 그분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당신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 (치료, 85)

그분의 영으로서 도처에 두루 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다.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시 11:4)오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서** 도처에 두루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자세히 아시고, 하나하나에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교육, 132)

하나님의 영 = 하나님 자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 자신**을 세상에 건강과 생명을 주기 위한 거룩한 감화의 근원을 만드신다.” (7증언, 273)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치료, 413)

제6부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시도들

1. 예언의 신 시조사 편역

하나님께서서는 영어가 모국어였던 엘렌 화잇을 통하여 예언의 신을 주셨다.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이 되든지 번역한 사람을 위하여 번역인의 이름이 쓰인다. 그런데 시조사 발행 예언의 신에는 번역인 대신에 편역인이 나온다. 번역 대신에 편역의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어느 부분이 편역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에 관한 것이다.

1. 성령이 무엇인지 →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자~~

원문: “It is not essential for us to be able to define just what the Holy Spirit is. Christ tells us that the Spirit is the Comforter, “the Spirit of truth, which proceedeth from the Father.” (AA 51.3)

올바른 번역: “성령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행적, 51)

시조사 편역: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자~~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행적, 51)

2. 성령은 무엇인가? →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 ~~그분은~~

원문: “And Jesus said He would give us the Comforter. What is the Comforter? It is the Holy Spirit of God. What is the Holy Spirit? It is the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it is our Advocate that stands by our side and places our petitions before the Father all fragrant with His merits.” (RC 285.4)

올바른 번역: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이고, 그것은 우리의 편에 서서서 우리의 탄원을 그분의 공로와 함께 모든 향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그리스도를 나타냄, 285)

시조사 편역: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편과 입장에 서서서 우리의 탄원을 당신의 공로와 함께 모든 향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그리스도를 나타냄, 285)

원문: “The church members need to know from experience what the Holy Spirit will do for them. It will bless the receiver, and make him a blessing. It is sad that every soul is not praying for the vital breath of the Spirit, for we are ready to die if it breathe not on us.” (TM 63.3)

올바른 번역: “교인들은 **성령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는지 체험을 통해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받는 자에게 복을 베풀 것이요, 그를 축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영혼이 성령의 생생한 호흡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 64)

시조사 편역: “교인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체험을 통해 알 필요가 있다. **성령께서는** **그분을** 받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

푸실 것이요, 그를 축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영혼이 필수적인 성령의 호흡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 64)

3.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원문: “The Holy Spirit is the vital presence of God.” (YRP 284.2)

올바른 번역: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이다.” (권능을 받고, 284)

시조사 편역: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권능을 받고, 284)

4. 그것(성령의 본질) → ~~성령, 그것~~ → **성령**

원문: “The nature of the Holy Spirit is a mystery. Men cannot explain it, because the Lord has not revealed it to them.” (AA 52.1)

올바른 번역: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행적, 52)

시조사 편역: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행적, 52)

5.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한다 →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원문: “It is the Holy Spirit that convicts of sin. If the sinner responds to the quickening influence of the Spirit, he will be brought to repentance and aroused to the importance of obeying the divine requirements.” (AA 52.2)

올바른 번역: “죄를 깨닫도록 확신시키는 것은 성령이다. 죄인이 영

의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행적, 52)

시조사 편역: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의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행적, 52)

6. 갱생시키는 매개 → *재생시키는 대리인*

원문: “The Spirit is given as a regenerating agency, to make effectual the salvation wrought by the death of our Redeemer. The Spirit is constantly seeking to draw the attention of men to the great offering that was made on the cross of Calvary, to unfold to the world the love of God, and to open to the convicted soul the precious things of the Scriptures.” (AA 52.4)

올바른 번역: “영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 주는, **갱생시키는 매개**로 주어졌다. 영은 사람들의 관심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러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행적, 52)

시조사 편역: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 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러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산**다.” (행적, 52)

7.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 → *크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에게 임하신다*

원문: “The heart of the true minister is filled with an intense longing to save souls. Time and strength are spent, toilsome effort is not shun-

ned; for others must hear the truths that brought to his own soul such gladness and peace and joy. The Spirit of Christ rests upon him. He watches for souls as one that must give an account.” (AA 371.1)

옛 시조사 올바른 번역: “진실한 목사의 마음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가득차 있다. 시간과 힘이 투자되고 수고로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영혼에 그와 같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가져온 진리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 그는 영혼들을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처럼 바라본다.” (행적, 371)

오늘날 시조사 편역: “진실한 목사의 마음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가득차 있다. 시간과 힘이 투자되고 수고로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영혼에 그와 같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가져온 진리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에게 임하신다.~~ 그는 영혼들을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처럼 바라본다.” (행적, 371)

8. 매개 → 주선자, 이것 → 이분

원문: “The Spirit was to be given as a regenerating agent, and without this the sacrifice of Christ would have been of no avail.” (DA 671)

올바른 번역: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로써 주신 바 되었고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소망, 671)

시조사 편역: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소망, 671)

9.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 →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원문: “The Holy Spirit is the breath of spiritual life in the soul. The impartation of the Spirit is the impartation of the life of Christ. It imbues the receiver with the attributes of Christ.” (DA 805.3)

올바른 번역: “성령은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영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받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한다.” (소망, 805)

시조사 편역: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사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소망, 805)

10. 성령은 → **성령께서는**, 그것을 → **자신을**

원문: “The Holy Spirit never reveals itself in such methods, in such a bedlam of noise.” (2 SM, 36)

올바른 번역: “성령은 결코 잡음의 광태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2기별, 36)

시조사 편역: “**성령께서는** 결코 잡음의 광태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2기별, 36)

11. 한 성령 - 그리스도의 영 →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원문: “They have one God and one Saviour; and one Spirit--the Spirit of Christ--is to bring unity into their ranks.” (9T 189.3)

올바른 번역: “그들은 한 하나님과 한 구주와 그들의 대열에 연합을 가져다 줄 **한 영- 그리스도의 영-** 을 가지고 있다.” (9증언, 189)

시조사 편역: “그들은 한 하나님과 한 구주와 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 **크리고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들의 대열에 연합을 가져다 줄 것이다.” (9증언, 189)

12. 하나 (본성, 품성, 목적) → **한 분, 일체 (한몸)**

올바른 번역: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있을 곳이 예비되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인간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시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이신 그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 하셨으며 자신을 낮추사 평범한 일꾼으로 비천한 생애를 사시고 그분의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목공소에서 일하시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363)

시조사 편역: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있을 곳이 예비되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인간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시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 분이신** 그 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 하셨으며 자신을 낮추사 평범한 일꾼으로 비천한 생애를 사시고 그분의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목공소에서 일하시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363)

올바른 번역: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쟁투, 493)

시조사 편역: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쟁투, 493)

올바른 번역: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소망, 19)

시조사 편역: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소망, 19)

13. 하나님의 영 → **성령**

원문: “Deep conviction had rested upon all present, and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Spirit of God, Ananias and Sapphira had made a pledge to give to the Lord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certain property.” (AA 71.2)

올바른 번역: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 (행적, 71)

시조사 편역: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 (행적, 71)

아주 많은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 → **성령**) 오역 되었다.

14. **그분의 영** → **성령**

원문: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is not limited to any age or to any race. Christ declared that the divine influence of His Spirit was to be with His followers unto the end.” (AA 49.2)

올바른 번역: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 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행적, 49)

시조사 편역: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 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행적, 49)

원문: “Through the inspiration of His Spirit the Lord gave His apostles truth, to be express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ir minds by the Holy Spirit.” - Letter 53, 1900. (ISM 22.2)

올바른 번역: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의 감동을 통하여 당신의 사도들에게 진리를 주셨으며 성령에 의하여 저희 정신이 계발되는 분량에 따라 진리를 표현하게 하셨습니다.”(서신 53, 1900년)(1기별, 22)

시조사 편역: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당신의 사도들에게 진리를 주셨으며 **성령께서** 저희 정신을 계발시키는 분량에 따라 진리를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서신 53, 1900년) (1기별, 22)

원문: “Light comes to the soul through God's word, through His

servants, or by the direct agency of His Spirit.” (DA 322.2)

올바른 번역: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그분의 영**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소망, 322)

시조사 편역: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소망, 322)

아주 많은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그분의 영 → **성령**) 오역 되었다.

15. **그분의 아버지(His Father)** → **하늘 아버지, 혹은 아버지**

원문: “In the prayer which Christ offered to His Father just before His crucifixion, He said, "I pray not that thou shouldest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thou shouldest keep them from the evil" (John 17:15).”(ISM 90.3)

올바른 번역: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그분의 아버지**께 올린 기도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라고 하셨다.” (1기별, 90)

시조사 편역: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늘 아버지**께 올린 기도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라고 하셨다.” (1기별, 90)

올바른 번역: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그분의 아버지(His Father)**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행적, 20)

시조사 편역: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행적, 20)

올바른 번역: “그분은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분의 아버지** (His Father)를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

셨다.” (소망, 74)

시조사 번역: “그분은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소망, 74)

올바른 번역: “예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His Father)**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한편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소망, 125)

시조사 번역: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한편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소망, 125)

올바른 번역: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그분의 아버지(His Father)**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소망, 125)

시조사 번역: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소망, 125)

올바른 번역: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His Father)**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후의 일이었다.” (소망, 507)

시조사 번역: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후의 일이었다.” (소망, 507)

올바른 번역: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그분의 아버지(His Father)**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믿음과 기도로써 이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매

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그분의 아버지와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소망, 536)

시조사 번역: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믿음과 기도로써 이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소망, 536)

아주 많은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그분의 아버지 → **하늘 아버지**) 오역 되었다. 이와 같이 원문에 ‘그분의 아버지(His Father)’라고 기록되었는데 ‘**하늘 아버지**’ ‘**아버지**’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 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친 아버지와 관계를 희미하게 하였다.

16. 왕자 → 왕

원문: “The Prince of Peace, He was yet the cause of division.” (AA 84.2)

올바른 번역: “그분은 **평강의 왕자**이시면서, 분열의 원인이 되셨다.” (행적, 84)

시조사 번역: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분열의 원인이 되셨다.” (행적, 84)

원문: “The Prince of heaven was among His people. The greatest gift of God had been given to the world.” (DA 277)

올바른 번역: “**하늘의 왕자**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소망, 277)

시조사 번역: “하늘의 **왕**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소망, 277)

원문: “The Prince of heaven was called Beelzebub, and His disciples will be misrepresented in like manner.” (DA 355.4)

올바른 번역: “**하늘의 왕**이셔서 바알세불이라 불렸으니, 그 제자들도 그런 모양으로 곡해될 것이다.” (소망, 355)

시조사 편역: “하늘의 **왕금이** 바알세불이라 불렸으니, 그 제자들도 그런 모양으로 곡해될 것이다.” (소망, 355)

거의 모든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왕자 → ~~왕~~) 오역 되었다.

17. 대표 → ~~대리자~~

올바른 번역: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표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행적, 50)

시조사 편역: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행적, 50)

18. 영의 임재가 함께하면 → ~~성령이 함께하시면~~

원문: “Especially should they pray that God will baptize His chosen ambassadors in mission fields with a rich measure of His Spirit. The presence of the Spirit with God's workers will give the proclamation of truth a power that not all the honor or glory of the world could give.” (AA 50.2)

올바른 번역: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양으로 **그분의 영**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영의 임재가 함께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행적, 51)

시조사 편역: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행적, 51)

19. 보혜사 → ~~보혜사 성령~~, 영은 → ~~성령께서는~~, 성령이 → ~~성령께서~~

원문: “From the Day of Pentecost to the present time, the Comforter

has been sent to all who have yielded themselves fully to the Lord and to His service.” (AA 49.2)

올바른 번역: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는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굴복한 모든 사람에게 보내진바 되었다.” (행적, 49)

시조사 편역: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행적, 49)

원문: “The Comforter is ours as well as theirs.” (AA 51.1)

올바른 번역: “**보혜사**는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행적, 52)

시조사 편역: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행적, 52)

20.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the Godhead was still His own’) → *여전히 그는 삼위 하나님 중의 한 분이셨다.*

원문: “Though He had humbled Himself to humanity, the Godhead was still His own. Christ alone could represent the Father to humanity, and this representation the disciples had been privileged to behold for over three years.” (DA 663.5)

올바른 번역: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삼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소망, 663-664)

원문: “Though Christ humbled Himself to become man, the Godhead was still His own. His deity could not be lost while He stood faithful and true to His loyalty.” (5BC 1129.3)

시조사 편역: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는 삼위 하나님 중의 한 분이셨다.* 그가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신성은 그대로 있었다.” (화이트주석, 요 1:1-3, 14)

시대의 소망에서는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the Godhead was still His own]’로 제대로 번역하였으나 화이트주석, 요 1:1-3, 14에서는 같은 문장을 ‘~~여전히 그는 삼위 하나님 중의 한 분이셨다~~’로 오역하였다.

21.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 하늘과 그분의 아들에게

“All the heavenly angels are at the service of the humble, believing people of God; and as the Lord's army of workers here below sing their songs of praise, the choir above join with them in thanksgiving, ascribing praise to God and to His Son.” (7T 17.2)

올바른 번역: “모든 하늘의 천사들은 겸손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의 군대가 이곳 지상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찬양대는 감사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들과 연합한다.” (7증언, 17)

시조사 편역: “모든 하늘의 천사들은 겸손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의 군대가 이곳 지상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찬양대는 감사로, **하늘과** 그분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들과 연합한다.” (7증언, 17)

22. 소제목으로 삽입: ‘The Eternal Dignitaries of the Trinity(영원 저존하신 삼위일체)’가 소제목으로 삽입됨

추가 삽입: ‘*the Trinity(삼위일체)*’가 추가 삽입됨

“영원 저존하신 삼위일체 — 영원 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원고 145, 1901년 (전도, 616)

23. 이것 → 이분

“When He [the Spirit of truth] is come, He will reprove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The preaching of the word will be of no avail without the continual presence and aid of the Holy Spirit. This is the only effectual teacher of divine truth.” (DA 671.4)

올바른 번역: “그(진리의 성령)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다.” (소망, 671)

시조사 편역: “그(진리의 성령)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다.” (소망, 671)

24. 나타남 → **성령이 강림하였다**

“Mary had heard of the manifestation at the Jordan, at His baptism.” (DA 144)

올바른 번역: “마리아는 그의 침례시에 요단강에서 **나타남**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조사 편역: “마리아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망, 144)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하여 잘못 편역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하여 오해하게 되었고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프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성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일 것 같으면 언젠가는 눈이 열릴 것이다.

2. 찬미는 예배의 일부

“예배의 일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행위이다. 사실, 많은 노래는 기도이다.” (교육 168)

찬미가 제1장(거룩, 거룩, 거룩)은 삼위일체 내용을 삭제하면 좋은 찬미였기 때문에 제칠일 재림교회 창시자 선구자들은 삼위일체신을 찬양하는 부분 “성 삼위 일체 되신 주로다” 대신에 “만유를 길이 다스리신다”로 정정하여 불렀었다. 재림교회가 삼위일체교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정정된 “만유를 길이 다스리신다”로 부르다가 1980년 달라스 대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삼위일체교리를 받아들인 후에 “만유를 길이 다스리신다”를 “성 삼위 일체 되신 주로다”로 또 다시 수정하여 일반 개신교회들처럼 부르게 되었다.

제1장 거룩 거룩 거룩

1.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웁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는 만유를 길이 다스리신다 (-) **성 삼위 일체 되신 주로다**)

2. 거룩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면류관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3.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눈이 주 영광 뵈지 못해도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요 비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4.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만유를 길이 다스리신다 (-) **성 삼위 일체 되신 주로다**)

특히 한국의 제칠일 재림교회들은 거의 모든 교회가 안식일 학교에서는 ‘즐겁게 안식할 날’ 264장과 대 예배 설교시 첫 찬미로 삼위일체신을 경배하는 찬미 702장을 부르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REGINALD HEBER. (NICÆA. 115 & 125.) JOHN B. DVKES.

1. Ho - ly, ho - ly, ho - ly! Lord God Al - might - y!
 2. Ho - ly, ho - ly, ho - ly! an - gels a - dore thee,
 3. Ho - ly, ho - ly, ho - ly! though dark - ness hide thee,

Ear - ly in the morn - ing our song shall rise to thee;
 Casting down their bright crowns around the glass - y sea;
 Though the eye of man thy great glo - ry may not see;

Ho - ly, ho - ly, ho - ly, mer - ci - ful and might - y!
 Thousands and tenthousands wor - ship low bo - fore thee,
 On - ly thou art ho - ly; there is none be - side thee,

God o - ver all, who rules e - ter - ni - ty.
 Which wert and art and ev - er - more shalt be.
 Per - fect in power, in love and pu - ri - ty.

제칠일 재림교회에서 1900년에 출판된 영문 'Holy, Holy, Holy' 찬미에는
삼위일체 단어가 없었음

1

거룩 거룩하다

REGINALD HEBER

JOHN B. DYKES

1. 거룩 거룩 하 다 전 능 하 신 주 님
 2. 거룩 거룩 하 다 전 능 하 신 주 님
 3. 거룩 거룩 하 다 전 능 하 신 주 님

이 성 문 아 침 찬 송 올 드 리 음 니 다
 우 도 들 이 이 면 류 관 벗 어 드 리 해 네
 주 는 오 사 작 하 다 자 비 하 신 주 는
 찬 는 오 사 작 하 다 자 비 하 신 주 는
 주 는 오 사 작 하 다 자 비 하 신 주 는

다스리신다
 계수로다

3. 기독 저널 개신교 신문

이 사진은 1996년 7월 22일자 일반 개신교(장로교) 신문사인 주간 [기독저널] 신문 제1면 특집기사의 내용이다.

제칠일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유 중 하나가 삼위일체에 관하여 일반 개신 교회와 다른 점이 없고 어떤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11월 117호 (1996. 7. 22 禮拜日) The Christian Journal 1996年 7月 22日 (月曜日) (週刊)

社址 大邱 新營 區 大邱 日報 社
 編輯人 李興文
 社長 李興文
 副社長 李興文
 總編輯 李興文
 印刷人 李興文

안식일교회 이단아닌 「정통교회」

안식일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제칠일 재림교회는 이단으로 보지 않으나 유독 한국 교회는 이단 취급, 빌리그래함도 정통교회로 인정

안식일교회(Seventh-day Adventist Church)는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제칠일 재림교회는 이단으로 보지 않으나 유독 한국 교회는 이단 취급, 빌리그래함도 정통교회로 인정

긴급진단

안식일교회(Seventh-day Adventist Church)는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제칠일 재림교회는 이단으로 보지 않으나 유독 한국 교회는 이단 취급, 빌리그래함도 정통교회로 인정



안식일교회(Seventh-day Adventist Church)는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제칠일 재림교회는 이단으로 보지 않으나 유독 한국 교회는 이단 취급, 빌리그래함도 정통교회로 인정

● 세계기독교가 이단으로 보지 않으나 유독 한국 교회는 이단 취급, 빌리그래함도 정통교회로 인정

社址 大邱 新營 區 大邱 日報 社
 編輯人 李興文
 社長 李興文
 副社長 李興文
 總編輯 李興文
 印刷人 李興文

社址 大邱 新營 區 大邱 日報 社
 編輯人 李興文
 社長 李興文
 副社長 李興文
 總編輯 李興文
 印刷人 李興文

내용 중 일부: “그동안 개신교 측에서 이단시하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안식일교회)가 과연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정의된 이단인가? 본지와 개신교 문제연구소는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안식일교회의 공식 교리서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27]과 그들의 변증서인 [오직 성경만이 판단기준이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2월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안식일교

회에 대한 비판과 변증 내용을 연재한바 있으며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안식일 교회는 결코 이단이 아님]을 천명하게 되었다…….”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닌 명백한 증거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구원관에 있어서 일반 개신교회와 다른 점이 없으며, **삼위일체**, 예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리가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주요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인성과 **삼위일체에 관한 어떤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영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재림교인(안식일교인)들이 음식 문제 등에 있어서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구원 받는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 예식을 행한다.”

제 7부

솔직한 고백들

1.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솔직한 고백들

1)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두 사람의 고백

어거스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삶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만약 삼위일체를 정의하라고 부탁을 받으면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Augustine, as quoted in Philip Schaff’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3, Section 130, page 672)

아타나시오스:

“말씀(Logos)의 신성에 대하여 명상하려고 그의 이해를 강요할 때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못 깨달으며, 그것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실력이 더 없어진다.” (Gibbon,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ume 2, Chapter 21, page 223)

2)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 (오늘의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
Handbook for Today's Catholic p, 11)

3) 천주교 교리문답 - 일요일은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

“일요일은 사도들에 의하여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옛날 이교 로마의 태양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리하여 그것은 성스럽다.”--- 듀에이 천주교 교리문답 (January 31, 1856 JWe, ARSH 142.10)

4) 충격적인 사실 - 재림교 창시자들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

“만일 대부분의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해 28개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 대부분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재림교회 역사학 죠지 나이트 (어찌 우리 잇으랴 10 월 7일-미주 시조사)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28개 기본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제2번 교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어찌 우리 잇으랴 - 10월 7일 미주 시조사)

“1931년에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기본 교리로 인정하는 최초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모든 재림신도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어찌 우리 잇으랴 10월 12일-미주 시조사)

죐지 나이트는 이와 같이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음을 인정은 하면서도 이상한 논리로 삼위일체교리를 합리화시킴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였다.

5) 리뷰지 전임 편집장의 고백

“재림교 신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대 진리”의 영향 아래 변하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다. 제임스 화이트, J.N. 앤드루즈, 우라이야 스미스, J. H. 왜고너를 포함한 많은 선구자들은 아리안적인 혹은 준 아리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아들이 창조 이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재림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오늘날도 몇 사람들은 그것에(삼위일체 교리) 동의하지 않는다.” (Adventist Review, Jan 6, 1994. p.10. Article by William Johnsson.)

2.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관하여 SDA 영문 성경주석 7권 675쪽에 나온 내용

한국어 개역 성경에는 원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어판 성경 주석에는 이 내용(밑줄 그은 부분)이 없다.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이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5:7-8)

1 John 5:7 SDA Bible Commentary

“1 John 5:7 For there are three. Hebrew practice, based on Deut. 17:6; 19:15; etc., demanded consistent testimony from two or three witnesses before action was taken in certain legal disputes. John is here citing three witnesses in support of the divinity of his Master (1 John 5:5, 6, 8), thus assuring his readers of the reliability of his statement.

Bear record. Gr. marture?FTN , "to witness,? "to testify.? Marture?
FTN is translated "to bear witness?(v. 6) and "to testify?(v. 9). The
Greek implies that the witness is being borne continuously.

“Textual evidence attests (cf. p. 10) the omission of the passage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resultant read-
ing of vs. 7, 8 is as follows: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The
passage as given in the KJV is in no Greek MS earlier tha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e disputed words found their way into the KJV by
way of the Greek text of Erasmus (see Vol. v, p. 141). It is said that
Erasmus offered to include the disputed words in his Greek Testament if
he were shown even one Greek MS that contained them. A library in
Dublin produced such a MS (known as 34), and Erasmus included the
passage in his text. It is now believed that the later editions of the
Vulgate acquired the passage by the mistake of a scribe who included an
exegetical marginal comment in the Bible text that he was copying. The
disputed words have been widely used in support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but, in view of such overwhelming evidence against their au-
thenticity, their support is valueless and should not be used. In spite of
their appearance in the Vulgate A Catholic Commentary on Holy
Scripture freely admits regarding these words: “It is now generally held
that this passage, called the Comma Johanneum, is a gloss that crept into
the text of the Old Latin and Vulgate at an early date, but found its way
into the Greek text only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omas Nelson
and Sons, 1951, p. 1186).” (SDABC, 7BC 675)

요일 5:7 영문 SDA 성경 주석

요일 5:7 셋이니. 신 17:6; 19:15등에 의거하여, 히브리 소송 절차

는 특정한 법적 분쟁에서 판결이 결정되기 전에 증인 두세 명의 일치된 증언을 요구하였다. 요한은 이곳에서 그의 주님의 신성(요일 5:5, 6, 8)을 옹호하는데 세 증인을 소환하여 독자들에게 그의 진술의 신뢰성을 확신시킨다.

증거하다. 헬라어 마르튀레오(martureo-), “증거하다”, “증명하다.” 헬라어는 증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함축한다.

“본문에 의거한 증거는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이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라는 구절이 누락되었음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7, 8절은 다음과 같다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은 15-16세기 이전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없다. 논쟁의 대상이 된 이 글귀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원고를 통하여 킹 제임스 번역본에 들어가게 되었다. 에라스무스가 그 논쟁의 단어들이 담겨진 헬라어 원고를 하나만이라도 그에게 보여준다면 그의 헬라어 신약에 그 논쟁의 단어들을 포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해졌다. 더블린에 있는 한 도서관은 그러한 원고를(34로 알려진) 제출하였고 에라스무스는 그의 원문에 그 구절을 포함시켰다. 현재 믿어지는 바에 의하면 불가타 성서의 후기 간행본들은 한 사본 필기자가 복사하였던 성경 구절에 있던 난외 해설 주석을 포함시킨 실수로 그 구절이 덧붙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논쟁되어온 단어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어 왔었지만 그것들의 진실성을 반대하는 압도적인 증거 때문에 그 지지는 무가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 구절들이 불가타 성서에 나오에도 불구하고 한 카톨릭 성경 주석은 이 구절들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한다: “콤마 요한네움이라고 알려진 이 구절은 일찍이 고대 라틴과 불가타의 원문에 슬며시 기어들어온 주해이며 헬라어 원문에는 15세기와 16세기에서야 들어온 것일 뿐이다.”(Thomas Nelson and Sons, 1951, p. 1186).” (SDABC, 7BC 675 - 제칠일 재림교회 영문 성경주석 7권 675쪽)

3. 삼위일체의 문제 (요일 5:7~8)

안식일 학교 교과서 2009년 3기 9과 수요일 (8월 26일)

삼위일체의 문제 (요일 5:7~8)

“성경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시며, 이 세 분은 또한 땅에서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5:7~8에도 이 말씀이 나온다. 그런데 이 내용은 후기 사본에만 있고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진술이 원본에는 없으며 삼위일체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라고 본다. 성경 본문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계 22:18),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 변경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반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통탄스러운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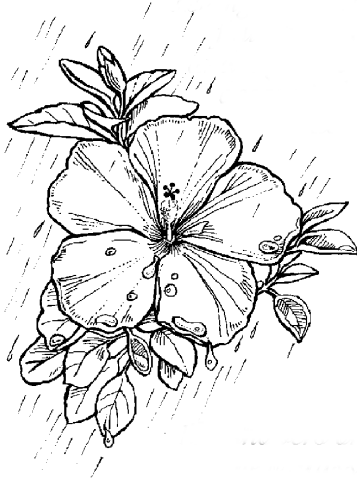


L.E. 프룸

“여기서 나는 솔직하고도 개인적인 고백을 해도 괜찮을까요? 1926년과 1928년 사이로 돌아가서 나는 1928년의 북미 연합 목회자 연구회를 위하여 성령에 관하여 일련의 연구를 지도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 지도자들에게서 받았을 때 나는 예언의 신에 있는 귀한 인도 외에 이 놀라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서적 중에서는 건전한 성서적 해석이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서적들 중에 그 문제에 관한 길잡이 서적들이 없었다. 나는 우리 신앙 밖에 있는 분들이 쓴 가치 있는 책 약 20여권을 탐구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유명했던 분들의 책 최초의 단서와 암시를 위해서 열렬한 개인적인 연구의 전망을 얻기 위하여 찾아보았다. 이것

들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부터 전진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정적인 최초의 도움이었다. 그리고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똑같이 진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흔히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승리의 생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것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Movement of Destiny* p. 322 by L. E. Froom)

-이와 같이 프룸 목사는 제칠일 재림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에 관하여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연구하여 그것에 비증을 두는 대신에 타교파의 유명한 학자들의 책에 근거하여 그의 사상이 확립되었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슬프고도 통탄스러운 고백인 것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신 32:2)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 19:8)

제8부

참된 교리

1. 인기 없는 진리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탄이 최초로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 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리들 (doctrines)에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들에 집착한다.” (소망 242)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20).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의로써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이러한 일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하였다. 그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문란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의심없이 믿어 버린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성경은 장차 국가의

법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전하는 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회피하게 할 뿐이므로 차라리 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초기의 개혁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반대나 그 이상의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도와 순교자들이 한 신앙 고백은 후세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결과 확고한 충성의 산 모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용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해 내려왔다. 그들은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밝혀 주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종들에게도 빛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것이다.” (쟁투, 458-459)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겔 3:7)고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겔 2:7)고 말씀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는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병(把守兵)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

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겔 33:7-9).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데 다 같이 큰 장애가 있는 까닭은 진리는 불리한 것과 조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의 옹호자들이 결코 논박할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한 유일한 반대 논증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가 인기를 얻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고후 4:17) 하는 줄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성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히 11:26) 여기게 된다.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원칙보다 지략(智略)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원칙적이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날 개혁 사업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척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쯤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사 51:7, 8).”(쟁투, 459-460)

“인기 없는 진리를 받아들인 이 무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공언하는 진리에 의하여 거룩함을 입는 한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중요한 계단을 밟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들에게 값을 지불해 주신 불멸의 유업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해줄 신앙적 경험이 필요하다.” (1증언, 621-622)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꾸민 이야기에 집중한 때인 마지막 날의 위험에 사는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신화로부터 돌아서는 세심한 일을 하며 인기 없는 진리에 맞들일 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신화를 떠나 진리를 향하는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꾸며낸 이야기를 믿으라고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려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일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가장 성공적으로 남은 자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효과를 거두게 하는 영향력이 될 것이다.” (2증언, 105)

- 거의 모든 사람들은 5-10째 계명에 관하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1-4째 계명에 관하여는 오해와 반대가 많다. 특별히 하나님의 넷째 계명(참된 경배일인 안식일과 참된 창조주)은 인기 없는 진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2. 증거의 무게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 보고 그 증거의 무게를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셨다.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애를 특징지은 사실들과 기록된 예언을 비교하였더라면 그들은 겸손한 갈릴리인의 생애와 봉사에서 예언과 그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소망, 458)

“의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여지를 모두 제거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제시하시며, 모든 사람들은 증거의 무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증언, 254-255)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에 의하여, 곧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화이트주석, 신 30:15-19)

“나는 주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음을 보았다. 주님의 종들은 논쟁의 능력을 지나치게 의지해 왔고,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진리에 대한 단순한 논쟁이, 영혼들을 감동시켜 남은 교회와 함께 서게 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를 심령속에 간직해야 한다. 천사는 말했다. “그들은 진리를 영광으로 뜨겁게 해야 하며 그것을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다니고, 뜨거운 심령과 열성으로 듣는 자들에게 그것을 쏟아 놓아야 한다.” 증거의 무게에 의하여 결심할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순한 진리의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리에 따르는 능력, 곧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산 증언이 있어야 한다.”(1증언, 113)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의심의 그늘이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신 경고와 견책의

기별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 완전한 지식을 요구하는 불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증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증거의 무게에 근거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빛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에 거스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릴 때에라도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3증언, 258)

“사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심들을 암시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지만, 만일 그대가 믿음으로 그대의 눈을 연다면, 그대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을 어떤 사람에게서도 결코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의심과 미심쩍은 불신의 분위기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부러워 할 것이 없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분명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불신과 의심을 표현하는 분위기에 버려질 것이며,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4증언, 232-233)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경건에 대하여는 매우 적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슬픈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많은 영혼들은 회심함 없이, **증거의 무게**로 인해 진리에 동의하기로 결심한다. 실제적인 설교가, 청중들이 진리의 아름다운 사슬을 보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며 순종을 통해 성화되도록 교리적인 것과 연관되어 주어지지 않았다. 목사의 사업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아들인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일치하여 품성의 변화의 필요성을 확신시키기까지는 마쳐진 것이 아니다.” (4증언, 395-396)

“의심이나 회의심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할 것 같으면 그들의 믿음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배려를 해 놓으셨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믿기 전에 외관상의 모든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다린다면 그들은 결코 진리 안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박고 기초를 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외관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길에서 결코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믿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돌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 자신에게까지도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닷 없이 떠내려가며, 불확실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사탄은 곧 키를 쥐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연약한 배를 끌고 간다. 그들은 그의 의지에 굴종한다. 이 마음들이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의 궤변에 기만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균형이 잡혀 있었다면 그들은 혼란하고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4증언, 583-584)

“증거의 비중에 의해서 확신하게 됨 —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우리 시대에 적절한 신령한 진리의 보화들을 제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오류와 혼합된 중에서 건져 내셔서 완전한 체계로 바로잡아 주셨다. 주님의 종들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안에 있는 정당한 위치에 둘 때, 지혜롭고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경외심으로 이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저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가상적인 난제들을 제거해 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증거의 비중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믿게 될 것이다.— 원고 8a, 1888년” (전도, 122)

“그러나 설명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 자,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어떤가? 증거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민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달아보실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편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유다가 이른 곳에 정확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은 삼십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팔 것이다. 그들은 불신에 모든 것을 팔 것이다.” (1설교, 145)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골 1:13)다고 하였다. 죽음에서 나와 생명에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요 3:33)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내가 필요하였던 그 도움을 예수에게서 찾았다. 모든 부족한 것이 보충함을 받았고 내 심령의 주림이 채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 그대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묻는가?-이는 그가 내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를 묻는가?-이는 성경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참된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자신이 마음속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 (정로, 112 제12장 의혹을 어찌할까)

-성경 말씀 가운데 서로 일치되지 않아 보이는 주제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 안식일과 일요일 중에서 어느 날이 주의 날인지 혹은 성령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삼위일체 교리의 성령 하나님’인지를 알려면 조심스럽게 성경절들을 대조하면서 증거의 무게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이다.

3. 기성 교리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전파함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행 5:19.20)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비록 성경 교리의 교사라고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권세 잡은 자들의 말을 항상 순종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종교적인 신조에 있어서 자신의 것과는 다른 어떤 사상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때,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사상을 진리로써 오랫동안 옹호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식으로 사도 시대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

다. 그들 중 몇은 어부에 불과한 이 무식한 사람들, 학식 많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작정인가? 그들은 우리 신앙의 근본 원리를 침해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성 교리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도록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한때 진리의 보고 역할을 하던 이들이 그들의 신성한 책임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과 일치되지 않는 진리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인물들을 선택하신다. 그런데 그 때에 마음의 눈이 먼 이 지도자들은 애지중지 해 온 허탄한 이야기들을 버리는 이들에게 소위 의분을 쏟아 붓는다. 그들은 마치 이성을 잃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눈을 떠서 자신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으며, 거짓 교리를 쌓아 올리고 그것들을 신앙의 근본 교리라고 불렀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은 때때로 그것 자체의 선택된 대리들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할 것이다. (But the Holy Spirit will, from time to time, reveal the truth through its own chosen agencies;)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제사장이나 관원일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믿지 않으니 그대의 의견들을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신기한 “나”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인간은 한동안 그것을 질식시키고 사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류를 진리로, 진리를 오류로 만들 수는 없다. 인간의 창의적인 지성은 여러 면에서 상상적인 견해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성령이 인간 지성에 빛을 비추일 때, 그것은 인간이 말씀에 적용시켜 놓은 모든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and when the Holy Spirit lets light shine into human minds, it does not respect every point of man's application of the word.)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감동시키셔서 인간들이 무엇을 진리로 당연시하고 있던 지간에 개의치 않고 진리를 말하도록 하신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 69-70)

4. 흔들림

“그러나 오히려 주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삼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 오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니라” (사 17:6)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암 9:9)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눅 3:17)

흔들림의 원인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기별, 13)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 데도 닳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목사, 112)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곧 바른 증거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 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곧바른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곧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초기, 270)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

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초기, 270) (1증언, 181)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됨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누구든지 억지로 희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희생이어야 한다. 그 받을 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기운을 잃고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때 나는 전능하신 분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르러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에게 직접 그분의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말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시내산의 모든 번개와 천둥으로도 감화를 받지 못할 것이며 천사가 기별을 전한다 해도 그들을 일깨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50-51)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써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 4BC, 1161(1902).

흔들림의 시대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써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6증언, 332)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 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겉치레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에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선지, 188)

교회 형편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녹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십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선교, 41)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던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했으나, 명목상의 교회들처럼 더 이상 생명력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19원고, 176)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탄의 깃발 아래 서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서신 156, 1903 (3기별, 84)

핍박이 일어날 때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잎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한 부류로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견고하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떠나간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 (4증언, 89)

“핍박이 없을 때에 확고하게 보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사상을 가진 듯이 보이는 자들이 우리 대열 속으로 스며들어 왔으나 일단 **핍박이 일어날 때에** 저들은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위기가 이를 때에 저들은 과거에 한때 저희 정신을 지배하여 온 그럴 듯한 추리력 속에 어떤 세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온갖 종류의 인간을 상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울무를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할 때에** 교회는 불 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율에 속하는 사람들이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딤후전 4:1)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곤경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에 저들은 힘을 얻는 대신에 참 포도나무의 살아 있는 가지가 아님을 스스로 증거할 것이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므로 농부는 저들을 밖에 내다버릴 것이다.” (2기별, 368)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셨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나뉘고 어떤 사람의 봉사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원고 64, 1898)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

“미구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 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

움을 싸우는 것 -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5증언, 141)

배교가 빈번하게 될 것

“그분께서 크게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고대의 이스라엘을 모방할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원칙에서 떠나는 것**, 곧 루시퍼의 사악한 활동하에서 행한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더욱 굳게 할 것이며, 자신들을 그릇된 행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진리는 터진 그릇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영혼에게서 새어나갈 것이다.” (13월고, 379, 381-1904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가 되거나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배교가 빈번하게 될 것이다.**” (RH 1888. 9. 11)

“매우 압박한 **큰 쟁점**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으신 자들을 제거할 것이며 그분은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 되며 성화 된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다.” (3기별, 385)

“성화되지 않은 목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목사, 409-410)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쟁투, 608)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초기, 271)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는 [현재]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분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을 받으며, 그분의 손길은 구원하기 위하여 여전히 내뻗쳐 있는 반면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힌다. 이 마지막 날에 최초로 진리를 듣게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될 것이다.” (사건, 182.2)

“악한 천사들은 그 사람들 주위에 몰려들어, 흑암을 그들에게로 밀려오게 하여 그들의 눈이 주변에 있는 흑암에 가리어져 예수님을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려고 했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은 눈을 위로 향하여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악한 천사들에게서 나온 이처럼 유독한 분위기가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몰려올 때, 그 짙은 흑암을 흩어 버리기 위해 계속해서 날개를 그 사람들 위에 펼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여 간구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것 같았다. 그들이 주위에 있는 흑암을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흑암은 짙은 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전력을 다하여 악한 천사들을 저항하고자 투쟁하고 있는 자들, 인내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 스스로를 도우려고 애쓰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급히 그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천사들은 스스로를 돕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자들을 떠나갔으므로, 나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열렬히 부르짖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로부터 나온 한 줄기의 빛이 때때로 그들에게로 와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다.”(1증언, 180)

백성을 징계할 하사엘

“이른바 소수의 자만에 빠진 철학가들의 견해를 성경의 진리나 성령의 증언들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은 오늘날에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통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불합리하고, 신비적이며, 지성적 마음에 합당치 못하다고 선언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징계할 하사엘임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보다 더 현명하다.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이와 같이 불신하는 일은 어느 곳에서나, 또한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대부분의 우리의 학교에서 교수되고 양성소의 교과에 편입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의 영들을 좇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신앙의 옷을 입은 흑암의 영이 그대들과 대결할 것이다.” (5증언, 78-79)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서는 목자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당신이 친히 양 떼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결코 인간 기구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미구에 크게 키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딤후 6:12)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 때에 지도자들

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성과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의지해 온 자들은 그때에 일반 대중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빛에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불성실한 자로 드러난 자들에게는 그 때에 양떼가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주님께서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취온 빛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거칠고 매력 없는 표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낮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들을 보지 못한다. 별들은 물론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눈으로 그것들을 분별해 낼 수 없다. **밤에** 우리는 **별들의 진정한 빛**을 바라보게 된다.” (5증언, 80)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때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걸음 한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 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쪽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별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열매 없는 나무들이 땅만 버리는 자로 베어질 때,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사람들과 구별될 그 때, 숨어 있던 자들은 드러나서 그리

스도의 깃발 아래 호산나를 외치면서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겁이 많고 자기를 불신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주저하는 자가 다윗과 같아지되, 자원하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찬란해질 것이다. 사탄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아 6:10)할 것이다.” (5증언, 81-82)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

“선교 활동을 통하여 뿌려지고 있는 진리의 씨들이 그 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환난을 참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전 세계를 휩쓰는 징벌이 세상을 지나갈 때, 키가 여호와와 타작 마당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사탄의 전리품들이 높이 들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의 믿음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 성별의 겹옷을 그에게 던졌다. 이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에 대한 부르심은 학문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했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깃발을 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영향에 굴복했으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절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은 높이고, 과학의 하나님은 잃어버렸다. 이것은 가장 순결한 시대의 교회의 형편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이런 기관들은 멸시를 받거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외부적 자격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5증언, 82)

하나님께서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들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별로 없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변화이다. 그것은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적으로 떠나는 것이며, 그들의 영적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떠나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과 견해와 영향의 지배적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분리는 쌍방에 고통과 쓰라림을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장하시는 불화이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최종적인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욕망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안 경솔하고 경박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의 가치는 너무도 크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한다. 재물은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다. 그 황금 사슬은 그들을 사탄에게 붙들어 맨다. 명성과 세속적 영광은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의무에서의 해방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다. 이것들은 부주의한 자의 발을 걸리게 하고자 쳐 놓은 사탄의 올무이다. 그러나 이 노예적 속박은 반드시 깨뜨려져야 한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주님의 것이요, 절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온갖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파수병(把守兵)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때에 “평강하다, 평강하다”(렘 8:11)라고 부르짖을 수 없다. 성실한 파수병(把守兵)의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릴 것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사 52:11).” (5증언, 82-83)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혹은 과거 한때의 상태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다. 현재의 교회의 믿음과 세상에서의 그 위치는, 만일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향상했을 것 같으면 그들이 될 수 있었을 뻔했던 그 상태와 비교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만일 교회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과 축복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5증언, 83-84)

두 무리가 형성될 것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2기별, 114)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된다.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이 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Letter 46, 1887)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 자신이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인가?” (Letter 15, 1892)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련하고 키질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RH, 1895. 3. 19)

“무리들이 잇달아 주님의 군대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될 때, 깃발들이 하나 둘 먼저 가운데 버려져 나뒹굴었다.” (사건, 182)

두 군대

“나는 목시 가운데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의 휘장이 붙은 깃발의 지휘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주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 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저희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힘센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와서 주의 도움을 받으라. 주의 도움을 받으라”고 외칠 때에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임마누엘의 깃발을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 주었다.

싸움은 치열했으며 승패는 거의 가릴 수 없었다. “기수가 기진하여 감 같을”(사 10:18, 흠정역) 그때, 십자가의 군사들이 후퇴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분명한 후퇴는 단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얻고자 함이었다. 기쁨의 탄성이 들렸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 때까지 원수가 굳게 지키고 있던 성벽에 그분의 기를 꽂자 찬양의 노래가 천사들의 음성과 합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 전투를 지휘하시고 당신의 군사들을 돕고 계셨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은 그 전투를 원수의 성문까지 힘있게 밀고 나갔다. 그분은 정복하고 또한 정복하고자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의로써 비상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쓰인 깃발을 따르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승리를 얻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도성의 성문 곁에 모였으며, 그 성은 기쁨으로 저들의 왕을 영접하였다.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의의 왕국이 건설되었다.” (8증언, 41-42)

가장 심한 반대 아래

“교회가 평화와 변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되므로 침묵해 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해 온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리고 오랫동안 동조해 온 진리의 공공연한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은 가장 심한 적의를 나타내고, 그들의 이전 형제들을 억압하고 증상하고 그들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박두해 왔다.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도록 강요당할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혹은 혼자서 의회와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소환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 비상사태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경험을 얻는 일을 등한히 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은 낭비한 기회와 등한히 한 특권들에 대한 가책으로 놀리게 된다.” (5증언, 463)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에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음으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며 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뾰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아 부인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며, 우리에서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

고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와 맞서는 일에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6증언, 400-401)

때에 맞는 인물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중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를 방해하기 위해 장벽을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 날까지 앞을 향해서 그리고 위를 향해서 전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인물들을 일으키셨고, 여전히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때에 맞는 인물이 있다.” (목사, 411)

굳건히 설자들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오직 영원한 반석에 저들의 영혼들을 고정시킨 자들만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2기별, 162)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편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충성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소수의 충성된 자들이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미구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9증언, 15-16)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난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9증언, 17)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

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체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쪽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2기별, 380)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될 교회는 엘렌 화잇이 살아있던 동안에 가졌던 동일한 신앙을 가졌으며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성실한 소수의 충성된 자들이다.

5. 진리는 승리할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행적, 495)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행적 601)

“진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선교, 77)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연결되어 일을 시작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에 도움이 올 것이다. 진리가 이기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교권, 313)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견해와 인간의 제도를 숭상하였으므로 거의 온 세상이 우상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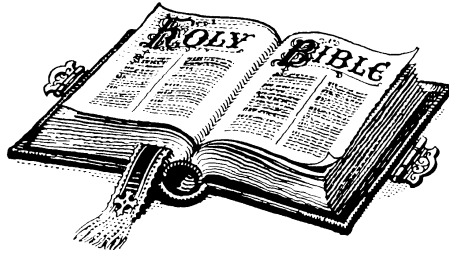
려고 노력한 그는 모든 기만적 술책을 사용하여 남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의인을 구별하는 표징을 반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깨뜨리고 멸시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별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때가 올 것이다. 회의론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부인할 것이다. 세속적인 정신이 많은 사람들을 물들이고 적은 무리를 지배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큰 노력과 계속적인 희생으로써만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진리가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다.” (선지, 186)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진리에 굳건히 매달려 그것과 함께 승리해야 한다.” (Letter 149, 1897)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목사, 410)

“변함이 없고 영원한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설득력 있는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고정시킬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에 의해 큰 비난이 만들어질 것이다.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때가 올 것이며,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이 세상에 들리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은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이며, 기별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1설교, 87-88)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깨끗케 한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2설교, 131)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떨시하셨으니 저희 죄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시 119:118)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시 119:133)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 119:136)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 119:163)

제9부

거짓된 교리

1. 로마교 - 다른 경전, 다른 계명, 다른 신

다른 경전

로마 천주교 경전은 외경(인간의 전통)까지 추가되어 기독교 경전인 성경(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다른 계명(법)

변개한 로마 천주교 십계명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다르다.

다른 신(神)

로마 천주교의 신(삼위일체신 三位一體神)은 성경의 신(神)과 다르다.

다른 경배의 날

로마 천주교의 전통으로 내려온 경배의 날(일요일)은 하나님의 넷째 계명에 명시된 참된 경배의 날(안식일)이 아니다.

참된 경배의 날

하나님의 넷째 계명에 명시된 참된 경배의 날(안식일-하나님의 인)

거짓 경배의 날

인간의 전통으로 내려온 거짓 경배의 날(일요일-짐승의 표)

삼위일체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오늘의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 -Handbook for Today's Catholic p, 11)

카톨릭 교회의 성립

“...그(콘스탄틴 황제)는 니케아에 종교 회의를 소집하여(325년), 삼위일체(Trinity)의 가톨릭 교리를 확립하니, 그것은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고(392년) 로마 최고의 종교적 주관자는 교황이 되었다(중 등 세계사, 431).” (로마의 도전과 증언 p. 62-미주 시조사)

일요일은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 - 천주교 교리문답에서

“일요일은 사도들에 의하여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옛날 이교 로마의 태양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리하여 그것은 성스럽다.”
- 듀에이 천주교 교리문답 (January 31, 1856 JWe, ARSH 142.10)

안식일에 경배하고 섬길 대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독생자)

일요일에 경배하고 섬길 대상

삼위일체신(三位一體神)-다른신

충격적인 사실

“만일 대부분의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해 28개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 대부분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28개 기본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제2번 교

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다.”(어찌 우리 잇으랴? p.288 - 죠지 나이트 저)

법궤를 던져버린 교회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1931년부터 서서히 삼위일체교리를 승인하였고 1980년에 교단적으로 삼위일체교리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에서 빛나가게 되었다.

2. 로마교의 교리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마천주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계 17:1-6)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儀式)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쟁투, 43)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쟁투, 50)

“법왕은 보편 교회(Universal Church)의 볼 수 있는 머리이며, 세계 각처에 있는 감독들과 목사들에 대한 최상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로마교의 주요 교리의 하나이다. 더욱이 법왕에게는 하나님의 직함들이 주어진바 되었다.” (쟁투, 50)

“로마교들은 신교도들에게 **이단이라는 죄목을 씌우고**, 고집스럽게 참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오히려 그들 자신들에게 해당된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군기(軍旗)를 버리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유 3)에서 떠난 자들이다.” (쟁투, 51)

“세기가 지나갈수록 **그릇된 교리가 로마로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쟁투, 58)

“법왕은 전 세계의 독재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법왕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인류의 운명은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모두 그의 관리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 년 동안 **로마교의 교리**들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절대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그 의식들은 엄숙히 거행되고, 그 축제일들은 널리 준수되었다.” (쟁투, 60)

“**법왕교의 교리**와 명령에 반대하는 자들의 흔적과 영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로마교의 정책이었다.” (쟁투, 61)

“**법왕교의 교리**의 권위에 대하여 의혹이나 의문을 품는 사람은 빈 부귀천을 막론하고 생명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쟁투, 61)

“이와 같이 사람의 이성(理性)에 호소한 결과, 사람들은 **법왕교의 교리**에 맹종하던 상태에서 각성하였다.” (쟁투, 89)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빛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로마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빛을 남김없이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마교의 흑암에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큰 장애를 만나야 할 것이었으

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은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오의 햇빛과 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주어졌었다면, 암흑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빛을 나타내 주셨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쟁투, 103)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쟁투, 298)

“사탄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하였다.” (쟁투, 298)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쟁투, 382)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효의 교파로 나뉘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작용되기에 꼭 알맞다.” (쟁투, 383)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쟁투, 388)

“그는 세상과 짝하므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감화를 미치고 있다.” (쟁투, 388)

“로마교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거두어 버리고 그 대신 그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전 인류에게 요구하였다.” (쟁투, 388)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신조와 교리에 신앙을 두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쟁투, 388)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쟁투, 443)

“미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敎令)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 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쟁투, 445)

“그러므로 “침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쟁투, 446)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온 세계에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교리와 일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과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착오 없는 하나의 표준이다.” (쟁투, 452)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경고는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신중히 살펴보도록 알려 준다.” (쟁투, 524)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둠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쟁투, 524)

“오늘날 그리스도교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된 교리와 기상천외의 사상들은 무수하게 많다.” (쟁투, 525)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쟁투, 536)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들여보낸 거짓 교리들 중 하나였다.” (쟁투, 549)

“영혼 불멸의 교리는 처음에 이교 철학에서 빌려 온 것인데 큰 배교의 암흑시대에 그리스도교와 결합되었다.” (쟁투, 551)

“법왕 교회는 그 무류설을 결코 철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법왕 교회의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쟁투, 564)

“로마교의 전성시대에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쟁투, 569)

“가장 암흑한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 (쟁투, 571)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쟁투, 582)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쟁투, 583)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쟁투, 583)

“미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敎令)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 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쟁투, 445)

“문둥병보다 더 부정하고 애굽의 재앙보다 더 치명적인 또 다른 종류의 문서가 있다. 우리의 출판사들은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상업적인 일을 받아들일 때, 바로 사탄의 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기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

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최면술과 강신술과 로마교와 다른 불법의 비밀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하는 저서들이 우리의 출판사에서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7증언, 166)

“사람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거절하면, 그들은 악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권(大權)을 행사하고자 주재념게 나선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친히 하고자 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감히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른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방법과 계획들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개념을 통하여 진리를 믿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기관들과 교회들을 더럽히며 타락시키고자 누룩처럼 작용하는 거짓 원칙들을 끌어들이다.” (7증언, 181)

“나는 우리의 출판소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알게 될 때 심령의 공포를 느낀다. 주님의 기관 안에 있는 인쇄기들이 영혼을 파멸시키는 로마교의 이론들과 그 밖의 불법의 비밀들을 인쇄해 오고 있다.” (8증언, 91)

“로마교의 매체를 통하여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회들이 그 기만에 휩쓸렸고 천년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의 분노를 견디었다.” (ST, February 8, 1910 par. 4)

로마 천주교의 역사와 교리들:

200 A.D. 죄가 없다고 간주되는 영아들 침례 (티툴리안 V. 12)

300 A.D.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321 A.D. 일요일 법령 (콘스탄틴 황제)

325 A.D.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본질에 관하여 논쟁

381 A.D. 콘스탄티노플 총회-삼위일체 교리가 굳혀짐-성령을 세 번째 위격으로 새롭게 해석함

- 389 A.D. 성모 마리아 숭배 시작
- 593 A.D. 연옥의 교리를 대중화
- 787 A.D. 성상과 우상 경배 허용 (제2차 니케아 총회)
- 1022 A.D. 고해성사/고백성사
- 1215 A.D. 미사, 사제에게 죄를 고하는 비밀 고해 성사
- 1232-1820 A.D. 종교 재판소
- 1534 A.D. 예수회 창립 (로올라, 1491-1556)
- 1545 A.D. 성서외전 추가 (트렌트 총회)
- 1546 A.D. 인간의 공로로 의롭게 됨
- 1546 A.D. 라틴어로 미사
- 1547 A.D. 견진성사 - 신앙 고백식
- 1864 A.D. 교황 비오 IX 세의 실러버스 에로룸(Syllabus Errorum)이라는 회칙에서 양심의 자유란 “미치광이의 광기”라고 단죄하고, 언론의 자유란 “전염 병 같은 오류”라고 주장
- 1870 A.D. 교황 무류설 (바티칸 총회)
- 1954 A.D.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설, (교황 피오 XII 세)
- 1996 A.D. 천주신자는 진화론을 믿어도 됨. (교황 바오로 II 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쟁투, 595)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쟁투, 595)

“오래지 않아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하게 시

힘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행하며, 빛을 뿌리고 다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전능자의 방패를 그 위에 펼치셨던 국가가 개신교의 원칙들을 포기하고 법령을 통해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로마교회의 편을 들고 그 뒤를 후원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진실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로마의 학대가 있게 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목사, 206)

3. 이원론(二元論)과 철학적 이상

철학적 이상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겔 14:3-6)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

상을 얹혀두고 있다. 한편 살아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창조의 업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경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다.” (쟁투 584)

“간직된 사상이나 대상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무나 돌로 신들을 조각하는 것과 똑같이 쉬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바알의 종들처럼 사실상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천연계를 통하여 계시된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대신에 안치된 어떤 철학적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공의와 자비가 그분의 보좌의 속성이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 곧 우리 구주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그분은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이다. 만일 그런 분이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분이며,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본받고자 애쓰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5증언, 174)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인간을 높이게 된다.” (선지, 177-178)

이원론(二元論) - 철학적 이상

이원론 - 두 부분, 이중성으로 구성된 상태; 마음과 물질이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믿음(철학); 선악이 두 존재나 원칙 안에 구체화 한다는 믿음 (신학) - 바이컨 영어사전

Dualism (이원론/二元論) n. - state of consisting of two parts, duality, doubleness; belief that mind and matter exist separately (Philosophy); belief that good and evil are embodied in two separate divine beings or principles (Theology) - Vicon English Dictionary

-이와 같이 철학의 근원은 영과 육을 분리시킨 이원론(二元論)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철학적 이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게 속한 성령을 그분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론의 이상인 것이다.

삼위일체교리와 영혼불멸설은 영과 육을 분리시킨 철학의 이원론(二元論)으로써 이교 로마를 통하여 기독교에 접목된 것이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오늘의 카톨릭 신자를 위한 안내서 -Handbook for Today's Catholic p, 11)

“성경에는 모든 의무가 밝혀져 있다. 주어진 모든 교훈은 이해하기 쉽다. 모든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8증언, 157)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전 14:33)

4. 거짓 종교, 거짓된 교리들

“거짓말에 그 근거를 둔 믿음은 생활이나 품성에 성화시키는 감화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오류는 진리가 아니며 그것을 반복한다거

나 믿는다고 해서 오류가 진리로 변할 수 없다. 아무리 성실성이 귀하다 하더라도 오류를 믿는 결과에서 결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성실성이 없는 참된 종교가 있을 수 없지만 **거짓 종교에 대한 성실성은 결코 그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을 좇으면서도 완전한 성실성을 보일 수 있으나 그 성실성이 바른 길을 만들거나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이 맹목적인 가벼운 신앙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러한 믿음을 성화시키는 믿음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신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원칙**이므로 그 원칙은 우리로 **진리가 무엇임을** 알게 한다. 우리들은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것과 비교해야 한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증거하되 오직 선한 것, 거룩한 신임장을 가진 것 및 우리들에게 참된 동기와 원칙들을 제시하여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품성의 외부적인 변화에 나타나느냐 **심령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의 일상적인 역사하심이** 결핍되는 한 저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보다 크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에서 저들 자신을 끌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이 결핍된 자들은** 시온성에서 **충성된 파수병(把守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눈이 멀고 나팔로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올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대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오순절 날과 그 이후에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면 현재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광신주의를 조심하라**”고 외칠 것이다. 또한 저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가리켜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저들의 의지와 저들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복종하지 않는 한 저들이 과거에 가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갖지 못할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기 원하고 **그분의 성령과 밀접한 연합**을 갖기 원하는 그 때는 얼마 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큰 죄는 저들이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갈급하며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에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조심하라. 극단적으로 믿지 말라”라고 외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할 때에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회개**의 상태와 같은 순수하고 실질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조심하면서 인간적인 흥분을 자극하는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그런 자극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간적인 흥분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며 의혹을 품는 무리들 속에 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남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에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며 비판할 자들이 있을 것인데 저들의 심령은 감동을 받지 못하고 냉담한 채 감수성이 무뎠기 때문이다.” (2기별, 56-7)

성경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성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는 그 공기 가운데 반역과 배도의 정신이 있다. 우리들의 의지할 데 없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매달리지 않는 한 우리들은 그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사람들이 것처럼 쉽사리 오류에 이끌리게 된다면 저들이 과연 사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적을 행할 때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사탄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하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척할 때에 누가 과연 요동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를 좇지 말라”(눅 21:8).

교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낫을 든든히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의 배는 든든한 낫으로 말미암아 태풍과 폭풍을 능히 이겨낼 것이다. 속임수들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사탄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생명을 희롱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경계하지 않는 한 우리 심령 가운데 교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애착 및 많은 다른 악한 습성들을 심어 줄 것이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말씀의 진리에 안정하지 못하도록 온갖 가능한 계책들을 꾸밀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은 경험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원수 마귀와 오류와 궤변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짓된 교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인데 이는 저들이 진리와 오류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탄의 간계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이유를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과 알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한 가지 죄에 방종하고 탐닉하는 것은 우리를 허약하게 하고 어두움에 이르게 할 것이며 격렬한 유혹을 당하게 할 것이다.” (RH, 1908. 11. 19) (2기별, 57-58)

5. 말씀의 질서에서 이탈

1) 영혼불멸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도덕적·영적 차원이 하나님의 도덕적·영적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리적 통일체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모습도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야 한다…….

성경은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를 본 것에 관해 말한

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칠십인 장로들은 그분의 발을 보았다(출 24:9-11). 비록 그분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거절했지만,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당신의 등을 보여 주셨다(출 33:20-23).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로서 심판정의 이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단 7:9, 10).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며 개인적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런 말씀은 결코 놀랄 만한 것이 못된다. 왜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제칠일 재림 교회의 28 기본 교리 제7장 인간의 본질 중에서]

2) 복음의 능력 - 평신도 훈련 교재 3권

제18과 영혼 문제에 대한 질문들-

(4) 사람이 죽으면 그 신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전 12:7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ruach) 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설명〉 여기에서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본래 “바람” 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호흡”이나 “생명”이다. 실제 이 말은 언제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하는 이성적인 존재에게만 사용되며 “루아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어 성경(성서교재 간행사, 1991)에서는 “그 때가 되면 흠에서 온 네 몸은 흠으로 돌아가고 네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만일 “루아흐”를 영혼으로 번역한다면 욥기 27장 3절의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루아흐)이 내 코에 있느니라”는 말씀에서 영혼이 코에 있다는 우스운 말이 되고 말 것이다. - 복음의 능력-평신도 훈련 교재 3권 227p./김대성 저

-위 1), 2) 인용구들은 영혼불멸설이 비성서적임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설명할 때에는 인간의 영이 몸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할 때에는 성령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신의 영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정의하는 것은 얼마나 큰 모순(矛盾)이며, 말씀의 질서와 일관성에서 빛나간 반칙인가!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인 그분 자신의 영인데 삼위일체교리의 ‘또 다른 하나님’일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도 없으신 외적인 형상만 가지신 분들일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성경 말씀에 계시된 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본질(nature)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오묘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며 전지전능(全知全能)하고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그분 자신의 속성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외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창조와 재창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2:7)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

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영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그것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며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소망, 805)

-흠덩이로 만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생기)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생명이 없었던 흠의 몸이 살아 숨 쉬고 영(마음=생각+감정)이 작동하였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진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진리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년 이상 세력을 떨친 로마 천주교의 오류를 받아들여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그리하여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몇 분인지 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님의 아들이외의 또 다른 신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혼불멸설과 삼위일체교리는 이원론(二元論 - 영육이 분리되었다는 철학)의 강신술로서 같은 맥락이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비성서적인 교리들이다. 영혼불멸설이 틀렸다고 하면서 동시

에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말씀의 질서와 일관성에서 빛나간 모순(矛盾)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권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권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이 1:9)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 2:22)

6. 재림시기를 정하는 참람

1) 성경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6-39)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느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42-44)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행 1:7)

2) 예언의 신에서

시기 문제-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흠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치므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마쳐질 것이다.” (초기, 75)

시기에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복해서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기에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이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정해진 시기를 알 수 없다.” (리뷰, 1892-3-22)

그저 지나가 버리게 될 것:

“1844년의 시기가 지나간 후, 나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증언해 왔다.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시기를 정하는 일이 거듭되겠지만, 그저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기를 정하는 일의 영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시기에 대한 큰 시험은 1843년과 1844년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 때 이후로 시기를 정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스스로 기만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해 왔다.” (1증언, 72-73)

사탄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근거가 되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 곧 1844년 가을에 2300주야가 마친다는 사실은 아무 의심 없이 입증된다. 그러나 예언적 기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새로운 날짜를 발견하고자 거듭거듭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론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해석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하는 일이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시간을 정하는 일은 하면할수록 또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더욱 사탄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이다. 그 시기가 지나가자 사탄은 재림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도록 자극하여 1843년과 1844년에 있는 큰 재림운동에 치욕을 끼친다. 그리하여 그 오류를 고집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나치게 먼 장래에 속한 일로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그릇된 안일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다 지나갈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쟁투, 457)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여, 그분의 재림에 관해서나 그분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시기를 정하는 어떤 이들을 조심하도록 하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행 1:7).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열심인 것처럼 보일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이론들을 세상과 교회 앞에 제시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 오류를 섞어 놓을 때, 그들의 기별은 기만적인 것이 될 것이며 영혼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대항하고 반대하여야 한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요, 거짓 것에 진리의 도장을 찍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목사, 55)

거짓 선지자:

"자신들을 재림교인이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정했던 사람들이었다. 거듭거듭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가 정해졌으나 우리 주께서 오실 명확한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선언되었다. 그 결과는 계속 실패였다. 구원의 후사를 위해 봉사하는 천사들조차도 그 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그 날이나 시간은 사람들에게나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반복해서 정해진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해 세상은 더욱 결정적인 불신의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혐오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속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입증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진리에서 돌이키고 있다.

참람되게도 정해진 시기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영혼의 대적을 기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로 인해 그리스도교 신앙보다는 불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절을 이끌어 내고, 거기에 거짓 해석을 보태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히 입증하는 듯이 보이는 일련의 논증들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과 그들이 영감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진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왜곡했다. 이러한 실수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평판이 나빠지게 했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종들은 잠잠해서는 안 된다. 예언 가운데 미리 말해진 징조들은 우리 주변에서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열성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감명을 끼치기 위해, 정확한 때를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관점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백성들의 감정이 분기되고 그들의 두려움이 일어날지 모르나 그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않

는다. 흥분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반복되었듯이 시간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은 냉담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어떤 큰 흥분 없이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기가 불가능하다.”(4증언, 307-308)

“때와 기한은 …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 7).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정확한 시기를 알기 위하여 궁금해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으므로 그 때와 시기를 저들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저들이 알아야만 할 가장 중대한 사실이 아니었다. 저들은 다만 주님을 순종하는 생애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깨어서 일할 뿐이었다.”(1기별, 185-186)

“이 사업은 우리들도 참여해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자극적인 계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대신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면서 현재 당면한 기회들을 지혜롭게 선용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한에만 두시고 인간에게 밝히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하여 공론을 펴는 일에 우리들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대신에 성령의 지배에 우리들 자신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인간적인 견해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떡을 진리를 모르고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1기별, 186)

“사탄은 인간의 정신을, 현대 진리에서 관심을 돌리게 할 이론들과 추정(推定)들로 가득 채우며 이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구세주께서는 공론에 몰두하며 주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은 사실들에 대하여 캐묻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꾸중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중대한 진리를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저들에게 당신의 교훈과 지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저들의 당면한 의무를 수행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기별들은 저들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하나의 명령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오직 진리를 저희 마음에 고정시켜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일어날 큰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한 시기를 발표함으로 인간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은 자를 교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서는 자극을 주거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호기심에 대한 자극은 오히려 어떤 진기한 대상이나 신비스런 사물에 대한 욕구를 왕성케 할 뿐이다.** 주님께서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근본 목적은 인간이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순종과 참된 거룩함의 도리에 있어서 향상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다만 인간이 일상 생활의 필요에 적절히 쓸 수 있을 만큼의 교훈을 주셨으며 또한 일용할 분량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록 진리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았으며 다만 제사장들과 교법사들의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잊어버려진 진리들을 밝히 깨닫게 하신 것뿐이다. 예수님께는 거룩한 진리의 구슬들을 본래 부조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절차를 따라 제자리에 옮겨 놓으셨다. 보배로운 교훈들을 가르치신 후에 당신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밝히 기억케 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복음의 단순성을 계속적으로 거스릴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독창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사람들을 영적인 황홀경 속으로 이끌어 들여 현재의 경험 상태를 변화시켜 보려고 열망한다. **현대 진리의 신성성을 제대로 깨**

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의 현 상태가 크게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써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실한 노력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우리는 참된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1기별, 186-188)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들이 그 넓이와 깊이와 그 가치를 별로 모르고 있는 진리를 주셨으며, 이와 같은 상태는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들 역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위대성과 아름다움을 식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만일 우리가 영적 지식에 있어서 자라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의 생각지 못했던 방면에 진리가 계발되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진리는 결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만 두신 때와 시기를 아는 일에 상상의 재료가 되도록 계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거듭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1기별, 188)

거짓된 자극:

“주님께서서는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고 시기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시기 문제는 결코 시험 거리가 되지 않을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시기에 관한 문제를 전파하

는 데서 거짓된 자극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상 세 천사의 기별은 본래의 주장대로 기별을 고수할 수 있으며 기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았으며 세 천사의 기별이 큰 권세로 나아가 그 사업을 완수하고 의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을 보았다.” (1기별, 188)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

“나는 신자들에게 이 사람의 이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으며 그가 예언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빚어질 사태는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데서 신앙 생애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오는 때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 때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오실지 말지 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주님의 재림을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1기별, 189)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심: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다. 우리

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리고 애쓰지 말 것이다. 깨어 일하며 기다리고 멸망하여 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주님의 노선에서 일하고 하나님께의 풍성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당신의 은사들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탄은 이때를 위한 놀라운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꾸며놓은 특별한 기별을 줄 것이다.” (1기별, 191)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

“언제쯤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온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대답은 오직 지금은 해가지기 전에 일해야 할 때이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기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쓴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 총회에서 숨기기로 한 것을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이다.” (1기별, 192)

“나는 성령의 부어 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증언이 없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영혼과 품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하찮은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낭비되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행 3:19)” (1기별, 192)

참된 기별은 시기를 정하지 않음: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든가 혹은 오시지 않는다는 등 시기를 정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기별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의 강림이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동안 지체될 것이라고 말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기별이며 공중에 나는 세 천사가 전파하고 있는 그 기별이다.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타락한 죄악 세상에 경고해 주는 일이다.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2기별, 113-114)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말씀하신다.” {리뷰, 1913-11-13}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사 8:20)

3) 제 칠일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증언에서

“다른 재림교인들과 비교하여, 제칠일 재림교인들은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 회개치 않은 악인의 최종적 멸망을 믿는 점에서 다른 부류와 다르며, 또 다른 부류의 재림교인들과 다른 점은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1872년 제칠일 재림교회 기

본 원칙 선언문 서두)

“9번.- 1844년 재림교인들의 실수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재림 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긴 예언적 시기는 다니엘 8:14 절의 2300 주야로서, 그 해에 끝났으며, 성소의 정결 사건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 {1872년 제칠일 재림교회 기본 원칙 선언문 제9번}

제임스 화이트 - James White (화이트 부인의 남편, 목사, 행정가, 편집장, 대총회장 역임):

“시기 정하는 것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1880 JW, LIFSK 221.1}

존 러프보로우 - John Loughborough (목사, 교회 역사가)

“구세주의 교훈은 깨어있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재림 교회의 자세이다. 그들은 모든 예언적인 기간이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마쳐졌으므로 그들은 시기를 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1904 JNL, LDT 188.1}

우라이아 스미스 Uriah Smith (리뷰 잡지의 편집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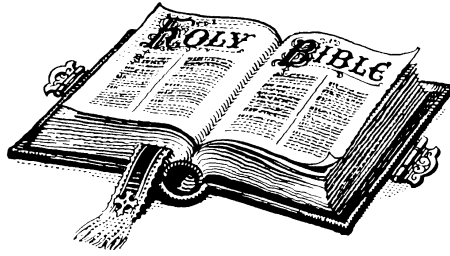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예언적인 기간이 없다. 그러나 성소가 정결케 되는 비교적 신속한 일이 재림 전에 앞선다. 이것은 시기를 정하는 우매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1898 UrS, LUJ 275.3}

E. J. 왜고너 - Ellet J. Waggoner (1888 기별자)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불신의 가장 대표적인 소산물이다.” {March 10, 1887 EJW, SITI 151.6}

A. T. 존스 목사 - A. T. Jones (1888 기별자)

“시기를 정하는 우매함은 진리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다.” {November 8, 1898 ATJ, ARSH 728.1}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벧전 4:17)

제10부

심판 때에

1. 무관심과 중립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왕상 18:21). 그 큰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여호와께 충성을 바치는 이가 없다.

어두운 구름처럼 얼마나 두려운 기만과 맹목이 이스라엘을 덮었는가! 이 맹목과 배도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보내어 주신 견책과 경고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서서히 임하였다. 이 두려운 위기의 때에 우상숭배적인 제사장들과 배도한 왕 앞에서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적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과 같다.” (3증언, 280-281)

“이 시대보다도 충성스러운 경고와 견책, 세밀하고 정확한 취급이 더 크게 필요로 되었던 때는 결코 없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큰 권세를 갖고 내려왔다. 그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우화들로 범람시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해 주기를 좋아한다. 죄와 사악함이 두렵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침투해 들어오는 흑암을 물리치기 위하여 좀 더 굳건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영의 면밀한 활동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필요하다. 미련을 떨쳐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한 우리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무기력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사탄은 강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마음들을 향해서 행사한다. 설교자들과 백성들은 흑암의 세력 편에서 있는 것으로 발견될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현재 **중간 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옳은 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고 말씀하셨다.” (3증언, 327-328)

“우리 중 아무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는 없다.** 우리의 영향은 주님을 위하거나 반대하는 것 중 어느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활동적인 매체가 되거나 아니면 원수의 활동적인 매개체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거나 흩어 버리는 자가 된다.” (4증언, 16)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도 섬기지 않는 중간 계층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의 힘을 통해 활동하셔야 한다.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 (보훈, 93-94)

2.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 받게 되는 것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탄의 꾀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

나눔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부조, 55)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계 3:20)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로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리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원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 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소망, 489-490)

“나는 백성들이 거절하는 빛이 크면 클수록 그들에게 다가올 기만과 흑암의 세력이 커질 것을 보았다. 진리를 거절할 때, 사람들은 포로 곧 사탄의 기만의 백성으로 남게 된다.” (1증언, 231-232)

여호와와 크 낱

“여호와와 크 낱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슌 1:14).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막연한 헌신으로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 기다리고, 깨어 있고, 방심하지 않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개인적 경건과 봉사를 등한히 할 만큼 완전히 세상일에 부산하게 움직이고 쫓기고 계획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업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한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우리는 심령의 등을 손질하고, 등과 함께 그릇에 은

혜의 기름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영적 타락을 막는 일에 기울여야 한다. 그날은 멀지 않고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는 물론이요 마음으로도, “주인이 더디 오리라”(마 24:48)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 위선자와 불신자에게 정해진 몫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5증언, 276-277)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이 가까웠다.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왕하는 길은 미구에 좌우편에 있는 위험으로 막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자들의 길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것이 가로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증언, 22)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의 큰 사업, 죄 많은 세상에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사업을 가지고 있다.” (7증언, 270)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시간과 힘을 자아 중심의 삶에 바치기에는 너무 늦다. 마지막 날에 그대가 하늘의 보화에 걸핍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십자가의 승리를 밀고 나가고, 영혼들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대들의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사업은 시험하는 불의 시련을 견딜 것이다.” (9증언, 56)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화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이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미구에 중대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9증언, 126)

“여호와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슥 2:3)

3.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사 60:2)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마 25:5-6)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한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탄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살후 2:9, 10)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탄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과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실물, 414)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 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찌끼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겉치레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에 어둠 속으

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탄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계 13:16),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 빛들로”(빌 2:15)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선지, 188-189)